

I ㅈ도





여수시
변천사

I. 초도



1. 사회·지리적 배경과 환경

가. 사회·지리적 배경

1) 주요 항과의 거리

초도항에서 여수여객선터미널까지는 직선거리로 71.3km 떨어져 있으며, 고흥의 녹동항까지는 32.6km, 손죽도의 손죽항과는 12.1km, 거문항까지는 24.5km 떨어져 있다. 의성항에서 여수여객선터미널까지는 72.2km 떨어져 있으며, 손죽항까지 12.8km, 거문항까지는 22.3km 떨어져 있다.





대동항



의성항



진막항



예미항

2) 인구현황

2023년 7월 1일 기준, 초도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223세대 368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 중에서 남자가 202명, 여자가 166명이다. 대동마을의 인구가 가장 많은데 117세대 186명이고, 의성마을 59세대 107명, 진막마을이 47세대 75명 순이다.

인구 현황 (명)

구분	세대수	인구수	남	여
대동	117	186	105	81
의성	59	107	60	47
진막	47	75	37	38
계	223	368	202	166



대동마을



의성마을



진막마을



예미마을



정강마을



녹항마을

3) 토지현황

초도의 총면적은 7.67km²이고, 해안선 길이는 22.6km이다. 2009년 기준 토지이용 현황은 논 0.16km², 밭 1.56km², 임야 5.19km², 대지 및 기타가 0.76km²이다.

구분	면적	토지 현황 (km ²)		
		전답	임야	대지 및 기타
초도	7.67	1.72	5.19	0.76

4) 공공기관

(1) 초도중계민원처리소

1965년 4월 19일, 출장소 설치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초도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초도출장소를 설치하여 같은 해 6월 10일부터 집무하였다. 당시에는 출장소 건물이 없어 초도리사무소의 건물 일부에서 집무하다가 1985년 삼산면 초도리 산 300번지(삼산면 대동길 15)에 26평 벽돌슬라브로 출장소 사무실을 신축하였다.

2007년 5월 31일 조직개편으로 초도중계민원처리소로 개칭되었고, 건물 노후화에 따라 2023년 1월 삼산면 초도리 산 299번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하였다.

1965. 04. 19. 여천군 초도출장소 설치

1985. 여천군 출장소 사무실 신축(삼산면 초도리 산 300번지)

1998. 04. 01. 3여통합으로 여수시 초도출장소로 개칭

2007. 05. 31. 초도중계민원처리소로 개칭

2023. 01. 사무실 신축



중계민원처리소



구 중계민원처리소

(2) 초도치안센터

여수경찰서 삼산파출소 초도출장소는 1976년 7월 15일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161번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개소하였다. 이후 2003년 초도치안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1년 10월 17일 청사 노후로 삼산면 대동길 82, 현 위치에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76. 07. 15. 여수경찰서 삼산파출소 초도출장소 개소

2003. 초도치안센터 명칭 변경

2011. 10. 17. 현 위치(삼산면 대동길 82)로 신축이전



초도 치안센터

(3) 초도우체국

5.16군사쿠데타 이후 우체국이 없는 면 단위에는 지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비로 1면 1국씩 별정우체국을 세워 운영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이에 따라 초도에서 별정우체국 건립을 신청하였으나, 이미 삼산면에 거문도우체국이 있고, 작은 섬이라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체국을 세우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65년 12월 25일 의성마을에 청사를 준공(삼산면 초도리 1359-2번지)하여, 같은 달 30일에 개국하였으며, 당시 우편과 금융, 보험 업무를 취급하였다. 다음 해인 1966년 8월 1일 전신전화 업무를 개시하고, 1977년에는 전화 가입 업무를 시작하였다. 1985년 12월 자동 전화시설을 개통하여 교환수 없이 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1989년 8월 19일 우체국 청사를 신축하였다. 1990년 9월부터 온라인 업무를 개시하였다.



초도우체국



초도우체국 (1965년 개국 당시)

- 1965. 12. 30. 초도우체국 개국
- 1966. 08. 01. 전신전화 업무 개시
- 1985. 12. 26. 자동전화시설 설치
- 1989. 08. 19. 우체국 청사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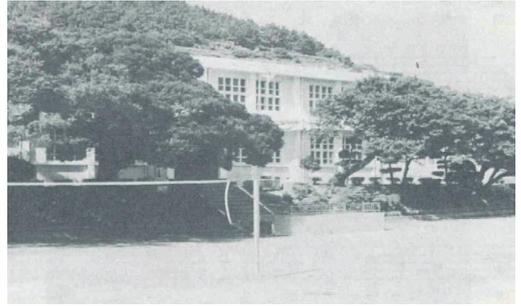
5) 교육기관

(1) 초도개량서당(草島改良書堂)

일제강점기 초도 주민들은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초도 유지의 후원을 비롯하여 대동어업조합과 의진어업조합에서 위관한 금액 가운데서 조합원들에게 배당할 금액 중 일부를 후원하여 1917년에 초도개량서당을 설립하였다. 개량서당을 설립하면서 처음부터 보통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1920년 최소한의 교실과 운동장을 확보하고 학교인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에서는 1면 1교 제도가 정책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폐교된 초도초등학교



초도초등학교(1950년대)

(2) 초도초등학교

일제강점기였던 1936년 초도 대동마을에 사립 초도보통학교로 설립인가되어 다음해인 1937년 5월 1일 개교하였다. 해방 후인 1946년 10월 공립 초도국민학교로 승격하였고, 이후 의성, 진막에 분교장을 두었다. 1969년부터 1984년까지는 상도에 분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1985년 3월 손죽, 평도, 광도, 소거문분교가 초도국민학교로 편입되었다. 도서 지역 인구감소로 인해 1991년 평도와 광도분교장이 폐교되고, 1999년에는 소거문분교장과 의성분교장이 폐교되었다. 2009년 진막분교장을 끝으로 모든 분교가 폐교되었고 이후 2017년 8월 31일 초도초등학교는 폐교하였다.

- 1936. 12. 29. 사립 초도심상소학교로 설립인가
- 1937. 05. 01. 사립 초도심상소학교 개교
- 1939. 04. 13. 사립 초도보통학교 6년제 승급
- 1946. 10. 19. 초도국민학교 공립학교로 승격
- 1959. 10. 24. 의성, 진막 분교장 설치
- 1969. 09. 12. ~ 1984. 12. 11. 상도분실 운영
- 1985. 03. 01. 손죽·평도·광도·소거문분교 초도국민학교로 편입
- 1987. 03. 01. 병설유치원 1학급 인가 개원
- 1991. 02. 28. 평도분교장, 광도분교장 폐교
- 1999. 09. 01. 소거문분교장, 의성분교장 폐교
- 2009. 09. 01. 진막분교장 폐교
- 2014. 07. 01. 휴교
- 2017. 08. 31. 폐교

- **교훈** : 꿈을 키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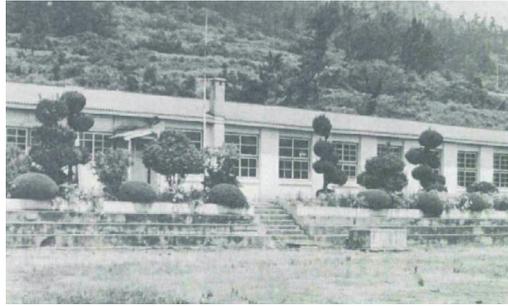
- **교가** : 김재준 작사, 작곡

상산봉 정기받은 초도 원두에
우뚝 솟은 우리 모교 바라보는 곳
요람속에 종소리 울려퍼질 때
배우고 자라나는 우리 초도교

남해바다 푸른 물결 넘실거리며
우렁탄 뱃고동에 발을 맞추어
내고장 새싹들이 모여들어서
군세게 자라나는 우리 초도교



폐교된 의성분교



의성분교

(3) 초도초등학교 의성분교

초도초등학교 의성분교는 1959년 10월 삼산면 초도리 의성마을 1503번지에 개교하였다. 1971년에는 학생 수 증가로 의성국민학교로 승격하였으나, 14년 만인 1985년 다시 초도국민학교 의성분교장으로 격하되었다. 1999년 9월 초도초등학교와 통폐합되면서 폐교하였다. 폐교 이후 한동안 폐허로 되어 버려져 있다가 여수시에서 매입하여 펜션으로 활용하고 있다.

1959. 10. 24. 초도국민학교 의성분교장 개교

1971. 03. 01. 의성국민학교 승격

1985. 03. 01. 초도국민학교 의성분교장 격하

1999. 09. 01. 초도초등학교 통폐합

• 교가 : 이창진 작사, 손문성 작곡

남해의 한복판에 자리를 잡아
상산봉 우뚝 솟아 의성이렸네
배우고 가르치는 영광의 터전
굳세게 나가자 우리 건아들

아침해 금빛 이룬 넓은 바다에
장하다 억만봉은 의성의 상징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건아들
거룩한 이강산을 길이 빛내세

<후렴>
배워라 튼튼하라 씩씩하여라
세세년년 길이 빛날 우리 의성교



폐교된 진막분교



진막분교

(4) 초도초등학교 진막분교

초도초등학교 진막분교는 1959년 10월 24일 삼산면 초도리 산 2457번지에서 개교하였다. 당시 의성분교도 함께 개교하였다. 1971년 3월에 진막국민학교로 승격하였다가 학생 수 감소로 1985년 3월 1일 초도국민학교 의성분교장으로 격하되었다. 1999년에 2학급으로 운영되다가 2009년 9월 1일 초도초등학교에 통폐합되면서 폐교되었다.

1959. 10. 24. 초도국민학교 진막분교장 개교

1971. 03. 01. 진막국민학교 승격

1985. 03. 01. 초도국민학교 의성분교장 격하

1999. 03. 01. 2학급 인가

2009. 09. 01. 초도초등학교 통폐합

• 교훈 : 자주인, 도덕인, 창의인 • 교가 : 권오훈 작사, 유원 작곡

망금산 병풍이뤄 아늑한 이곳
스승의 품안에서 자라는 우리
산보다 더 푸르른 꿈을 키우며
손잡고 공부하자 진막어린이

푸른 바다 딛고선 우뚝한 이곳
바다자원 풍성하여 든든한 마음
바다로 한없이 꿈을 퍼면서
새나라 역군되자 진막어린이

(5) 초도국민학교 상도분실

상도는 초도 대동마을에서 북쪽으로 6km 떨어진 작은 섬으로 20여 명의 주민이 살았다. 이 작은 섬에 초도국민학교 상도분실이 설립되어 1969년 9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약 15년간 운영했다. 폐실 되기 2년 전인 1982년 12월 10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초도국민학교 상도분실에서 후배들을 가르친 김철훈 선생의 기사'라는 제목으로 학생 1명에 교사가 1명인 상도분실에 대한 기사가 실려있다.



상도분실기사



폐교된 거문중학교 초도분교



거문중학교 제1회 졸업생

(6) 거문중학교 초도분교

초도 주민들은 교육열이 높아 학생들에게 중등교육을 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953년 3월 10일 초도고등공민학교(비인가)를 개교하였다가 얼마 후 대성고등공민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1958년 초도고등공민학교로 이름을 다시 바꾸었으나 운영난을 겪으면서 1961년 3월 폐교하였다.

1964년 5월 11일 전남도립 초도고등공민학교 설립이 인가되었으나 교사를 신축하지 못해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았다. 주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1966년 10월 신축 교사가 준공되었다. 이후 1966년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 456번지(대동마을, 삼산면 초도로 48)에 초도중학교로 설립인가(3학급)되어 다음 해인 1967년 3월 개교하였다. 학생 수 감소로 1995년 초도초등학교 거문중학교 초도분교장으로 격하되었다가 1997년 거문중학교 초도분교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7년 2월 28일 폐교되었다.

- 1966. 12. 13. 초도중학교 설립인가
- 1967. 03. 10. 초도중학교 개교
- 1977. 03. 01. 6학급 증설 인가
- 1995. 03. 01. 초도초등학교·거문중학교 초도분교장으로 교명 변경
- 1997. 08. 01. 거문중학교 초도분교장으로 격하
- 2017. 02. 28. 폐교

- 교훈 : 성실한 사람, 개척하는 사람
- 교가 : 김상권 작사, 김상석 작곡

산 높고 물 맑은 상산봉 밑에
명량한 우리의 벚들 배움의 학교
가슴 깊이 간직한 향토의 개발
변함없이 한뜻으로 세워가리라
불러라 즐거운 우리의 노래
그 포부 높도다 초도중학교

6) 기타

(1) 여수농협 초도지소

5.16군사쿠데타 이후 각 리 단위로 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라는 지침에 의해 초도에 대성, 의성, 진막 3개 리에 농협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운영 미숙과 기존 상점의 견제를 받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이후, 면 단위로 개편하여 삼산농협 초도지소가 생겼고, 3여통합 이후 여수농협 초도지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여수농협



여수농협(2008)



초도내연발전소

(2) 초도내연발전소

1980년까지 대동리, 의성리, 진막리가 따로따로 자가발전소를 운영하였다. 보통 일몰부터 밤 11시까지 발전기를 돌렸으나 기름값 등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 주민 부담이 컸다. 1985년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자, 초도에서도 이를 신청하여 1990년 12월 27일 초도전화사업이 확정되었다. 1991년 1월 14일 초도내연발전소건설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총사업비 2,870백만 원(용자 238백만 원, 국비 258백만 원, 군비 398백만 원, 한전 1,290백만 원, 주민 152백만 원)을 들여 발전소를 착공하여 1992년 12월 26일 토목, 건축 공사를 준공하였다.

7) 사회조직

(1) 초도향우회¹⁾

1969년 5월 19일 종고산 보광사에서 초도 향우들이 모여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애향심 함양과 상부상조 및 협동 정신을 고취하는 내용의 회칙을 만들면서 재여초도친목계가 조직되었다. 1984년 초도향우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산등록 등을 함께 실시하였다. 2013년 11월 24일 초도초등학교 총동문회(1993년 창립)를 초도향우회와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2) 어업조합

① 대동어업조합과 의진어업조합

일제강점기 해초류와 패류를 일본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초도 어업권에 다툼이 발생하면서 초도에는 어업조합이 2개가 조직되었다.

먼저 예미마을, 큰사슴목마을, 작은사슴목, 상섬을 포함한 대동리 주민들이 해산물을 공동으로 채취하고 공동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높이기 위해 대동어업조합을 조직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의성리와 진막리 주민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공동으로 채취하고, 공동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의진어업조합을 설립하였다.

② 초도어업조합

1935년 인가된 초도사립소학교의 인가조건이 대동어업조합과 의진어업조합이 학교의 모든 경비를 배분하여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초도주민들은 회의를 통해 학교는 대동리에 세우고 조합은 의성리 당산 팽나무 위쪽에 있던 의진어업조합의 건물과 터를 더 넓혀, 창고와 목욕탕을 포함하여 규모 있게 더 크게 증축하여 1937년 초도어업조합으로 통합하였다.

주민들이 생산한 어패류와 해조류를 수집하고, 중매인이나 유력 상인을 대상으로 경매하고, 효율적인 운반을 통해 소득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톳, 미역, 김, 청각, 파래, 각종 가사리 등의 해조류 공동 채취와 판매로 어민소득을 높이는 한편, 문어, 장어, 꼼장어(뽀래), 조기, 갈치, 고등어, 가라지 등을 많이 낚아서 위판하였다.

문어와 장어는 의성향에 설치하여 관리하는 활어조에 모아두었다가 활어 운반선이 와서 일본으로 실어갔는데, 초도에서 나온 각종 수산물은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1966년

1) 초도향우회, 초도초·중학교 총동문회, 『草島郷土史』, 초도향토사편찬위원회, 2020.



초도어업조합 옛사진 2)

대일무역이 다시 열렸을 때 초도 정치망에서 잡아 수출하는 어류는 무역회사에서 더 비싸게 사 줄 정도로 일본에서 알아주었다고 한다. 당시 초도는 중선배(범선 안강망)가 60여 척이나 되어, 어망을 짜는 실, 로프, 소금, 쌀 등 선수품을 공동 구매하여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출어할 때에 업자는 시중 가격보다 더 싸게 사고, 조합은 수수

료를 받아 운영하여 흑자조합이 되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직후인 6월 1일 어업조합을 어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면 1조합으로 통폐합시켰다. 이에 따라 초도어업조합과 손죽도어업조합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거문도어업조합에서 거문도어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통합³⁾하였다. 초도 대동리에 초도지소를 두었고, 손죽도 어업조합사무실에 손죽지소를 설치하였다. 1972년 전국의 모든 어업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바뀌어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있다.

(3) 초도어촌계

초도의 어촌계는 마을별로 대동어촌계, 의성어촌계, 진막어촌계 총 3개의 어촌계로 어촌계가 관리하는 지선과 주변 섬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대동어촌계는 2023년 현재 어촌계원 수가 53명이며, 1980년대에는 약 2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수가 많았으나, 주민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인하여 점차 줄어들었다. 현재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33명, 이하가 20명으로 어촌계원 대부분이 고령이며, 남녀비율은 대략 5:5 정도이다. 어촌계의 수익사업은 나잠어업을 하는 마을 해녀 5명에게서 얻는 수익금과 주변 섬에서 나는 해조류(툇)를 일부 어촌계원들에게 행사 계약한 수익금을 어촌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12개 반으로 나누어 각 반마다 해조류 및 수산생물을 채취하였으나, 현재는 매 달 그믐과 사리에 각각 3일씩 마을주민 공동으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일부 어촌계원 중 선박을 이용한 어업면허가 있는 계원들은 복합(자망+통발) 및 통발, 낚시 등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2) 초도향우회, 초도초.중학교 총동문회, 『草島郷土史』, 초도향토사편찬위원회, 2020.

3) 초도향우회, 초도초.중학교 총동문회, 『草島郷土史』, 초도향토사편찬위원회, 2020. p.122 인용 “전라남도지사가 김사연 씨를 의진어업조합 특별의원으로 다시 임명한 날이 1937년 1월 1일인데, 초도어업조합 특별의원으로 임명함. 소화 12년 8월 23일 전라남도지사의 임명장을 토대로 하여 초도어업조합 설립 인가일을 1937년 8월 23일로 볼 수 밖에 없다.”

의성어촌계는 2023년 현재 어촌계원 수가 46명이며,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36명, 이하가 10명으로 대부분 고령이며, 남녀비율은 5:5 정도이다. 어촌계의 수익사업은 나잠어업을 하는 마을 해녀 8명에게서 얻는 수익금과 김양식어장 30ha를 행사 계약한 수익금을 어촌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마을어업 지선은 어촌계원들에게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부분 개방하고 있다.

진막어촌계는 2023년 현재 어촌계원 수가 30명이며, 1970년대에는 70여 명으로 어촌계원 수가 많았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24명, 60세 미만이 6명으로 대부분이 고령이며, 남녀비율은 5:5 정도이다. 어촌계의 수익사업은 나잠어업을 하는 마을 해녀 6명에게서 얻는 수익을 비롯해 마을어장에서 일부 소득을 얻고 있으며, 나머지는 의성어촌계와 비슷하게 활용하고 있다.

8) 초도보건지소

대동리는 1958년부터 송재술 씨가 약국을 차리고 환자가 발생하면 왕진하여 진료해 주었다. 의성리에서는 이남술 씨의 제증약국과 이판재 씨의 서울약국이 있어 환자를 치료하였다.

1980년 12월 농어촌 등 보건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1984년 2월 3일 초도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초도의 3개 마을주민의

료혜택이 시작되었다. 당시 초도보건지소에는 진료소장을 비롯해 3명의 직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근무하였다.

2007년 7월 5일 건물 노후화에 따라 여수시 삼산면 대동길 78에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초도보건지소

나. 지형과 환경

1) 지형

초도는 상산봉(上山峰)[339m]을 중심으로 섬 전체가 대부분 산지를 이룬다. 평지는 일부 해안가와 산지 사이에 소규모로 분포한다. 황제도·장도·윈도(이상 행정구역상 완도군 소재)·용도·중결도·안목섬·둥굴섬·진대섬·술대섬·취섬·솔거섬과 함께 초도 군도를 형성한다.



초도 지형도



상산봉 산정부



안목섬 간조 육계사주

(1) 상산봉

상산봉은 해발 339m로서 유문암질 암석을 기반암으로 발달하였으며, 특히 산정부는 산성암인 유문암이 잘 발달한다. 유동성이 낮고 점성이 강한 이 암석의 특성으로 급경사의 산정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암석 내 수직 절리가 발달한 점이 그 특징이다. 산 정상에서는 주변 섬인 취섬, 구명섬, 둥굴섬, 술대섬 등이 잘 관찰된다.

(2) 육계도와 육계사주

육계도는 육계사주에 의해 연결된 섬을 말한다. 육계사주는 육지로부터 돌출 성장하여 가까운 섬에 연결된 사주이다. 육계사주의 성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파도가 육지 쪽으로 진행될 때 섬이나 암초들과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파도는 회절하여 섬 뒤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힘이 약해지고 그곳에 퇴적이 일어나 육계사주가 형성된다. 둘째, 연안류에 의해 운반된 토사가 퇴적되어 사취의 성장을 촉진함에 따라 육계사주가 발달하기도 한다. 안목섬의 육계사주는 간조 육계사주로서 성인은 전자에 해당하며, 존슨(D.W. Johnson)의 평면 형태에 따르면 단일형에 해당한다.⁴⁾

4) 자연지리학사전

(3) 암석해안

초도는 해안에 이르러 급애를 형성하기 때문에 기반암이 풍화·침식에 노출된 암석해안이 발달했으며 해식애와 해식동이 잘 나타난다. 해식동은 해식애의 기저부에 발달한 것으로 폭에 비하여 높이가 높은 것이 많고 대부분 해안선 가까이에서 파도, 조류, 연안류 등의 작용을 받아서 해안에 형성된 동굴이다. 더구나 해안에 주상절리가 발달하면 이곳에 생긴 틈바구니를 파고, 파도가 밀어닥쳐 썰기 역할을 하여 그 틈을 넓히고 연층부를 관통하기도 한다.⁵⁾

(4) 암괴원

기반암에서 분리된 각진 암석들이 완만한 사면을 넓게 덮어 이루는 사면을 말하며 암해(巖海)라고도 한다.



초도에 발달한 암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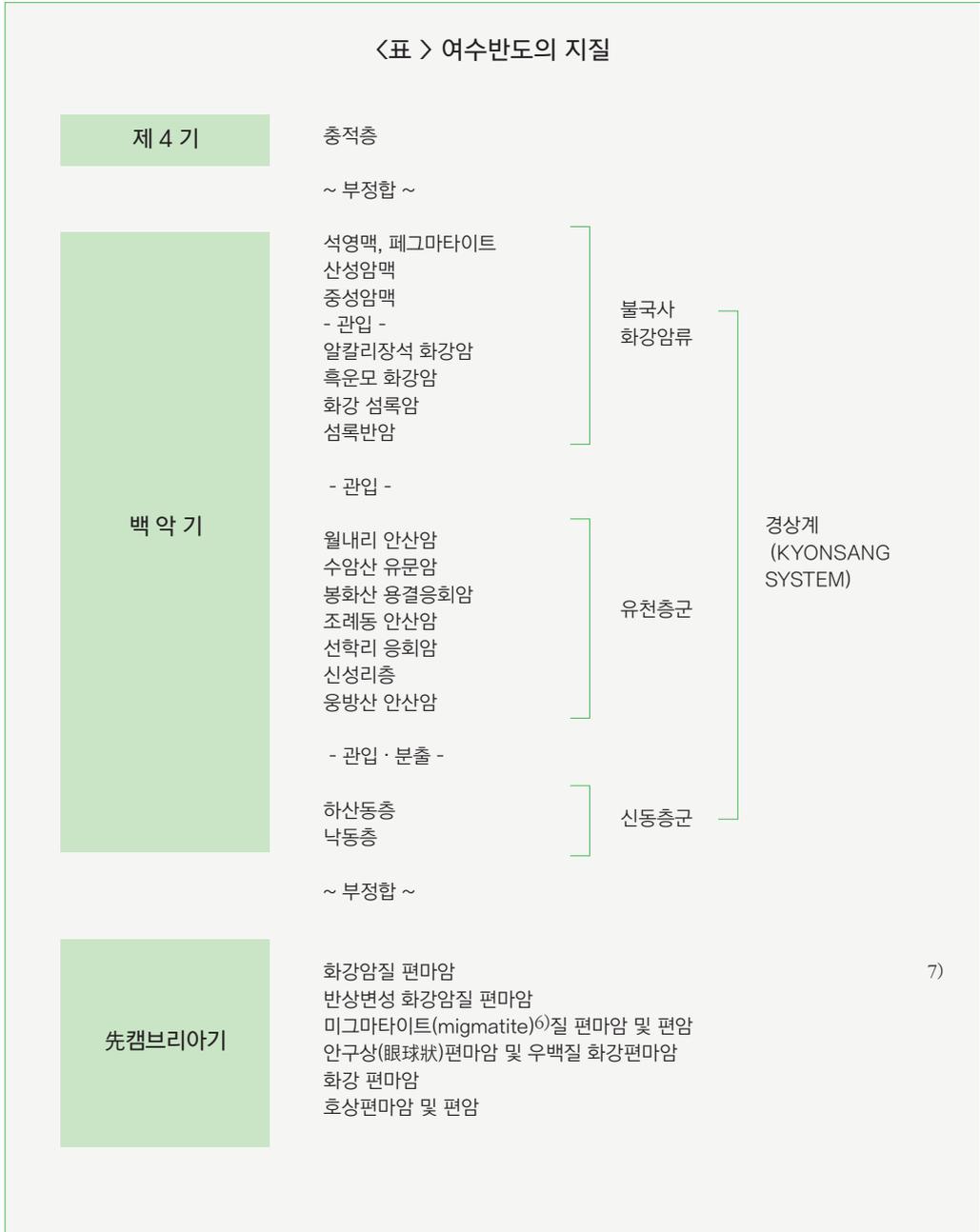


초도의 암석 분포

5) 자연지리학사전

2) 지질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때 형성된 경상계 유천층군인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kav)으로 이뤄졌고, 안목섬은 흑운모화강암(Kbgr)이 분포한다.



6) 퇴적암이나 변성암이 화성암과 섞여 이루어진 암석으로, 변성암에 화강암질의 마그마가 화합되거나 변성암의 일부가 녹아내렸다가 다시 굳어 만들어진 암석이다.

7) 장기홍(1977), 삼산면지(2000)에서 재인용함.

3) 토양

구릉지를 중심으로 유문암질 응회암 풍화토가 잔적 되어 비교적 얇은 토양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산록부와 곡저부는 사면에서 공급되는 풍화산물이 붕적층을 이루고 있다.

4) 기후

여수반도의 일원은 연중 쿠로시오 해류와 난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해양성기후형인 남해안형에 속하여 우리나라에서 기온이 가장 온화한 기후를 나타낸다. 여수의 연평균 기온은 13.9°C로써 편차는 0.5°C이다. 월평균 기온의 변화를 보면 최한월은 1월로써 1.6°C이며 2월도 2.8°C에 불과하다. 3월의 4.3°C 상승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월 3.2~5.6°C 상승하여 8월에 25.9°C의 최고기온을 기록한다. 반면에 9월의 3.8°C 하강을 시작으로 매월 5.2~6.4°C 하강하여 12월에는 4.4°C에 이른다. 동계에 월평균 기온의 편차가 높아 1월은 1.7°C, 2월에는 1.5°C를 보인다.

5) 주변해역조류

여수 인근 지역의 평균 해수면은 약 1.87m이고, 2015년도 연평균 고조위는 3.94m, 저조위는 -0.22m이다. 그리고 연평균 해수온도는 18.8°C, 최저온도는 8.3°C, 최고온도는 27.7°C로 해수온도 변동 폭은 약 19.4°C이다. 연평균 염분농도는 29.2PSU, 연간 염분농도 변화는 27.7~30.4PSU이다.

6) 주변환경

초도의 해안선 길이는 22.6km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고구마·마늘·보리·콩·배추·무 등이 소량 생산되어 자급자족할 정도이며, 각 가정에서는 돼지·염소·소·닭 등의 가축 사육도 행해진다. 연근해에서는 문어·낙지·삼치·새우·멸치·조기·갈치·취치·도미 등이 잡히며, 김·미역·톳 등의 양식도 활발하다. 마을은 주로 산 기저부의 평지와 만 안에 집중하여 분포한다. 전력은 공급되나 상수도는 공급되지 않아 주민 대다수가 식수로 간이 상수도와 우물을 이용하고 있다.⁸⁾

8) 디지털여수문화대전(yeosu.grandculture.net)

7) 주변도서

부속도서로 상섬, 용섬, 마섬(말섬), 중결도, 안목섬, 박목섬, 납대기, 둥굴섬, 구무섬, 진대섬, 술대섬, 건넛섬, 취섬, 솔거섬 등이 있다. 북동쪽으로 손죽도와 마주 보고 있으며 남서쪽으로 완도군의 원도, 장도를 바라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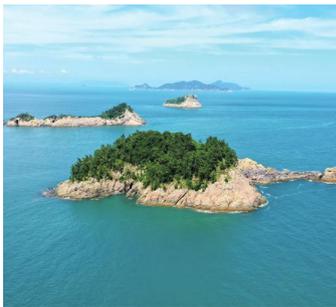
왼쪽부터 둥굴섬, 진대섬, 구무섬



술대섬



안목섬



취섬



중결도



용섬, 마섬(말섬)

다. 식생과 생태

초도에 출현하는 관속식물은 45과 68속 86종, 2변종으로 총 88분류군이 출현하고 있다. 이 지역의 특징종은 상록수종으로 곶솔, 리기다소나무, 참식나무, 구실잣밤나무, 붉가시나무, 생달나무,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마삭줄, 까마귀쪽나무, 광나무 등, 초본류는 산쪽풀, 바위채송화, 영정귀, 참취, 삽주, 밥풀고사리, 보춘화, 큰까치수영, 며느리밥풀, 골등골나물, 십자고사리, 자란, 참나리 등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외 민가 주변으로 쇠뜨기, 새, 솔새, 쥐꼬리새풀, 질경이, 환삼덩굴, 바랭이, 잔디, 토끼풀, 파리풀, 망초, 개망초, 꽃향유, 맥문동, 자귀풀, 땃덩이덩굴, 고마니, 가막사리, 여뀌, 주름조개풀, 띠, 억새, 짚신나물 등의 초본류가 출현하고 있다. 해안에는 갯무, 갯완두, 갯강활, 갯쑥부쟁이, 갈대 등 염생식물도 출현하였다.⁹⁾

1) 초도의 생태자원

대동마을에서 의성으로 넘어가는 도로변 아래쪽에 하얗게 지천으로 핀 장딸기를 볼 수 있다. 장딸기는 가을이 되면 빨갭게 익는다.

섬에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들은 반듯한 도로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밭이랑이나 산 경계를 따라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런 통행로 주변은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큰 나무들이 제거되어 있다. 그 아래 잔잔한 잡목들이 자리를 잡는데 특히 장딸나무가 가장 많은 개체 수를 드러낸다. 온 도로가 장딸기의 하얀 꽃으로 화사한 봄을 맘껏 자랑하고 있다. 장딸기는 꽃이 함박꽃같이 하얗게 활짝 피어서 이 지역에서는 함박딸기라고 부르지만, 인근 섬들에서는 딸기가 맛있고 탐스러워서 이모가 예쁜 조카한테만 따준다고 해서 ‘이모딸기’라고도 한다.

초도의 넓은 길, 좁은 길, 어느 길을 지나가도 4월 초에는 하얀 장딸기의 꽃을 원 없이 볼 수 있다. 화사한 장딸기의 꽃을 보면서 5월의 튼실하고 빨간 딸기를 수확할 꿈에 젖어본다. 이장님의 다소 들뜬 안내에서도 올해 장딸기의 작황을 짐작할 수 있다.

“올해는 유난히 장딸기꽃이 일찍 피면서 많이 피었어요. 가뭄 때문인가도 싶는데 장딸기 장사를 해볼까 하니 장딸기 수확기에 다시 한 번 날을 잡아보세요”

조금 담이 높은 곳이나 도로 법면, 산기슭에는 상동나무가 연초록의 팔알만 한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다. 아직은 잎이 연초록으로 여리기만 한데 그 여린 잎 아래에 열매가 주렁주렁

9) About전남의 섬(<https://islands.jeonnam.go.kr>)



상동나무



장딸기



뽕나무

매달려 나무가 훑 정도이다. 일명 ‘조선 블루베리’라고 부르는데 마을주민들은 ‘정금’이라고 부른다. 이 열매를 따서 담금주를 만들고 진액을 만들어서 차로도 마셨다. 정금을 따러 갈 때는 보통 마을주민이 주전자를 들고 따러 가는데 한나절도 안 되어 한 주전자씩 따가지고 온다고 한다. 크기가 6~8mm 남짓 되는 열매를 큰 주전자로 한 주전자를 따려면 상당히 많은 시관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동마을 뱃머리 주변의 식생을 살펴보면 도로 범면(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흙을 쌓거나 깎아 내어 형성된 경사면)에 정금나무를 보면 연초록 열매 사이로 까만 팔알만 한 열매들이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금나무의 어린 열매 사이사이에 까맣게 농익은 열매가 군데군데 달려 있다. 열매를 따서 한 움큼 먹어보면 달콤하면서도 입안이 금세 시큼한 맛으로 가득해진다. 먹을 때는 시큼해도 먹고 나면 상쾌한 기분이 든다.

초도에는 여기저기 팽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커다란 분재처럼 생긴 보호수를 설명하는 표지판에는 수령이 200년에서 250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나무의 상태로 보아 눈대중으로 어림잡은 수령으로 보인다. 나무의 수령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젓가락 굵기 정도의 표본을 중심부까지 뚫어 나이테 수와 너비 등을 측정해야 한다. 나무에는 작은 구멍이 생길긴 하지만 금방 아물게 되어 큰 지장은 주지 않는다. 팽나무는 초봄이 되면 연초록 어린잎과 황록색 꽃이 같이 올라오면 가지선이 멋지게 돋보인다.

초도의 팽나무는 다른 지역에 비해 키가 작으면서도 수형은 옆으로 퍼지면서 정원수 등으로 쓰기에 안성맞춤인 수형으로 자랐다. 이 지역의 팽나무가 유독 키가 크지 않고 수형이 예쁘게 잡힌 것은 강한 해풍의 영향이 아닐까 싶다.



의성팽나무



산 오미자



보리밥열매

해풍에 강한 팽나무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크게 자라지는 못하고, 우선 바닥에 단단하게 자리를 잡느라 성장이 늦은 것이다. 속성으로 자라서 키만 큰 팽나무에 비해 수형도 예쁘고 잔가지도 튼실하게 모형이 잡힌 것이다. 그래도 이 시기에 들판이나 산속에 우뚝 솟아서 유독 눈에 띄는 나무는 모두 팽나무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팽나무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진막리 진입로 좌측에는 팽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인공으로 조성한 것처럼 숲을 이루고 있다. 주변에 큰 나무의 2~3세대 개체들일 것이다. 폐교 후에 펜션으로 이용되고 있는 진막초등학교와 숲 사이에 1970년대에는 수력발전소가 있었다. 해풍과 적절한 수분이 있어서 팽나무 숲이 조성되기에 적절한 기후조건이었다.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남해안 섬지역에서 민가 부근이나 산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나무가 송악이다. 민가의 담장이나 밭 담벼락을 튼튼히 받쳐주고 있어 강한 태풍에도 끄떡없이 담을 지탱하고 있다. 키가 큰 소나무에는 어김없이 송악이 감고 올라가서 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고사할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다. 송악의 열매(송악은 열매 속에 새순이 같이 난다)는 까맣게 주렁주렁 달렸는데 이 열매를 상품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강해수욕장 가는 길 양쪽으로는 빨갭게 익은 보리밥열매가 지천이다. 보리밥 종류는 일반적으로 ‘빨똥’, ‘빨뚝’으로 불리며 봄에 열매가 열리는 것과 가을에 열매가 열리는 것으로 구분한다. 보리수, 보리똥, 볼레나무(제주도방언의 영향으로 일부 몇 사람이 그렇게 부른다)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굳이 구분하자면 봄에 열매가 열리는 보리밥과 보리장이 있다. 여름에 열매가 익는 뜰보리수와 가을에 열매가 열리는 보리수가 있다. 봄에 열매가 열리는 보리밥과 보리장은 둘 다 사철푸른잎으로 덩굴성이다. 구분은 잎 뒷면의 색깔로 구분된다. 보리밥은 잎 뒷면이 은백색이고 보리장은 잎 뒷면이 적갈색이다. 잎의 형태도 둥글고 넓적한 광타원형(일반적

으로 난형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난형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광타원형이라고 하면 이해가 더 쉬울 듯하다)과 길고 홀쭉한 장타원형으로 구분된다.

기억하기 좋게 “쌀밥같이 하얀 보리밥나무”와 “간장같이 갈색인 긴(長)둥근 잎 녁쿨(녕쿨장)보리장”이라고 기억하면 그나마 구분이 좀 정리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더욱 정겨운 것은 어릴 적 최고의 균것질거리가 바로 이 보리밥열매인 뽕뽕이었다.

우리가 무심코 보고 지나쳤던 보리밥은 겨울에 해당하는 11월경부터 꽃을 피워서 이렇게 초봄에 열매가 익는 것이다. 한겨울의 모진 한파를 이기고 꽃을 피워낸 강인한 식물이다. 또한 녁쿨성으로 가지를 뺏지만 다른 식물에게 피해를 주면서 감고 타고 올라가는 침이나, 송악, 아래 등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보리밥은 홀로 깨끗하게 줄기를 뺏어나가서 빨간 열매를 잉태해 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많은 울림을 주는 나무이기도 하다.

산에서 반짝반짝 윤기를 내며 서 있는 나무는 동백나무다. 자연에서 자라는 동백은 꽃이 지고 나면 잎이 유난히 더 반짝거리 숲속 균락에서도 다른 나무들과 구별이 된다.

기후온난화로 가장 혜택을 본 나무는 섬지역에서 자라는 예덕나무가 아닐까 싶다. 여기저기 예덕나무가 우뚝우뚝 솟아 있다. 송악이 감고 올라가서 점점 도태되어가면서 자리를 뺏기고 있는 소나무가 선 자리를 예덕나무가 점점 점령해 가고 있다.

남해안 섬 지역의 특화 식물로 추천할만한 천선과(개젓꼭대기나무)도 점점 더 그 개체 수를 늘려가고 있다. 가을에 체리같이 탱글탱글 익은 천선과를 푹 따올 때 공기에서 하얗게 흐르는 유액 때문에 천선과를 개젓꼭대기나무라고 부르게 한다.

8월경에 옅은 분홍색 꽃을 뒤집어쓰고 있는 나무가 누리장나무이다. 일명 쓴나무이다. 그 냄새를 맡으면 어릴 적 옷장 속에 몰래 숨겨두고 동생들만 주던 원기소 냄새와 너무 흡사하다. 누리장나무의 냄새가 오줌 냄새와 비슷하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타박상을 입으면 어른들이 누리장나무 잎을 불에 구워 상처가 난 곳에 붙여주었다. 어떤 성분으로 인해 타박상에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에 따끈따끈하게 구워서 붙이면 약간 얼얼하면서도 시원해지면서 타박상이 나왔다.

도로 주변 햇볕이 드는 곳에는 머위(머꿍대)가 지천이다. 일손이 없어서 머위를 채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맛있는 머윗대 나물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대동에서 진막으로 차를 달려 가다 보면 길가에 붉나무 새순이 지천이다. 나이 많은 70대 노인이 새순을 따고 있는데 이를 유심히 보던 이장이 한마디 한다.

“그거 못 먹는 거요”

섬으로 이주해 온 지 얼마 안 되신다는 어르신은 길가에 지천으로 있을 튀은 붉나무 새순을 ‘두릅순’인 것으로 착각해서 열심히 따 담았던 것이다.

낮은 야산 여기저기 붉나무 새순이 쉽게 눈에 띈다. 붉나무는 봄에 나는 새순도 붉게 나오지만, 가을에 낙엽도 붉게 물든다 해서 붉나무라고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그 잎은 독성은 없지만, 약간의 털이 복실거리어서 나물이나 다른 음식으로 만들어 먹지 않는다. 별맛이 없어 주변의 다른 새순들을 나물로 먹거나 하는 것과는 달리 나물이나 약용으로는 쓰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옷나무와 붉나무를 구별하지 못해 알레르기를 일으키던 옷나무를 피해 다니듯이 붉나무도 피해 다닌다. 붉나무와 옷나무는 잎자루에 날개를 단 붉나무와 날개가 없는 옷나무로 확연히 구분 가능하다. 붉나무 잎은 여름의 푸른 잎을 제외하고 봄의 새순은 물론 나뭇가지도 붉은색으로 매끈하다. 옷나무는 은회색으로 약간의 털이 복실거리어서 웬지 털들이 날려 알레르기를 일으킬 것 같은 느낌부터가 다르다.

여름에 하얀 꽃이 모여 달리고 잎이 빨강게 물들어 갈 무렵 열매가 달린다. 그 열매를 자세히 보면 하얀 소금 같은 것이 묻어 나온다. 시간이 흐르면 약간 진득거리며 흘러내리는데 이것을 하나 따서 입에 넣으면 짹짹한 맛이 난다. 그 성분이 칼륨을 포함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산간 지역에서는 소금 대용으로 붉나무 열매를 이용했다고 한다.

산속의 동물들도 잔물을 마시기 위해 바닷가를 간다고 하는데 이 붉나무가 있는 산속의 동물들은 붉나무로 염분을 대신하기 때문에 바닷물을 마시지 않았다고도 한다. 사슴이나 양들의 멧진 뿔은 염분이 필요한데 이 붉나무 열매의 염분이 큰 역할을 한다고도 한다.

또한 붉나무 가지를 태우면 폭음이 나는데 이 소리에 잡귀들이 물러간다는 속설이 있어서 가지와 잎을 대문 앞에 걸어놓는 풍습이 있었다. 일본의 불가에서는 이 붉나무를 귀하게 여겨 “번뇌를 불살라 버리는 효험이 있다.”고 믿어 스님들의 지팡이로 사용했다고 한다.

우묵사스레피는 남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나무이다. 사스레피나무가 전국에 퍼져 산재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불을 땔 때 총알소리 같이 투다닥 소리가 난다고 해서 ‘총알나무’라고도 했다. 이 지역에서는 ‘귀뚝새나무’라고도 하는데 귀뚝새는 이 지역에서는 굴뚝새를 말한다. 우묵사스레피를 왜 굴뚝새나무라고 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사스레피 중에서 난대 식물인 우묵사스레피의 개체수가 사스레피 개체 수보다 약간 많다. 사스레피와 우묵사스레피가 공존하는 기후대이다. 바닷가 우묵사스레피는 바람따지에서 자라며 바람을 따라 나무가 휘어지면서 휘몰이 형상을 하고 있다. 바람을 직접 받은 앞쪽에는 잎이 떨어지고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보이는데 바람의 방향을 따라 가지들이 한쪽으로 몰렸다.

흡사 남자들의 헤어스타일 중에 머리를 한쪽으로 빗어 넘겨서 가르마를 타 놓은 모양이다. 안내하는 김진수 이장¹⁰⁾의 말이다.

“우리는 이 나무를 하리갈래(남해안 지방에서 남자들의 가르마 머리를 이렇게 부른다. 일본어식 표현이다.)나무라고 해”

염소가 있는 산은 웬만한 나무들이 남아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짐승들은 먹지 않는 사스레피 나무까지도 염소는 먹는다. 염소를 방목해서 키우는데 염소 여러 마리를 멧돼지가 잡아먹어 버려서 이제는 염소를 키우지 않는다고 한다.

마을의 화단에는 금잔화, 금계국, 광대나물, 망초, 조릿대(왕대는 보이지 않고 조릿대가 울타리를 이루고 있다) 괴불주머니가 노랑주머니를 뿜내고 있다. 간간이 큰 교목 중 “구실жат밤나무”가 있다.

2) 초도의 식물 및 식생

대체로 삼산면이 남면보다 더 남쪽에 있어서 산림대가 난대림에 더 가까울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남면 지역보다 온대림에 가까운 산림이다. 남면 지역에 주종을 이루는 후박나무 개체수가 의외로 적으며 온통 동백 군락이다. 까마귀쪽나무도 거문도에는 개체수가 상당하지만, 초도에는 간간이 보일 뿐이다. 상대적으로 팽나무가 많으며 꽃이 지고 있는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산벚나무나 산목련의 개체수는 적다.

한글명 팽나무는 한자 팽목(膨木), 박수(朴樹) 등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달주나무라고도 하며, 한자로 청단(靑檀)이라고도 한다. 팽나무는 영육의 생명 부양 나무로 다산과 풍요 그리고 안녕을 보살피는 민속적 관계로부터 설명할 수 있다.

한자명 포슈(朴樹, 박수)는 샤먼(무당)의 나무(木) 또는 신령스런 나무라는 의미다. 박수무당이라는 것도 팽나무로 대표되는 마을 당산나무 아래에서 굿을 하는 남자 무당을 말한다. 이처럼 팽나무는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신목(神木)으로 인식되었던 민족 식물이다.

팽나무는 느티나무처럼 1,000여 년 살지는 않지만, 500여 년을 예사로 사는 장수 종이다. 오랜 세월 동안 한 장소에서 많은 생물을 부양하는 썸이다. 팽나무처럼 장수하는 종은 매우 천천히 성장하기 때문에 노거수(老巨樹) 수형(樹型)이나 건강 상태로부터 지역의 자연사를 가늠해 볼 수 있다.

10) 김진수: 1959년생 삼산면 초도 출신이다. 타지에서 직장생활하다 여수에 정착했다. 뜻하는 바가 있어서 초도에 와서 마을을 지키며 대동리 이장을 맡고 있다. 2018년 첫시집 “좌광우도”를 출간하였다.

의성리에는 다섯 그루의 큰 팽나무가 있다. 그중 가장 오래되고 흠도 없는 바닷가 벼랑 위에 분재처럼 서 있어 담으로 둘러싸서 보호해 놓은 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옛 어른들이 이야기 할 때도 500년이 넘었다고 말씀하셔서 정확한 나이는 가늠할 수 없다. 마을에서는 이 나무에 매년 정월 초이튿날에 가장 깨끗한 사람을 제주로 하여 제사를 지냈다. 온갖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하여 풍어와 풍년과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출항하는 배들의 풍어와 무사귀환을 비는 ‘매산제’라는 고사를 지냈다. 이 나무는 은혜 깊은 팽나무 전설이 전해진다.

다만 가까운 거문도는 까마귀쪽나무의 개체수가 상당히 많지만, 초도의 경우는 또 다르다.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송악은 남해안의 여러 섬지역에서 보이는 형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산오미자가 많은데 산오미자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만 열린다. 오미자의 성분은 리그닌¹¹⁾화합물로서 오미자의 과육 및 씨 그리고 줄기에도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오미자에는 당과, 색소 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다. 그 외 다양한 유기산과 비타민 C 및 E와 구리, 망간, 니켈, 아연 등도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신농본초경에 상품으로 기재되어 있는 약물로서 호흡기에 작용하여 기침이나 천식을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간 보호 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관련 보고서들이 많이 작성되어 있다. B형 간염 억제 효과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호흡기 치료와 관련해 실제 연구사례는 거의 없는 편이다.

논골 부근에는 동백나무군락이 있다. 김진수 이장이 중학교 때 동백나무숲이 우거진 자리에 풍란이 명석처럼 깔려 있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이 풍란을 지게로 따다 선생님에게 주면(좀 많이 과장된 표현인 듯하다) 숙제를 면제받았다고 한다.

마을 길이나 도로를 따라온 솜을 뒤덮고 있는 것이 하얀장딸기이다. 예년에 비해서 꽃이 엄청 흐드러지게 피고 일찍 피었다고 한다. 의성 목너머에 황씨네 선산 자리에는 빨기가 많다고 한다. 상술바위 가장 위에는 원래 천년 묵은 소나무가 있어 운치를 더했는데 몇 해 전 태풍이 좌우에서 같이 치면서 소나무가 없어졌다고 한다.

초도의 야산에는 닥나무도 많다. 닥나무 줄기 바깥쪽의 나무껍질과 안쪽의 딱딱한 목질부 사이에서 추출한 인피섬유를 이용하여 만든 종이가 바로 ‘한지’이다. 닥나무로 제조된 전통 한지는 중성지로서 보존력이 매우 뛰어나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나라의 기록 유산에서 오랫동안 사용됐다.

11) 리그닌(영어: lignin)은 침엽수나 활엽수 등의 목질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성분 중에서 지용성 페놀고분자를 의미한다. 라틴어인 “lignum(목재 또는 나무)”이라는 용어에서 유래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한지의 보존성을 인정받아 9세기 코란 복원에도 사용되는 등 세계 문화재 복원 시장에서 중요한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한지의 원료가 되는 닥나무에는 다소 복잡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최근 유전자분석 연구를 통해 닥나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부모나무에서 유래된 교잡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¹²⁾

초도에 자생하는 나무는 정확히 닥나무인지, 꾸지닥나무인지, 애기닥나무인지, 꾸지나무인지 동정은 어렵다. 다만 위의 모든 나무를 일반적으로 닥나무로 부르기 때문에 닥나무로 지칭한다. 닥나무는 나무의 줄기를 꺾으면 ‘딱’ 소리가 난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한다.

초도에서는 닥나무를 꼬닥(眼木)이라고 하였는데 꼬닥나무에 대한 특별한 사연이 전해진다. 대동리 바깥선창으로 가는 길옆에 “진주 강공 동규 기적비”가 있다. 1964년 7월 대동리 청년회에서 이 비를 건립하였다. 2002년 대동항 물양장공사로 옮겨 세웠다가 “사은경모비”를 건립하면서 이 비를 땅에 묻고 제자들이 새로 제작한 비를 나란히 세웠다.

대동공민학교가 폐교의 위기에 처하면서 학교를 다시 살리자는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후원회가 생겼지만 목적을 이루기도 전에 뜻을 같이한 분들의 사망과 국토건설단원 입대 등으로 갈수록 사람이 줄고 비용을 충당할 방법이 없었다.

이때 김상석 씨가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이 꼬닥을 채취해 갔던 것을 기억하고 그 용도를 탐문하던 중 이지역 꼬닥이 고급 창호지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62년 7월부터 전교생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수업을 폐지하고 꼬닥을 채취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편성하고 꼬닥 채취에 돌입하였다. 이때까지 잡목으로 취급되어 별 쓸모없이 매년 썰감으로 잘려나간 꼬닥은 밑동만 굵고 윗가지는 자잘했다. 고급 창호지를 만들 재료로 돈이 되려면 튼실한 밑동을 파야만 했다.

땅속 깊숙이 박힌 밑동을 초등학교생들이 파는 건 쉽지 않았다. 선생들이 앞장서서 손이 부르르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꼬닥을 채취했다. 8월에는 방학 기간으로 꼬닥 채취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성, 진막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았다. 채취한 꼬닥을 가정에서 껍질을 벗기고 건조하도록 하였다. 채취 독려를 위해 개인별 채취량에 따라 상을 주기도 하였다. 9월에는 체계적으로 대동리에서 의성으로 이동하면서 채취를 시작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산에 올라 한참 채취하는데 산주인이 산판을 망친다고 고함을 치면서 쫓아왔다. 알고 보니 정창무 쪽 산은 단축끝과 맬처무는 대부분 금산홍업 김승복 사장의 임야였다.

12) 이코리아(<https://www.ekoreanews.co.kr>)

연세가 일흔이 넘은 김사연¹³⁾어르신이 산중턱까지 쫓아온 것이다. 선생님이 납작 엎드려 사과하면서 그 사연을 말하니 “소나무 뿌리 등은 다치지 않게 하라”면서 오히려 위로하면서 다른 산에도 열심히 뒤져 채취하라고 격려하면서 갔다는 일화가 있다.

이렇게 채취한 꼬다을 한성특수제지공업사에 팔아서 42,700원을 받아 초도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기초 자금으로 마련하였다. 이 일화가 의성리와 진막리 등에 알려지면서 마을 유지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고 초도주민들이 하나로 단결하도록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3) 육상동물

초도에 서식할 수 있는 동물은 직박구리, 동박새, 휘파람새, 바다직박구리, 섬개개비, 갈새, 갯이갈매기, 황로, 알락할미새, 가마우지, 매 등이다. 남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띠제비나비, 배추흰나비, 남방부전나비, 네발나비 등이 서식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⁴⁾



초도의 생태자연도

13) 민선 3기(2002년), 민선 5기(2010년) 김충석 여수시장의 조부

14) About전남의 섬



해양생물

4) 해양생물

조건대 암반조사 결과 저서무척추동물 및 기타¹⁵⁾ 해양생물에서 총 72종이 출현하였으며 해면동물 3종, 자포동물 6종, 태형동물 7종, 완족동물 1종, 성구동물 1종, 연체동물 25종, 환형동물 1종, 절지동물 22종, 극피동물 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현생물들로는 검은큰따개비, 굵은줄격판담치, 거북손, 바위게, 군부, 주황해면해면, 태생굴, 홍합, 치상이끼벌레, 마디이끼벌레, 방석고둥류, 물레고둥류, 배고둥류, 부채게류, 꼬덕새우, 갈색접시조개, 은백색접시조개, 뱀거미불가사리, 짧은거미불가사리 등이 출현하였다. 해조류는 총 55종이 출현하였으며 녹조류 5종, 갈조류 20종, 홍조류 30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5) 보호수

초도에는 4개의 보호수가 있는데 그중 3개는 1982년 12월 3일 전라남도에서 지정하였고 1개는 조금 늦은 2012년 5월 30일 전라남도에서 지정하였다.

먼저 대동마을 보호수는 삼산면 초도리 산 405번지에 있는 팽나무로 지정번호는 15-2-7-2이다. 지정 당시 수령은 300년 정도이고, 수고는 1,700cm, 직경은 83cm이며, 둘레는 160cm이다. 당산나무로 하늘에는 동민의 만복을 빌고 아래 땅에는 고기잡이 떠나는 배들이 무사히 풍어기를 날리고 돌아올 것을 기원하는 당제를 올렸다.

다음으로 진막마을 보호수는 삼산면 초도리 산 2217번지에 있는 팽나무로 지정번호는 15-2-7-3이다. 지정 당시의 수령은 250년, 높이는 1,400cm였고, 직경은 51cm, 둘레는 160cm였다. 대동마을과 마찬가지로 설이나 명절 때면 나무에다 새끼로 둘레를 묶어 놓고 새끼에는 종이를 달고 제물을 차려놓았다.

의성마을 보호수는 삼산면 초도리 산 1359-2번지 초도우체국 앞에 있으며, 수종은 팽나무이다. 지정번호는 15-2-7-4이고, 지정 당시 수령은 250년, 높이는 1,600cm였고, 직경은 76cm, 둘레는 240cm였다.

15) 2002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전라남도 여수Ⅱ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2003)



대동마을 보호수



대동마을 보호수(2008)



진막보호수



진막 보호수 표지판



의성 보호수



의성 보호수 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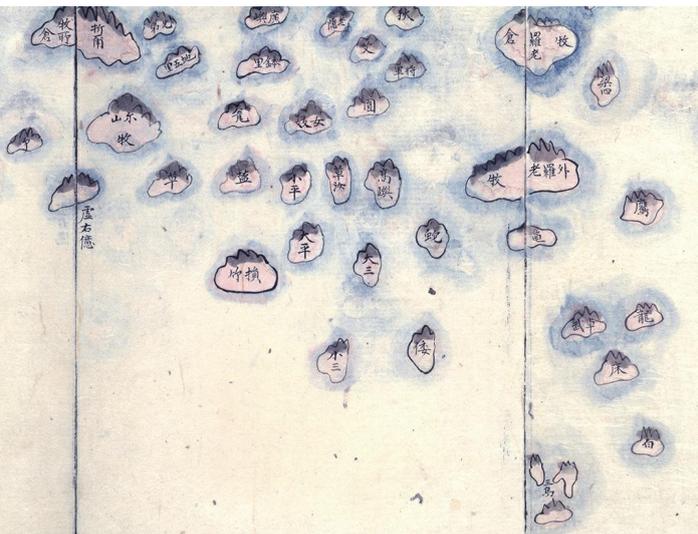
의성마을에는 보호수가 하나 더 있는데 삼산면 초도리 산 1325번지에 있으며, 수종은 팽나무이고 지정번호는 15-2-7이다. 지정 당시 수령은 500년으로 4개의 보호수 중에서 가장 길었고, 높이는 1,000cm, 직경은 80cm, 둘레는 250cm였다. 이 보호수는 마을에서 '은혜 깊은 나무' 전설이 내려오고 있고 나무 앞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며, 나무의 수형이 아름다운 분재형을 이루고 있다.

2. 역사와 문화

가. 연혁

초도는 홍양현(고흥군)에 속했던 섬이었다. 1895년 돌산군 삼산면에 편입되면서 상도라 하였다. 1914년 여수군에 편입되었으며, 여수군이 여수시로 승격되면서 여천군으로 이관되었다. 1965년 여천군 초도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98년 3여통합으로 여수시 삼산면에 속하게 되었다.

풀이 많은 섬이라 하여 초도라 불렀다고 전한다. 한때는 ‘쌔섬’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쌔’란 역사와 같이 풀을 이르는 순우리말이다. ‘쌔’를 ‘새’로 잘못 인식하여 이를 한자화하면서 한때 ‘새 조(鳥)자’를 써서 조도라고 한 기록도 보인다.



청구도



일제강점기 지도

나. 마을유래

1) 대동(大同)리

대동리는 임진왜란 전에 염씨 형제가 입도하여 살다가 이어서 방씨, 장씨 등이 들어와 살았다고 전한다. 이후 정씨, 김씨 등이 들어와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전한다. 처음 들어왔다고 하는 염씨는 남아있지 않다. 왜구가 자주 침입해 오자 주민들이 모두 피신하여 100여 년간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한다.

초도에 있는 마을로 읍구미리(邑九味里), 읍동(邑洞), 읍포(邑浦), 큰동네(大洞) 등으로도 불렸으며 초도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삼산면의 최고봉인 상산봉(339m)을 중심으로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지대가 완만하고 토질이 비옥하다. 1789년 『호구총수』 기록에 대동리는 읍구미리(邑九味里)로 표기되어 있으며, 1887년 『거문도진지』에는 대풍동(大豐洞), 1896년 돌산군 삼산면 시절에 ‘구미리(九味里)’, 『여산지』에서는 읍동이라 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큰 마을’이라고 불리던 것을 한자말로 바꿔서 ‘대동리’라 하였다.

대동리는 큰마을 대동, 사슴의 목을 닮아서 사슴목(녹항, 鹿項), 섬의 앞이나 입구라는 뜻의 이미 또는 예미(曳尾)라 부르는 3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녹항마을은 주민들이 인근 대동마을이나 육지로 떠나고 몇 가구 남아있지 않다. 한때 상섬이 대동리에 속해 있었으나 지금은 무인도가 되었다.



대동마을 (2008)



녹항마을 (2008)



의성마을(2008)



경춘(고래짜지) (2008)

2) 의성(義成)리

의성리 역시 염씨 일가가 최초로 입도하여 정착했다고 전한다. 대동마을과 마찬가지로 왜구의 노략질이 심해지자 피난을 가 돌아오지 않아서 염씨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고 전한다. 이후 추씨, 방씨 등이 섬에 들어와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1789년 『호구총수』에는 송강구미(松江九味), 1916년 『조선지지』자료에는 한자 ‘이성리(利成里)’에 ‘이성금이’란 한글 설명이 있다. 마을 공동묘지 부근의 솜널이 바위 부근에서 철이 많이 나와서 ‘이성금(利成金)’이라 하였다고 전해져 온다. ‘이성금’의 유래는 조선시대 왜인들이 와서 살았던 섬의 해안이란 의미로 ‘이섬기미’라 부르면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설득력이 있다. 일제강점기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에 현재의 ‘의성리’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의성리는 우대미(윗마을), 알대미(아랫마을), 새물(동남쪽 양지바른 곳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부르는 의성과 의성마을 남서쪽에 고래짜지라고 부르는 경춘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진막(陣幕)리

진막리 역시도 대동과 의성리와 마찬가지로 옆씨가 최초로 입도하였다고 전한다.

이후 박씨, 김씨, 강씨, 황씨 등이 차례로 들어와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호구총수』에는 마을이 나타나지 않는다. 1899년 『여산지』에 마을 이름이 나타난다. 마을 이름 유래에 임진왜란 때 수군이 진을 쳐서 ‘진막’이라 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진막이라는 한자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마을로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초도의 다른 마을과 함께 홍양에서 삼산면에 편입되었다.

진막리는 진막마을과 정강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정강마을은 한때 사람이 살지 않았으나 은퇴하고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4~5가구 정도가 살고 있다.



진막마을(2008)



정강마을(2008)

다. 고고·역사유적과 유물

1) 초도망대(草島望臺)

초도망대는 삼산면 초도리 산 2932-1번지 일원의 해발 338.7m, 북위 34° 13' 43.96" 동경 127° 14' 42.29" 상산봉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 망금산을 대하고 있으며, 산 아래로 진막마을과 북쪽으로 대성마을, 서쪽으로 의성마을이 있다. 주변에 위치한 섬으로는 동쪽으로 손죽도, 남쪽으로 거문도가 있고, 서쪽으로 완도 청산도, 북쪽으로 완도 평일도와 거금도가 있으며, 북서쪽으로 고흥 나로도를 대하고 있다. 산정에서는 멀리 북쪽의 고흥군 나로도의 봉래산봉수, 완도군 거금도의 적대봉봉수, 평일도 망산망대와 연결가능한 위치로, 주변의 넓은 바다와 섬들을 사방으로 조망이 가능하다.

초도는 조선시대부터 행정적으로 흥양현에, 군사적으로 발포진의 통제를 받고 있었으므로 발포진의 해상 정보를 얻기 위한 전방 관측소 역할의 요망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상산봉요망도 조망과 신호를 담당하는 망대로 활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봉수와 관련이 있는 지명으로는 진막의 뒷산 지명이 '망금산'이며, 진막마을은 임진왜란 때 수군이 진을 쳐서 '진막'이라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대동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1.0km 지점에 정창(正倉: 일명 병첩)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에는 군사상의 병참 구실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망대의 위치로 추정되는 상산봉 정상은 수직의 바위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다. 정상부에는 바위로 삼각점 표적이 매설되어 있고, 옆으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동쪽으로 바위로 둘러싸인 지름 약 5.0m의 평탄지가 있으며, 주거지로 추정된다.

주변 대응 가능한 봉수, 요망, 망대 등의 직선거리는 손죽도요망 12km, 고흥 봉래산봉수 33.3km, 완도 적대산봉수 27km, 거문도 망향산요망 21.8km, 완도 평일도 망산망대 22km이다.

요망은 대동마을과 의성마을을 잇는 도로 중간 지점인 바람재에서 산림도로를 따라 수진전파탑이 있는 방향으로 오르면 된다. 산정으로 오르는 길은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상산봉 표지석



상산봉 산정부

2) 기념비

(1) 이기수 효자비

의성리 아랫마을에서 윗마을로 올라가다 보면 왼편에 이기수 효자 정려비각이 있다. 이기수의 자는 도여(道汝), 본관은 전주이며, 삼산면 초도 의성리에서 아버지 이병의, 어머니 해남윤씨의 4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고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재능이 뛰어났고 두뇌가 명석하였으며, 선량한 성품으로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성실히 받들어 한학에 능하였다. 부모님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남을 돕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장섰다. 비록 농어업을 겸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였지만, 부모님의 교훈을 착실히 이어받아 가정에서의 윗사람 봉양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무엇인가 기여하겠다는 일념에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마을의 선착장 시설공사에 물심양면으로 심혈을 쏟아 주민 생활에 이바지하였다. 따라서 그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게 되어 지역사회 지도자로 부각 되었다.

널리 알려진 효자로서 언제나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며 부모님에게 효도가 극진하고 형제와 벗과 늘 화친하였다. 그의 두드러진 효행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정성을 다하여 조석으로 생선과 반주는 물론 다른 솔에 밥을 지어 부모님을 봉양하였다. 부모님의 임종 시에는 그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치료하였으나 보람없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니 옆드려 통곡하였다. 그의 슬하에는 5남 1녀의 자녀를 두었으며 넉넉지 못한 가정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자녀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가정교육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오직 효도는 부모가 근심하지 않고 즐겁게 사는 것이 최상의 효'라는 교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 비명 : 참봉전주이공기수효자비
(參奉全州李公起守孝子碑)
- 위치 : 삼산면 초도리 산 2519-1
- 건립연대 : 1991년 12월



이기수 효자비



이기수 효자비

(2) 강동규 기적비와 사은경모비

초도고등공민학교 명예후원회장과 초도초등학교 후원회장을 겸임하면서 초도의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강동규 회장이 1964년 급서하자 대동리 바깥 선창으로 가는 길옆에 공적비를 세웠다. 강동규 기적비는 대동향 물양장 공사로 옮겨 세웠다가 2002년 사은경모비(師恩敬慕碑)를 건립하면서 기존의 비는 땅에 묻고, 새로 제작하여 사은경모비와 함께 다시 세웠다.



강동규 기적비와 사은경모비

사은경모비는 초도에서 태어났으나 가난하여 중학교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중등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불을 지핀 안규중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은사님들의 후배 사랑, 향학 정신을 드높이 흠모하기 위해 초도고등공민학교 동문들이 건립하였다.

- **비명** : 진주강공동규기적비
(晉州姜公東圭紀蹟碑)
- **위치** : 삼산면 초도리 산 135
- **건립연대** : 1964년 12월

• **비문** : 실로 사람의 선행과 공로를 표창 기록함은 도의상 당연한 일이라 공은 천성이 온순하고 도의심이 강하여 부모님께 효도하였고 친구 간에 신의가 두터워 친함과 사랑이 넘쳤으며 특히 지조가 강하여 공적으로 매사에 관철 정신으로 임하였고 지방의 발전과 개발에 활동의 일생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딱한 일까지도 희생적 정신으로 온갖 노력을 다해 돌봐주시다가 불행히 42세의 짧은 일기로 세상을 뜨니 이 어찌 만인의 비운이 아니뇨! 우리 동지는 이 안타까움 이 애석함 당할 길 없어 이 작은 돌에 영원히 사표가 될 공의 행적을 약기하여 후인에게 전하노라!

서기 1964년 7월 14일
건립자 대표 이점수 김상석

(3) 김용추 기적비

김용추는 족보를 편성하고 선영의 제사를 잘 모셨으며, 집안 간에 화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으며 항상 조신하고 정직하였다. 인정이 많고 인품이 좋았으며 부모 생전에 효를 다한 김용추를 기념하기 위해 김해김씨 문중에서 비를 세웠다.

- **비명** : 김해김공용추기적비
(金海金公容秋紀蹟碑)
- **위치** : 삼산면 초도리 의성마을
- **건립연대** : 1965년 3월



김용추 기념비

- **해설비** : 사람들은 한가지 선행만 있어도 비석에 적어 후세에 전하는데 하물며 여러 가지로 잘한 사람은 말할 것이 무엇이라? 여기 김해 김용추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공의 이름은 성추, 자는 사연이니 문민공 일손의 후손이오, 선비 영두(석순)씨의 아들이다. 단기 4223(1893)년에 나서 천성이 순박하고 인정이 많고 인품도 좋아서 부모 생전에 몸과 마음을 다해 받들었다. 아버지가 수년을 병환으로 계실 때 온갖 정성을 다했고, 세상을 떠나자 영 위 앞에서 3년을 모셨다. 어머니가 97세가 될 때까지 어린아이 돌보듯이 정성을 다했고, 돌아가신 후 아버지 살아계실 때와 같이하셨다. 가문의 후세를 위해 족보를 편성하고 선영의 제사도 잘 모셨다. 집안 간에 화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으며 항상 조신하고 정직하셨다. 자손의 교육에 힘쓰셨고 멀고 가깝고 친하고 친하지 않는 것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 삼 형제가 있어 장자는 승복, 둘째는 승태, 막내는 승보 일명 상신이라 육군 대령이다. 장자에게서 충석, 충남, 둘째에서 충갑, 충식, 충호, 충실, 충재, 여자 미영, 막내에서 정국, 정훈, 숙희, 시자, 유미, 정미가 태어났다. 장하다! 이제 천지가 변해 부모와 근본을 모른 자가 심히 많거늘, 오직 이분의 뛰어난 행적은 온동리 사람들의 모범이 될만하다. 그 대강을 추려서 여기에 쓴다.

단기 4298(1965)년 3월 만들어 5월에 세운다.
여수향교 전교 정기로 짓고 쓰다

(4) 김상원 교육기념비

초도에 서당을 만들어 후학양성에 전력을 다한 김상원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초도초등학교 옆 사장터에 교육비를 세웠다.

- **비명** : 학천김선생교육기념비(學川金先生教育紀念碑)
- **위치** : 삼산면 초도리 산 567

(5) 이병우 기공불망비

이병우의 공이 커서 다 기록하기 어렵고, 충성하는 마음이 깊어, 다른 이에 비할 수 없어 영세토록 기억하기 위해 비를 세웠다.

- 비명 : 이참봉병우기공불망비
(李參奉炳雨紀功不忘碑)
- 위치 : 삼산면 초도리 산 567

(6) 박정남 공적비

진막리 수력발전소 건설과 상수도 시설 건설을 비롯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박정남의 공적을 알리기 위해 1991년 12월 건립하였다.

- 비명 : 송당박정남선생공적비
(松堂朴正南先生功績碑)
- 위치 : 삼산면 초도리 산 2519-1
- 건립연대 : 1991년 12월



박정남 공적비

• 비문 : 선생님께서는 우리 역사의 수난기였던 일제 치하에서 태어나 주권과 인생을 빼앗긴 아픔을 뼈끝에 새기시며 아름다운 다도해의 남녘 고향 초도항으로 돌아와. 오직 나라와 향리를 위해 소중한 청춘과 인생을 던지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삼산면 의원으로 활약하시면서 마을 환경개선, 구판장설치, 마을회관 건립, 상수도 시설, 수력발전소 건설, 장학 재단을 설립하시는 등 아끼고 사랑하는 고향에 밝고 기름진 삶의 터전을 일구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로지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살신성인의 거룩한 희생과 곳곳한 집념으로 끝없이 외로운 섬 초도 땅에 풍요롭고 살찐 낙도문화의 혁명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에 초도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여기에 작은 비를 세워 선생의 거룩한 애향 열과 값진 생애 후손만대에 기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1991년 12월 28일 글 황하택

• 현시 : 선생님의 일생은 오로지 빛이었습니다. 척박한 바람 부는 섬 땅에 오직 땀과 희생으로 뿌리신 어른, 선생님의 일생은 순금의 꽃이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지피신 초도 사랑 그것은 차라리 찬란한 신화의 강물이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고향을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과 성취, 번영과 행복 죽지 않는 삶을 심어준 어른, 선생님의 일생은 눈부신 빛이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남기신 발자취는 여기 이 우리들의 섬 땅에 오래오래 숨 쉬고 있을 것입니다.

시 박보운 글씨 최인수

(7) 황남춘 공적비

초도소학교 건립을 추진했던 대표자 중의 한 명이고, 대동어업조합과 의진어업조합을 합쳐 초도어업조합 이사와 초도어업조합장과 삼산면의회 초대 부의장을 역임하면서 초도 발전에 공로를 기려 주민들이 뜻을 모아 1996년 의성리 선착장 입구에 공적비를 세웠다.



황남춘 공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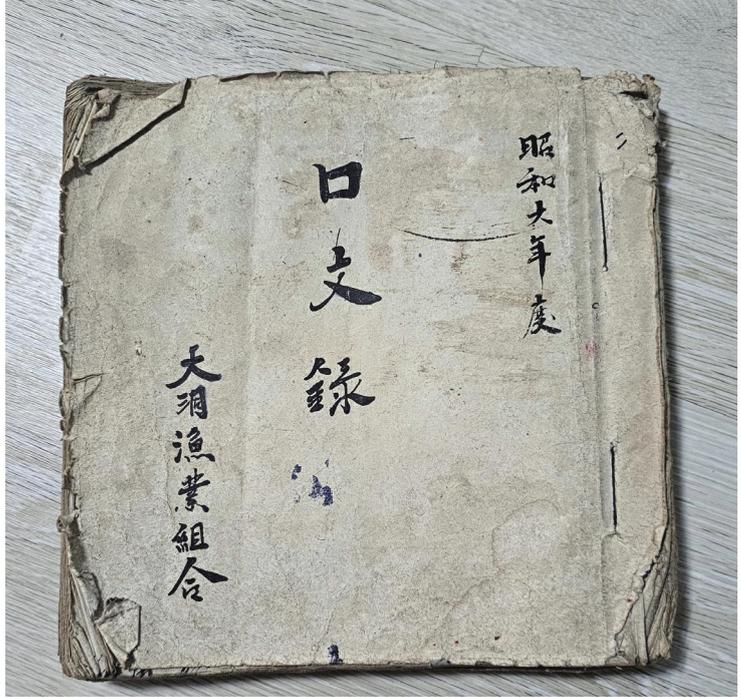
- **비명** : 장수황남춘선생공적비
(長水黃南春先生功績碑)
- **위치** : 삼산면 초도리 산 1325번지
- **비문** : 공적비를 세우며

세월이 흘러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은 잊혀지기 마련이고, 살아온 지난날이 주마등 같기만 합니다.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태어나 자라던 고향! 어릴 때 물장구 치며 놀던 선창 가 바닷물 넘실거리는 끝없는 푸른 바다 섬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것같이 무서운 파도, 거기서 자연을 배우고 또 이를 이겨나가야 할 힘을 키우게 한 어린 시절, 이것이 맨손으로 온 누리 어디서나 터를 닦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초도 사람들을 만들었나 봅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잊지 못할 고향 초도를 다듬고 손질하여 오늘이 있게 해주신 어른들의 힘겨웠던 노고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철부지 후진됨을 자탄하면서, 황남춘 선생의 공적에 대한 비를 세워 송덕을 기리고자 뜻을 모아 작은 돌에 새깁니다.

1996년 5월 8일 공적비추진위원장 최재완

3) 구문록(口文錄)

(1) 구문록 해제



구문록

가. 구문록이란?

구문(口文)의 사전 의미는 ‘홍정을 붙여 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이다. 초도의 대동어업조합의 구문록은 해초의 거래를 중심으로 한 구문에 관한 기록뿐 아니라 어업조합의 전반 운영에 관한 회계 장부이다.

나. 구문록의 발생 연도

초도 대동어업조합 구문록은 소화 6년도(昭和 六年度, 1931년) 해태(海苔) 구문(口文)부터 시작하여 1964년까지의 대동어업조합의 회계와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기록이다.

다. 구문록의 내용

구문록의 내용은 초도 대동리의 대동어업조합에서 발생한 경제적 사유에 관한 것으로 수입과 지출의 내력이 다양하고 자세 히 기록이 되어 있어 당시 초도 대동리어업조합의 운영 상황 뿐 아니라 대동리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2) 어업조합의 수입원

어업조합 수입원은 분야별로 대표적인 것만 발췌하여 적은 것이다. 화폐의 단위는 당시의 단위를 그대로 실었으며 금액은 가치나 상황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만 기록하였음을 밝힌다.

가. 송엽(松葉:솔가리)

- ① 수상도(水上島) 송엽 280속(매속 40환)
- ② 장대도(長大島) 송엽 200속(매속 45환)

나. 이자(殖利)

어업조합의 수입 중 이자 수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이자 수입은 당시의 경제 상황을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어, 다양하고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나 여기에서는 조합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다는 정도로 소개한다.

- ① 송엽의 수익금으로 이식했는데 이식 기간은 보통 5개월부터 7개월까지였다.
- ② 이자율은 1960년 초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강권홍 일금 10만원, 이자 500환
 - 강동규 일금 15만원, 이자 2,200환
 - 김응구 일금 4만원, 이자 200환
 - 이몽용 일금 9,800환, 이자 49환
 - 이용업 일금 7,000환, 이자 35환- 이상은 이자율이 2%였다.

어업조합의 자금 이식 범위는 초도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타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예이다, 여수읍 서정 이남내 차입금 이자 7원, 여수 이남선 차입금 3원 10전 등이다.

다. 토지대금

토지 대금(地代)은 동답(洞畓, 마을 논)의 소작료가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으나 그 외 유희지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동답 소작료
- ② 동답 맥(麥)대
- ③ 김상수 처 밭 판돈 1년 사용료
- ④ 황동숙 어장막 사용료
- ⑤ 강길심 대지 사용료
- ⑥ 김재성 변소 사용료
- ⑦ 김재연 어장장소 사용료
- ⑧ 이동태 창고 사용료
- ⑨ 수지단 임야 매도

라. 입어료(入漁料) 및
입포료(入浦料)

- ⑩ 잔섬 지강물 매도
- ⑪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 매도

초도 대동리에서 받아들였던 입어료나 입포료는 현재 도서 지방의 어촌계에서도 참고하여 합리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 ① 삼천포 해녀선 입어료 - (이성지 관계선)
- ② 부산 해녀선 입어료 - (김동술 관계선)
- ③ 박정남 입어료
- ④ 타처 어업선 수십 척에게 기부 - 6,100원(1948년)
- ⑤ 남면 안도 조기 유망어선 일동 - 550원
- ⑥ 경남 남해군 조치수 - 1,000원
- ⑦ 제주도 김진생 - 1,000원
- ⑧ 제주도 김진생 해녀 입포료 - 5,000원
- ⑨ 문어선 일본조(一本釣) 입포료(거제도인 25명) - 4,700원
- ⑩ 잠수기선 입포료(남해 박태옥) - 7,000원

마. 기부금

- ① 여수 강기천 잠수선 기부금
- ② 정호(井戶) 수선비로 조합 기부금
- ③ 여수 우상인(牛商人)조
- ④ 남면 어선 기부금
- ⑤ 고흥군 김기현
- ⑥ 제주해운상회 주인
- ⑦ 선창 공사시 각 선주 기부
- ⑧ 방파제 공사 보조비 선주 보조

바. 가축

가축을 이용한 수입은 종자소(種牡牛)의 수입을 중심으로 중경도와 원도의 산양인 염소가 수입원이 되었다.

- ① 종모우(種牡牛, 종자소)
- ② 중경도 양 2수 대금 40원
- ③ 양 2두
- ④ 원도(圓島) 산양 4두 처분

사. 해초 구문

초도에서의 해초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소득원이다. 해초는 김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가 채취되었다. 특히 해조류의 한자 표기가 다양하여 흥미롭다. 예를 들어 김은 해태(海苔), 해의(海衣), 암해태(岩海苔), 석금(石金) 등으로 기록하였다.

- ① 해태 구문 : - 1회 일금 24원 14전 이경진
- 2회 일금 36원 10전 황종인
- 3회 일금 60원 24전 이승규
- 4회 일금 5원 32전 황종인(1931년)
- ② 해태 구문: 1회 ~ 7회(1932년)
- ③ 해의(海衣) 1통 대금 8원 75전(1943년)
- ④ 석금(石金: 돌김) 殖利 - 5,680환(1956년)
- ⑤ 암해태(岩海苔: 돌김) 구문(1934년)
- ⑥ 불동가사리(不同) 구문 일금 171원 30전 7리 이승규
- ⑦ 세모가사리(細毛) 구문 일금 121원 2전 8리 조합장
- ⑧ 가사리(加沙里) 麗水 금 50원(1935년)
- ⑨ 녹미채(麓尾菜: 툇) 일금 73원 41전(1942년)
- ⑩ 해초 우수료(우수리)
- ⑪ 해조(海藻)

아. 어류

- ① 활어(活魚) 구문
- ② 연평도 석어(石漁: 石首漁, 조기) 구문
- ③ 연평 구문

자. 베(布)

중요한 옷감인 베(布) 역시 자본의 이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진포와 병포, 화포와 같은 베의 종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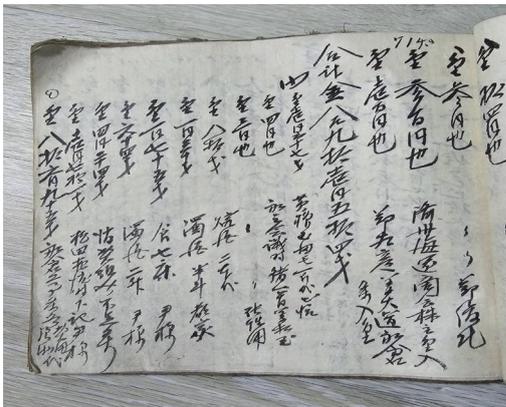
- ① 진포(眞布) 우수료(우수리:물건값을 셈하고 남아 되돌려 주는 돈) (1934년)
- ② 진포 및 병포(並布) 기타 (1935년)
- ③ 화포(和布) 154원 21전, 병포 188원 37전, 진포 855원 86전 (1942년)

차. 기타 수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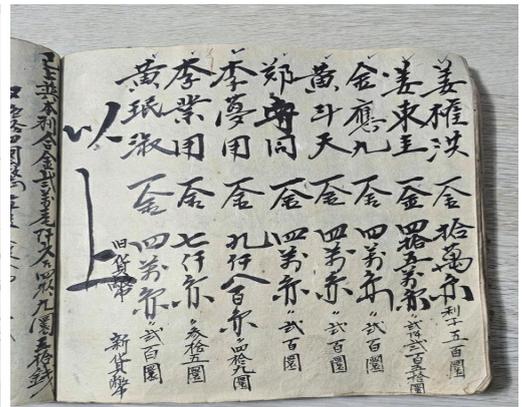
- ① 전표 할인 일금 3원 10전 황형춘
- ② 정경도(鄭京道) 중결도 실화(失火) - 5만환
- ③ 중결도 화목 - 1,000원
- ④ 김상수 발판 전용료 - 100원
- ⑤ 배급식량선 판돈(황형춘) 조 - 3,000원(1948년)
- ⑥ 춘기(春期) 식량선비조 - 9,088원
- ⑦ 중결도 잡목 대금
- ⑧ 삼산호 취급소 수수료(우수리)
- ⑨ 마다리 판매
- ⑩ 고사목 1주 매도 100원

(3) 지출

구문록의 지출 내역은 단순한 회계 장부라는 기록의 의미를 넘어서 초도 대동어업조합의 설립 목적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지출의 항목이 조합의 운영자금의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초도 대동리라는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어업조합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지고 있으며, 당시 초도 대동어업조합을 중심으로 오피니언리더들이 마을에서 사회적 책무를 어떻게 몸과 마음으로 실천했는가를 구문록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보여 주고 있다.



구문록



구문록

- ① 지서운영비
- ② 군경원호비
- ③ 일선장병 위문금
- ④ 체육대회 잔조금
- ⑤ 춘기학교 업료 - 61원 96전(1935년)
- ⑥ 조합 전마선 유실 - 18원 50전
- ⑦ 조합 구휼자금 - 16원 26전(1935년)
- ⑧ 조합 사업자금 - 29원 25전(1935년)
- ⑨ 조합 서기 신원보증금 - 79원 25전(1935년)
- ⑩ 연합회 차용금 5원 38전
- ⑪ 조합 서기 하년(下年) 요금 일금 70원(1936년)
- ⑫ 선창 공사(1936년)
- ⑬ 종선 1척 매입
- ⑭ 교원 반삭 급료 14원 19전(1937년)
- ⑮ 소주 2되 80전
- ⑯ 탁주 반말 1원 30전
- ⑰ 밥(食) 7상 1원 75전
- ⑱ 탁주 2되 64전
- ⑲ 조합 보조금 - 중선주(中船主)조합과 반분
- ⑳ 김학천 선생 조 - 10원
- ㉑ 돌배(石船:방파제 축조 때 돌을 실어 나르는 배)의 노(櫓) 대금
- ㉒ 국회의원선거 경비 보조 - 800원(1948년)
- ㉓ 초교(草校) 후원회비 할당 잔금 - 14환
- ㉔ 대성고등공민학교 기본자금 책자 매입
- ㉕ 삼산호 취급소 경비(1958년)
- ㉖ 철근교량 신설비
- ㉗ 선창사용료
- ㉘ 방파제축조 침목 매입
- ㉙ 공사감독 강수도씨 위사금
- ㉚ 도면 설계료
- ㉛ 선유장 수선물자 및 제경비

- ③② 어시장 신축 부담금
- ③③ 해변정호(海邊井戶: 세탁샘) 신설 경비
- ③④ 종선 복구 보조
- ③⑤ 교사 3인 1년 일료(日料) 250원(1934년)

(4) 조합의 운영과 관리

대동어업조합의 운영은 초기인 1931년부터 1933년까지는 지출이 보이지 않고 수입만 보인다. 초기 자본의 확보 기간으로 보인다. 수입원도 주로 해초인 해태 구문과 불동, 세모의 구문 수입이었다. 1934년부터 활어 구문, 진포 우수료(우수리), 연평(연평도) 석수(조기) 구문 등 수입원이 다변화된다. 아울러 수입의 증가로 여천금융조합에 자금을 예치하는 등 본격적으로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935년을 기점으로 대동어업조합은 다양한 사회적 책무를 하기 시작한다. 선창, 중결도 등 부속 도서, 종모우, 산양, 토지, 입어료, 입포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서운영비, 군경원호비, 일선장병 위문금, 체육대회 찬조금, 초등학교학교 운영비, 마을의 구휼 활동, 종선 매입, 교원 급료 지급, 선거 경비 보조, 대성고등공민학교 기본자금 후원, 철근교량 신설비, 해변정호 신설 경비 등 현재 행정 단위에서 해야 하는 사업을 어업조합에서 하고 있었다. 마을의 어장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여 해조류의 판매뿐 아니라 입어료와 입포료를 받는데 지역을 보면 부산, 거제, 남면, 제주, 남해 등 다양한 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었으며, 어종을 보면 잠수선, 해녀, 문어, 유망, 일본조 등의 어선을 관리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수많은 사업은 조합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구문록에 상세히 기록하여 조합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33년 간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마을, 초도 대동리라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를 이어 오고 있다.

라. 초도의 어제와 오늘

1) 울릉도·독도를 개척한 초도 거문도·손죽도 사람들 이야기

독도는 단순히 한반도의 동쪽 끝 작은 섬이 아니라 한반도 독립을 상징하는 한국인의 자존심인 것이다. 이 울릉도 독도를 여수 거문도, 초도, 손죽도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어업이나 선박 건조 등의 활동을 하면서 이미 수 백년간 그곳 울릉도, 독도를 기반으로 생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과 삶을 같이 해온 우리 고유한 영토이자 민족의 터전이다.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 야욕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물론 일본이라는 외부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어쩌면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영토였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했던 내부적인 원인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였고 앞으로도 우리의 역사인 독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과 왜곡된 영유권 주장은 1905년 일본이 불법으로 독도를 편입한 이래 1910년 한반도 전체를 강탈하여 식민지로 삼은 이래 아직도 꾸준히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 지역 사람들의 피어린 울릉도, 독도 개척 이야기를 구술로, 기록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살펴보고 기록하여 후대의 증거로 삼고자 한다. 다만 섬 변천사라는 집필의 한계와 제약으로 일부만 이야기한다.



삼산면에서 울릉도·독도 뱃길

(1) 여수 거문도·초도·소죽도 주민들의 울릉도·독도 교류

그 머나먼 울릉도 독도를 언제부터 갔을까?

- ① 최초의 기록은 1693년 안용복이 울릉도로 조업하러 갔을 때 울산 배 1척, 가덕도 배 1척, 전라도 배 1척 등 3척이 갔다는 기록이 처음 나타난다. 전라도의 배에는 17인이 승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배를 삼도 배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후 상황이나 기록에 비추어 여수 삼산면의 거문도나 초도의 배라고 볼 수 있다.
- ② 김해 김씨 족보 기록에 의하면 1771년(영조 47년) 음력 5월 23일 삼도 사람들이 울릉도를 가다가 포항 근처에서 거센 태풍을 만나 배가 전복되고 20여 명의 선원들이 모두 죽었다. 김홍형도 사고를 당해 경북도 영덕군 봉화산에 묻혀 있다.¹⁶⁾
- ③ 1787년(정조 11년) 5월 27일 라페루즈 탐험기에 의하면 “우리는 포구에서 건조 중에 있는 배들을 보았다. 우리 함정들이 일꾼들을 놀라게 한 듯 그들은 50보 정도 떨어진 숲속으로 달아났다. 우리가 본 것은 몇 채의 움막집 뿐이었고, 촌락과 경작물은 없었다. 따라서 다즐레 섬에서 조선인 목수들이 식량을 가지고 이 섬에 와서 여름 동안 배를 건조하여, 이를 육지에 가져다 파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 ④ 1882년(고종 19년)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
4월 30일 학포에서 삼도사람 김재근이 23명을 데리고 배를 만들고, 미역을 채취하고 5월 3일 천부에서 낙안의 이경철이 20명과 초도사람 김근서가 19명과 함께 각기 움막을 짓고 배를 만들고 있었다. 5월 5일 도동에서 삼도사람 이경화가 움막을 치고 13명과 미역채취, 사동에서 초도 김내언이 12명과 배를 만들었다. 5월 6일 사동에서 초도사람 김내운이 22명의 인부와 배를 만들고 있었다.

조선인 142명 중 전라도 출신이 6팀에 115명, 울릉도에 온 사람들은 봄에 울릉도에 도항하여 13~24명이 1단(團)을 이루어 살면서 별목해서 조선을 하는 한편, 틈틈이 미역 채취와 고기잡이를 하여 조선이 끝나면 배에 싣고 귀향한다고 한 사실이다.

이런 기록으로 살펴보았을 때 거문도, 초도, 손죽도 사람들이 멀리는 숙종 때부터 영조, 정조 때부터 활발하게 울릉도 독도를 다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6) 김이해-김홍형-김득택으로 가계가 이어진다. 김이해는 1760년 영조 시절 고흥 현감으로 지내다 거문도로 유배와서 장재서당을 열었다. 아들 김홍형은 1771년 마을 사람들과 울릉도로 떠났다가 경상도 영해 죽산에서 풍랑으로 전원 죽었으나 호패를 차고 있었던 관계로 주민이 봉화산에 묻고 나중에 소식을 전해 주었다. 홍형의 아들 김득택이 서당을 이어간다. 그 서당이 1905년 낙영학교를 거쳐 1912년 사립거문보통학교, 지금의 거문초등학교로 이어진다.

그 먼 울릉도 독도까지 왜 갔을까?

- ① 삼산면 사람들은 바람과 해류를 잘 이용하는 항해술이 발달했다. 돛단배를 이용해서 남서풍을 타고 울릉도에 도착하여 새로 배를 만들고, 가옥 재료로 쓰는 나무 등을 구해 북동풍이 부는 철에 거문도 쪽으로 이동했다.
- ② 독도에서 잡은 강치의 간으로 짠 아우지름은 희소성 때문에 중요한 수입원이었으며, 배를 만들거나, 집을 지을 때의 나무, 해산물(특히 미역) 등도 커다란 소득이었다.¹⁷⁾
- ③ 울릉도가 다른 섬보다는 치안이 허술했을 것이다. 육지보다 멀리 떨어져 있었고 검찰일기에 나무를 베기 위해 일본인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감시가 많이 허술했다.
- ④ 계절에 따라 울릉도를 찾는 삼도 사람들이 이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 임명한 도감 명단에는 확인되지 않으나 1890년 오성일을 도감으로 임명한 교지나 월송 만호가 울릉도 도장을 함께 맡아 활동하는 시기가 전라선이 3월에 들어와 돌아가는 7~8월까지였음은 삼도 사람들의 영향력을 짐작한다.
- ⑤ 조선 후기 삼도에 매겨진 세금과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 삼도인들의 선박세, 미역세, 포구세는 다른 섬에 비해 아주 높게 매겨져 있다.
- ⑥ 산간지형으로 농지도 적어 항상 식량과 목재가 부족했다.(특히 배짓는 목재)
- ⑦ 추석이 지나 봄까지 농한기를 이용하거나 생업을 위해 갔다. (가는 시기가 다름)

그 먼 울릉도 독도까지 어떻게 갔을까?

- ① 삼도 사람들은 곧바로 울릉도를 향하기도 했고, 때로는 동해안을 따라 해상 무역활동을 하면서 원산 등지에서 출발하기도 했는데, 거문도에서 울릉도로 가는 여정은 보통 15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렸다고 한다.
- ② 노와 돛으로 움직이는 15톤 정도 돛단배를 타고 거문도와 울릉도를 오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으로 울릉도, 독도에 갈 때는 하늬바람(북서풍), 서마(남서풍), 마파람(남풍)이 부는 10월 초순에 출발하고, 거문도로 올 때는 셋바람(동풍), 늑새바람(북동풍)을 이용해 다음 해 8~9월 또는 겨울을 보낸 뒤, 2월 중순에 출발하였다.
- ③ 북서태평양에서 시작되는 쿠로시오해류가 대마 난류로 나뉘는 뒤, 일부가 대한해협으로 이동하다가 동한 난류를 형성하는데, 북한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북한 난류와 만나 울릉도를 향해 이동하기 때문에 울릉도를 향할 때 비교적 순조로운 해류 체계를 활용할 수 있었다.

17) 초도 서덕업 증언, 중계무역 등

- ④ 조선시대 항해 조건을 고려한다면 울릉도까지의 약 15일 간의 여정은 울릉도로 바로 가는 항해라기보다 중간 기착지를 고려한 항해로 짐작되며, 울릉도로 오갈 때 꼭 장기 섭설이곳(지금의 영일만)에서 바람을 살폈다고 한다.
- ⑤ 돛단배를 이용하여 중간 기착지를 거치지 않고 울릉도를 바로 갔고, 약 550km의 거리를 15일 동안 항해했다고 가정하면 선박의 속력은 0.8노트의 속도로 추정할 수 있고, 약 4노트 속도로 이동했다면 울릉도까지는 약 3일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1kt는1,852m)

(2) 우리지역 거문도·초도·손죽도 사람들의 활동 증언 그리고 기록들

①

안용복과 전라도 배
그리고
홍국사 승려
뇌헌(雷憲)

1693년 일본의 돛토리 지방으로 납치되어 끌려갔던 안용복과 박어둔은 조선으로 귀국하는 도중에 나가사키와 대마도에서 몇 차례에 걸쳐 피랍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의 조사 기록에 따르면 안용복이 일본인들에게 납치되었을 당시 울릉도에는 3척의 배가 조업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그 중 1척이 전라도 순천의 배였다고 진술했다. 당시 순천은 현재의 여수지역을 통괄하는 지명이었다.

안용복이 1696년 2차 도일시 11명이 같이 갔는데 그 일행 중 5명이 여수 홍국사 스님들이었다. 그 일행의 대표적인 분이 홍국사 뇌헌 스님이다. 속중실록에 등장하는 순천 승 5명은 당시 순천부 관할의 홍국사 승려였으며 스님들은 화양면 용주리에 있던 고돌산전에서 출발하여 안용복과 울산에서부터 합류하여 동행하였다.

쓰시마 번주는 새로 임명된 인사를 겸하여 도쿠가와 막부에 들어가 호키슈(伯耆州, 지금의 돛토리현) 태수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일본의 실질적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관백(關白)으로부터 죽도(竹島, 독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이 자리에서 쓰시마 번주는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하게 되고, 도쿠가와 막부는 “일본인이 독도에 가서 고기잡이와 해조류 채취(漁採)를 영구히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리게 된다.

그해 여름 다시 울릉도로 갔던 안용복은 일본 어선을 쫓아 자산도(子山島), 즉 독도를 거쳐 일본 호키슈(伯耆州)에 도착하여, 울릉도에 출어했던 일본 어민들의 처벌을 태수(州守)로부터 약속받고 돌아왔다.

결과적으로 쓰시마 번주는 1697년 동래부로 서계를 보내어,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독도에서 어업과 해조류 채취를 금한다는 막부의 결정을 알려 옴으로써 조선과 일본 간 울릉도·독도 영유권 분쟁이 타결을 보게 되었다.

전라도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울릉도·독도와 교류한 사실은 안용복(安龍福)이 울릉도와 독도의 주권을 인정받으려 1693년 납치되었을 때와 두 번째 일본에 갔을 때인 1696년 5월 18일, 함께 참여한 여수 흥국사의 뇌헌(雷憲)과 승담(勝淡)·연습(連習)·영률(靈律)·단책(丹責) 등 승려들의 기록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동래(東萊) 사람 안용복(安龍福)·흥해(興海) 사람 유일부(劉日夫)·영해(寧海) 사람 유봉석(劉奉石)·평산포(平山浦) 사람 이인성(李仁成)·낙안(樂安) 사람 김성길(金成吉)과 순천(順天)의 승려(僧) 뇌헌(雷憲)·승담(勝淡)·연습(連習)·영률(靈律)·단책(丹責)과 연안(延安) 사람 김순립(金順立) 등과 함께 배를 타고 울릉도(鬱陵島)에 가서 일본국(日本國) 백기주(伯耆州)로 들어가 왜인(倭人)과 서로 송사한 뒤에 양양현(襄陽縣) 가까이 돌아왔으므로, 강원 감사(江原監司) 심평(沈桴)이 그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급하게 보고(馳啓)하였는데, 비변사(備邊司)에 내렸다.

②

1787년 프랑스의 라페루즈 탐험대 일지

라페루즈 탐험대가 울릉도를 발견하고 울릉도에 다즐렛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당시에 라페루즈는 울릉도에서 다수의 조선인을 목격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배를 건조하는 작업장을 발견했다. 이들은 조선인 목수로서 여름이면 섬에 식량을 가져와서 배를 건조한 후 본토에 가져다 판매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조선인의 행동은 그 후의 기록과 비교해 볼 때 거문도 초도의 주민들이 보여 준 행동과 일치하고 있다.

라페루즈는 울릉도 서쪽 지역만 묘사하는데 거문도, 초도 주민들은 검은 작지(현재의 현포 지역)를 중심으로 활동했었다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③

통상휘찬 234호

“여름철이 되면 전라도 삼도지방에서 미역 채취를 위해 20척 내외가 섬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도 화물이 만재되면 본토로 귀향하고 기타 항해용에 적합한 선박을 보유한 자는 없어도”

20세기 초반 이전에 울릉도에서 이루어진 거문도 및 초도 지역 주민들의 활동은 명백하게 역사 사료 속에 입증되고 있으며, 그들의 목적 또한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④

이규원(李奎遠)의 『울릉도 검찰 일기(鬱陵島 檢察日記)』

고종 18년(1881) 1월, 울릉도 검찰사(檢察使)로 임명된 이규원(李奎遠, 1833년~1901년)은 고종의 명을 받고 1882년 4월 29일, 강원도 평해 구산포를 출발하여 울릉도 소항토구미에 도착한 4월 30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울릉도를 조사하고 돌아와 저술한 『울릉도 검찰일기(鬱陵島 檢察日記)』를 통해 삼산면과 울릉도 사이의 교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1882년 4월 30일, 아침 8시쯤 소항토구미(학포)에 도착하니, 바닷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영접하기에 상륙하여 심문하였더니, 전라도 낙양 삼도(三島) 사람 김재근이 이끌고 온 23명이 배를 짓고 미역을 채취하고 있다.”

“5월 3일 ... 천년포를 지나 왜선창(현재 천부)에 상륙하니 전라도 낙양 초도 사람 김근서가 이끌고 온 19명이 각기 집을 짓고 배를 만들고 있었다.”

“5월 10일 ... 일본인 판잣집을 나와 바닷가에 내려오니 전라도 낙양 삼도 사람 변경화가 데리고 온 13명이 집을 짓고 미역을 채취하고 있다.” ... “통구미에 당도하니 전라도 낙양 삼도 사람 김내운이 이끌고 온 12명이 배를 만들고 있다.” ...

이상의 내용을 보면 전라도 삼도와 초도 사람들이 울릉도까지 가서 집(막)을 지어 놓고 미역을 채취하거나 배를 만들었는데, 그 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홍양 삼도와 초도는 현재의 여수 삼산면에 속한 거문도와 초도이다.

『검찰일기』에서는 다음 표처럼 검찰 당시 울릉도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의 작업 내용을 상세히 적고 있다.

검찰일	대표자	대표자 출신지	작업 내용	장소
4월 30일	김재근(金載謹) + 격졸 23명	흥양(興陽) 삼도(三島)	선박 건조, 미역 채취	소항토구미
5월 2일	최성서(崔聖瑞) + 격졸 13명 전서일(全瑞日, 생원) 경주 사람 7명 연일 사람 2명	평해 - 경주 연일	. . 약초 채취 연죽(烟竹) 벌목	대항토구미 소항토구미 대항토구미 대항토구미
5월 3일	이경칠(李敬七) + 격졸 20명 김근서(金謹瑞) + 격졸 19명 박기수(朴基秀) 이름을 알 수 없는 4~50명 정이호(鄭二祐)	전라도 낙안(樂安) 흥양(興陽) 초도(初島) 대구(大邱) . 파주(坡州)	배 건조 배 건조 산신당 주인 약초 채취 약초 채취	왜선창포 왜선창포 중봉 중봉 중봉
5월 4일	전석규	함양(咸陽)	.	나리동
5월 5일	김내언(金乃彦) + 격졸 12명 내정상장 등 일본인 78명 이경화(李敬化) + 격졸 13명	흥양(興陽) 초도(初島) 남해도, 산양도 등 흥양(興陽)삼도(三島)	선박건조 벌목 미역채취	장작지 도병청-장작지 장작지
5월 6일	김내윤(金乃允) + 격졸 22명	흥양(興陽) 초도(初島)	선박 건조	통구미

이규원이 만난 조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4~50명을 제외하고 대표자의 출신지가 일꾼의 출신지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확인된 142명 중 거문도 주민이 38명이며, 초도 주민 또한 56명에 이른다.

또한 전라도 출신 외의 조선인들은 주로 약초를 채취하기 위해 울릉도에 왔지만, 전라도 사람들은 배를 만들거나 미역 채취 등으로 활동이 주목적이었음이 특징적이다. 울릉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절대다수가 삼산면 지역 사람들이었다.

⑤

오성일 도감

구한말 울릉도 도감을 지낸 인물로 일명 오상일(吳相鎰)이다. 그에게 내렸다는 교지의 사본에 광서(光緒) 16년(1890년 9월)에 도감에 임명된 것으로 되어 있다. 1900년 초 울릉도 도감 배계주가 보고한 일본인 작폐에 관한 내용에

“일본인들이 전 도감 오성일이 발급한 문서를 빙자하여 1899년 8~9월 사이 규목 1천여 팜을 작벌하였다.”라는 기록이 실린 것으

로 보면, 그 전에 도감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에 거주하는 직계 후손 오충현의 증언과 소장한 족보에 의하면, 오성일은 동북 오씨로 1854년 삼산면 서도리에서 출생하였다. 1883년 울릉도 개척령에 따라 입도하여 37세 경에 도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다시 거문도에 돌아와 작고했다고 한다. 그 밖의 일은 자세하지 않다.

그가 받은 교지는 독도박물관에 전시되고 지금은 다시 거문도(후손들이)에 있다.¹⁸⁾

거문도 장촌마을의 오성일(吳性鑑, 1854~1924)은 고종 27년(1890) 거문도 사람들을 데리고 울릉도에 갔으나, 왜적 떼가 나무를 마구 베는 등 행패가 심하자 울릉도 사람들과 힘을 합해 일본의 도적무리를 쫓아버렸다.

오성일의 활동에 감명받은 울릉도 주민들이 그를 추천하여 고종 27년(1890) 9월, 초대 울릉도 초대 도감(島監)의 교지를 받음으로써 거문도 사람이 울릉도를 관리하게 되었다. 어찌되었건 1900년 울릉도 도감 배계주가 보고한 일본인 작폐에 관한 내용 전도감 오성일에 관한 기록이 있고, 1883년도 울릉도 개척령 이후 삼산면 주민들이 계속해서 벌목 문제로 일본인들과 다툼이 벌어졌다. 계속해서 분쟁이 벌어지니 조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1900년에는 한일 양국 공동으로 조사까지 하였다. 그때 상황을 기록한 우용정 보고서에 허가를 핑계로 일본인들의 벌목이 심해 오도감이 일본인을 엄하게 다스렸는데 밤에 일본인 20명이 오도감 집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그 기록의 끝부분에 “오도감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전라도에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오성일이 도감의 직책을 맡아 울릉도를 관리한 것은 맞으나 교지 등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삼산면에는 이처럼 조선 후기 그곳 사람들이 울릉도에서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유물들이 남아있다. 울릉도에서 생산된 규목으로 만든 다듬잇방망이와 홍두깨를 비롯해 집 기둥 등이 남아 있다.

18)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 박물관, 2007

⑥

통구미, 보찰바위,
현포, 독도 등
이름의 유래

통구미(九味) —

울릉도에는 황토구미, 통구미 등 지명이 있다. 초기 울릉도 거주자 대다수가 여수 삼산면 사람들인 관계로 울릉도 지명은 삼산면 지방의 언어가 곳곳에 남아 있다. 또 자세히 조사해 보면 우리 지방의 지명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1920~30년대의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울릉도의 지명유래 또는 울릉도 개척민의 정책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내용이 있다.

1928년 9월 6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예전에 약초 캐려고 오던 전라도 배가 풍랑에 밀려 이 섬에 닿아가지고 뱃멀미에 입맛을 잃었다가 아홉 가지 맛이 통했다고 해서 통구미라 부른다 한다.”며 울릉도 통구미의 지명 유래가 전라도 배에 탄 사람들의 뱃멀미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규원의 검찰일기에 울릉도 통구미(九味)에 초도 김내윤과 격졸 23명이 배를 짓고 있었다고 기록하는데 초도 대동리가 구미리(九味里)라고 불렀다고 한다.¹⁹⁾ 또한, 초도 대동리에 대패미(대풍)가 있다.

작지 —

삼산면 지역에는 울릉도와 언어적인 유사성을 엿볼 수 있는 땅 이름들이 있다. 거문도에는 진(긴) 짝지, 조내이 짝지, 추넘애 짝지, 작은 짝지와 같은 ‘짝지’라는 땅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짝지(작지)’는 자갈로 이루어진 바닷가를 의미하는데, 울릉도 북면의 현포리는 과거에 ‘가문작지’로 불렸다. 현포 바닷가는 몽돌 해안으로 이곳이 전라도 사람들, 특히 삼산면 사람들이 주로 머물렀던 장소임을 짐작케 한다.

보찰바위 —

독도의 서도 남서쪽 해안에는 거북손 닮은 ‘보찰바위’가 있는데, 보찰은 삼산면 지역의 ‘거북손’의 지역어로서, 삼산면 지역에서는 흔히 삶아서 살을 빼먹거나 무침 또는 탕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이러한 보찰바위는 삼산면 삼부도에 있으며, 역만도의 남쪽 끝 바위를 ‘보찰여’라고 부른다. ‘짝지’나 ‘보찰’은 울릉도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명칭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전라도, 특히 삼산면 사람들의 활동이 많았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19) 초도 대동리 이장 김진수 증언

울릉도시찰위원(鬱陵島視察委員) 우용정은 광무 4년(1900년) 6월 15일, 울릉도 조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일본 측과 공동으로 조사한 4개 사항과 그가 직접 조사하고 조치한 내용,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취할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대신 이견하에게 제출했으며, 이후 광무 4년(1900) 10월 25일에 칙령 제 41호를 발표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편입하게 된다.

칙령 제41호 제2조의 규정에서 군청의 위치를 태하동(台霞洞, 울릉군 서면)으로 정하고, 울도군의 관할구역으로 울릉도 전체와 죽도(竹島)와 함께 석도(石島)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석도는 어느 섬을 가리키는 것일까? 울릉도와 이에 부속된 작은 섬·바위들과 죽도를 제외하고 나면, 울릉도 주변에 있는 도서로서는 오직 오늘의 독도가 남을 뿐이다. 지금도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독섬’ 혹은 ‘돌섬’이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제2조의 석도는 바로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광무 10년(1906)에 울도군수 심흥택이 강원도관찰사서리 이명래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독도’라고 한 것은 이 석도, 즉 ‘독섬’에서 음을 빌린(借音) 것이라 하겠다. 사용하던 지명을 한자로 바꿀 때는 대개 훈차(뜻)나 음차(소리)를 빌려 사용한다.

전라도 삼산면 사람들에 의해 독섬(돌섬)이라 부르던 독도를 뜻으로는 ‘돌석(石)’ 즉 ‘석도’라 하고 소리나는 대로는 한자어 ‘홀로독(獨)’을 빌려서 독도라 하였다.

전라도 사람들은 돌을 독이라 한다. 어린아이가 죽으면 돌로 묻고 독다물이라고 하고 다드미돌을 다드미독이라 한다. 또한 돌로 된 섬을 독섬이라고 한다. 독섬을 훈차하여 쓰면 석도가 되고 소리나는 대로 음이 비슷한 한자를 쓰면 독도가 되는 것이다.

여수지역에도 솔개섬 즉 소리도를 연도(鷲島)라 하고, 밤개가 울포(栗浦)로 한 것은 뜻으로 한자를 쓴 훈차이고, 파도가 넘는다든 넘자도는 여자도(汝自島)라 하고, 남면 유포마을은 원래 이름이 뺨은개였는데 적당한 한자가 없어 소리가 비슷한 ‘버들 유(柳)’자를 써서 유포(柳浦)라 하는데 비슷한 한자를 쓴 음차라고 볼 수 있다. 그 독섬이 여수 돌산에도 있고 고흥에도 있다. 지금도 독도라 부르고 있다.

⑦

술비노래

1928년 9월 7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예전에 전라도에서 삼림이 울창하니까 벌목을 하여 새로 목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곳에서 바람 자기를 기다리다가 떠난 곳이라고 해서 대풍감이라 부른다고 한다.”며 울릉도의 대풍감에 전라도 배들이 목선을 건조해서 그곳에서 바람 자기를 기다리다가 떠난 곳이라는 지명의 유래를 전하고 있다.²⁰⁾

또 1934년 2월 24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이보다 먼저 이 섬에 드나들기 시작하기는 전라도 사람들로 이들은 초여름에 현 배를 타고 들어오면 온 여름 동안 삼림 속에서 좋은 재목을 베서 새 배를 지어 타오는 것”이라면서 울릉도 개척민 보다 먼저 울릉도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전라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사화하고 있다. 삼산면 지역 내에서 울릉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칩덩굴과 새끼 등을 엮어 큰 밧줄을 만들 때, 일의 능률을 높이고, 노동의 힘겨움을 잊고자 부르던 노동요인 ‘술비소리’를 들 수 있다. 술비소리는 세 사람이 자세(얼레)를 돌리고 여러 사람이 칩과 새끼를 길게 연결시키면서 부르는 ‘에이야 술비야’와 다시 이 줄들을 합쳐서 큰 줄로 만들며 부르는 ‘에헤에 술비’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술비 소리〉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에이야아 술비야(후렴: 에이야 술비야)

울릉도로 나는 간다(후렴), 고향산천 잘 있거라(후렴),

부모형제 잘 계시오(후렴) 인제 가면 언제 오나(후렴)

오도록 만 기다리소 (후렴)

...

울릉도를 가서보면 에이야아 술비야

좋은 나무 탐진 미역(후렴)

구석구석에 가득찼네(후렴)

...

울고 간다 울릉도야(후렴) 어기영차 배질이야(후렴)

20)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약초를 캐거나 농사를 짓는 반면 거문도, 초도 사람들은 배를 짓거나 미역을 채취하는 일이 주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지역 자체가 배를 지를 만한 목재가 없는 지형적 이유 때문이라 하겠다.

⑧

기타

이 민요를 보면 울릉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해류와 조류, 바람 등을 이용해 울릉도를 오갔던 이들은 울릉도에서 배와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를 구하고, 미역 등을 채취했음을 알 수 있다.

1962년 3월 20일자 민국일보에는 “독도는 옛날부터 우리 땅” - 천석짜리 뗏목 배로 왕래 - 라는 기사가 있다.

1895년(20세) 되던 여름철에 ‘천석짜리’ 무역선 5~6척이 원산을 거쳐 울릉도에 도착하여 그 울창한 나무들을 찍어 뗏목을 지었다.

날이 맑을 때면 동쪽바다 가운데 어렴풋이 섬이 보였다. 나이 많은 뱃사공에게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저것은 독섬인데 우리 삼도(거문도)에 사는 김치선(그 당시로부터 140년 전, 1750년경) 할아버지 때부터 꼭 저 섬에서 많은 가제를 잡아간다고 가르쳐주었다.”

일행 수십 명은 원산 등지에서 명태 등을 실은 배를 울릉도에 두고 뗏목을 저어 이틀 만에 약 2백리 되는 ‘독섬’에 도착했다. 섬이 온통 바위로 되어있었다는데 사람이라고는 한사람도 없었다.

독섬은 큰 섬 두 개 그리고 작은 섬이 많이 있었는데 큰 섬 사이에 뗏목을 놔두고 열흘 남짓 있으면서 가제도 잡고 미역, 전복 등을 바위에서 따다.

그리고 울릉도에 다시 들어와 원산이나 대마도로 가서 일본사람들에게 팔았는데 가제를 퍽 좋아했다고 한다. 가제의 살은 먹고 가족을 가지고 신발 등도 해 신었다고 한다.

1963년 8월 11일자 조선일보에는 거문도의 박운학의 인터뷰 기사를 실고 있다.

… 독도가 우리 땅이란 살아있는 단 하나의 증인 박운학(朴雲學, 1885년생) 증언

… “울릉도로 떠나기 전에 멀리 의주나 진남포 장산곶까지 가서 쌀 한 섬을 8량 5돈에 사 신고 영일만 장기섬설이를 지나 울진, 강릉, 원산에 가서 팔면 한 섬에 다섯 곱인 40냥씩 받았지.” 한다.

쌀을 팔고 빈 배를 갈바람에 날리면 울릉도에 이른다. 열일곱 살 때(1902년경) 갔을 때는 도동에 집이 10여 채, 일본 사람들은 없었고 … 가제(물개의 일종)를 잡으러 독섬에 곧잘 갔다는 박씨는 가제 가족으로 갓신, 담배쌈지도 만 들어 선물로 삼았고 기름을 짜서 불을 켜다는 것이다. …

⑨

구술자료

눈물의 섭설이를 지나 거문도에 이르면 금의환향이다. 마을사람들이 무병베로 장기(長旗)를 만들어 환영해주던 일이 선하다는 박씨. 떠날 때 처자식을, 바다를 등지고 울고 서있던 모습 그리고 섭설이 끝에서 죽은 어부의 아낙네들이 붙들고 울던 그런 기억이 아물아물 살아나온다 했다.

삼산면 사람들은 독도를 ‘독섬’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가서 강치를 잡아 채취한 기름을 ‘애우지름’이라고 하여 호롱불 등의 연료로 사용했다고 한다. ‘애우지름’은 강치의 간(애덩어리)에서 나온 기름이라는 뜻의 삼산면 지역의 방언이다.

구술자료는 고흥 금산에서 아버지 서춘삼을 따라 삼산면 초도에 와서 사시면서 울릉도에 한차례 다녀왔던 서덕업 할머니의 증언만 신기로 한다.

“15톤 내외의 노와 돛으로 움직이는 풍선(風船)을 타고 그 멀고 험한 뱃길 울릉도를 갔다. 울릉도에 가서 배를 만들고 집을 지을 나무와 향나무를 새 배와 타고 갔던 배에 가득 싣고, 미역 다시마와 해삼 전복 꾸죽(소라) 홍합같은 해산물과 약초를 말려서 오면 큰 돈을 벌었다, 특히 향나무는 제사 지낼 때와 경사스런 날과 절에서 매일 쓰기 때문에 아주 비쌌다. 그 시절 초도에는 동백나무 같은 잡나무와 푸나무밖에 없었고, 오래된 집은 모두 울릉도에서 가져온 나무로 지은 집들이라.”

“망망대해 그 먼 곳을, 하늘에 해와 달과 별과 음력 날짜(물 때와 관계가 있음)와 손 안에 든 조그마한 패철 하나에 조류의 흐름을 보고 신간도 알고 방향도 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람인데 하늬바람(북서풍)이나 서마(남서풍)나 마파람(남풍)이 불어야 울릉도에 가기 좋고, 올 때는 셋바람(동풍)이나 늪새바람(북동풍)이 불어야지! 그래서 10월 초순에 갔다가 다음해 8~9월에 오던가, 겨울을 보내고 2월 중순에 울릉도를 떠나온다.”

갈 때는 “하늬바람과 썰물을 타고 바람에 따라 손대(손죽도) 위쪽이나 아래 끝으로, 나라도를 멀리하여 소리도 아래 끄트머리로, 경상도 옥지와 부산 절영도를 지나면 동해안은 물이 들고 나는 간만의 차가 적으면서도 해류가 계속 북상하는 고로, 가다가 인적이 없는 한적한 포구에서 식수도 싣고 쉬었다가 날씨를 보아 울릉도를 가지만, 바람이 계속 순풍일 때에는 쉬지 않고 그대로 달려간다.”

“바람이 그치면 어서라(어스고) 대려라(대리고) 하면서 노를 저어 가되, 조류가 맞지 않으면 닻을 놓고 쉬면서 기다렸다 가고, 맞바람이 불면 하침질(갈지자)로 가는데 바람이 없는 것 보다 무슨 바람이던지 불어야 배질하기가 쉽다.”

“울릉도까지는 운이 좋아 계속 순풍을 만나면 3~4일 안에 갈 때도 있다. 재수가 없으면 한 달이 넘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거나 폭풍이나 노불(태풍이나 폭풍우의 사투리)을 만나면 몰살할 수도 있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 좌·우수영 군사들”

“초도보다 울릉도가 몇 배 더 크고 나무가 뻥뻥하게 들어섰고, 삼동에는 눈도 많이 오고 무지하게 추워도, 초도에서는 할 일이 없지만 울릉도에서는 배나 집 지을 나무를 베다가 다듬고 할 일이 많은데, 향나무는 다루기가 아주 편하다.”

“울릉도 높은 산에서 날씨가 좋으면 보인다. 일기를 잘 살펴가면 독섬이 나오는데 동·서 두 섬 사이에서 해삼, 전복, 소라, 미역, 다시마를 많이 해서 돌아온다. 독섬 바구(바위)틈에서 물이 나오고 하얀 도복을 입은 노인이 사는데 피신해 와 있는 것 같았다.”

“해달, 물개와 물소(바다사자, 강치)가 수없이 사는데 소가 우는 것 같고 처음에는 남자들만 갔지만 오랫동안 있어야 하고 여자들은 밥도 하고 나물도 캐고 농사도 짓고 갯것이나 무재질(물질)도 하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딸이나 건강한 중년 부인들이 동행하였다.”

1970년대 울릉도 독도가 잘 알려지지 않고 정보도 부족한 시절인데 울릉도, 독도에 대한 묘사가 다녀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너무 정확함을 알 수 있다.

울릉도, 독도 개척사에 우리지역의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 1883년 개척령이 내려진 계기도 1882년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에 나타난대로 초도, 거문도 주민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1883년 울릉도 개척령이 내려지게 되었고, 1990년 칙령 41호로 독도를 포함한 울도군으로 행정편입이 이루어진 것도 여수 삼산면 주민들과 일본인들과 계속하여 분쟁이 벌어지니 우용정의 보고를 토대로 곧바로 우리 행정구역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2) 초도의 의병

초도에는 구한말 의병활동을 하다가 일제에 의해 붙잡혀 구속된 김성택, 이병현 2명의 항일의병이 있다. 남해안의 뱃길에 익숙한 초도 사람들은 유배수 출신 의병장 황준성 휘하에서 완도와 해남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김성택 의병이 붙잡혀 1910년 11월 12일 광주지방재판소 목포지부에서 재판을 받고 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을 살았다. 이병현 의병은 붙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김성택 의병 재판에서 함께 궐석 재판으로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다가 1911년 1월 24일 붙잡혀서 원심 2년에 6개월을 더하여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을 살았다.

2명의 의병은 출소 후에 모두 고향을 떠나 이후에 행적을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인의 공헌을 기려 1995년 김성택 의병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데 이어 2012년 이병현 의병에게 같은 훈장을 추서하였다.



여주시 이순신 공원에 있는 항일독립운동기념탑

3) 삼산면의 여순사건²¹⁾

(1) 거문도의 여순사건

거문도는 구한말부터 하멜의 표류나 영국군의 거문도 점령사건 등을 거치며 선진문물을 빠르게 흡수하였고, 사람들 또한 내륙 지방보다 먼저 개화되었다. 특히 거문도 김씨 집안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과의 인연으로 자식들을 개화기 초기에 일본 유학을 보낸 탓에 서양식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일본에서 교육받은 이들 중에는 당시 급속하게 전파된 사회주의에

21) 여순사건은 삼산면 전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초도를 비롯해 손죽도와 소거문도의 여순사건을 여기에서 한꺼번에 다룬다.

심취한 사람들도 많았고, 이후 이들은 거문도뿐만 아니라 삼산면에서 진보적인 좌익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²²⁾

14연대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섬에 전해지자 해방 이후 모임을 통해 활동해온 좌익을 중심으로 경찰과 우익인사를 잡아 지서에 가둬두기도 했으나 그 이상의 피해는 없었다. 이후 1948년 10월 27일 여수가 진압군에게 완전히 탈환되고, 삼산면 초도 출신인 이봉희 함장을 앞세운 진압군이 삼산면 거문도로 들어오면서 경찰과 우익인사들이 풀려났다. 군경의 진입으로 치안이 확보되자 경찰은 섬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거문도 출신인 김덕운을 의용경찰로 채용하였다. 이봉희 함장의 해군과 함께 좌익 및 부역혐의자 색출을 시작하게 되었고, 혐의자에 대한 즉결 처형과 함께 여수로 이송을 시작하였다.

여순사건으로 인한 삼산면 희생자의 대부분은 거문도 사람이 많았는데, 대다수가 군함을 타고 여수로 끌려간 후 처형되거나 형무소에 수감된 뒤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경우였다. 이중 서도리의 박규학은 청년단을 조직해 거문도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하다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섬을 빠져나가 행방불명되었고, 죽촌의 김동필, 박천수, 강금춘 등 알려진 좌익 활동가들은 진압 과정에서 특경에 의해 즉결 처형을 당하였다고 알려졌다.

거문도 청년들이 14연대에 입대한 것은 하용남이라는 4연대 출신 14연대 병사가 모병을 했기 때문이었는데, 하용남은 사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14연대 군인이라는 이유로 처형되었다. 당시 생존자 임길동이 오동도 앞에서 LST를 이용한 처형과 수장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삼산면의 혐의자 색출 과정에서는 검거 후 많은 주민이 여수로 끌려갔는데, 이 과정에서 혐의자들은 마을 인근이나 뒷산으로 숨었다. 이렇게 숨은 사람들을 검거하기 위해 이봉희 함장은 군함 두만강호를 타고 와서 가족이나 친지를 동원하여 혐의자를 설득했다. 하지만 자수하면 목숨은 건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믿은 혐의자 대부분은 처형되거나 형무소에서 복역하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형무소재소자로 학살당했다.

이 때문에 이봉희 함장은 진압 초기 임길동 등 14연대 군인들을 살리기도 하고, 초도에서도 고향 사람을 많이 살렸지만,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는 삼산면이 고향이라는 이 함장의 설득과 가족들의 권유로 자수하였으나 결국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피해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봉희 함장은 후일담에서도 상부의 말을 믿고 자수자 대부분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며 희생자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기도 했다. 이봉희 함장은 사건 이후 거문도 여성과 결혼했고, 제대 후에도 거문환이라는 여객선 선장으로 삼산면 주민들과 함께 생활했다.

22)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피해실태 보고서 1집> 1998

한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과 여순사건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다. 삼산면의 보도연맹 첫 번째 희생자는 청년단 활동을 지도했던 박규학과 그의 가족 등 5명이었는데 경찰은 그들을 근처 무인도인 삼부도 검둥여로 끌고가 총살하였다. 이중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던 오경복의 경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총살 후 수장시켜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이후 거문도 고도의 신사터에서도 경찰에 의한 학살이 이어졌다. 거문리의 이봉심의 남편은 좌익 활동을 하다가 은신해 있었는데 경찰에 검거된 후 이봉심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살되었고, 임신부였던 본인마저 현장에서 총살되었다.

국민보도연맹원 학살 시기에 은신처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경찰은 그들을 잡기 위해 주민들을 동원해 산을 뒤져 동도의 칼등바위 인근에 숨었던 혐의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서도리의 김재량은 거문도에서의 특별한 활동은 없었으나 타지에서 좌익 활동을 했다고 하여 검둥여에서 총살당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씨가 도피 생활을 하는데 음식과 도움을 주었다며 고모 집안과 그 사돈 집안 8명이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에 의해 집단 학살되었고, 가족이 죽어가는 충격적인 상황을 보며 늙은 노모가 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거문도의 여순사건 희생자²³⁾는 다음과 같다.

거문리

송대구, 김기열, 김성용, 김옥진, 김일용, 김철동, 박복선, 이봉심, 이봉심 남편, 이주학, 임용길, 최점옥, 최종심, 황순환

서도리

강귀현, 김동필, 김수봉, 박귀학, 박포인, 배형호, 김경호, 김만용, 김중호, 김충제, 김흥기, 배형기, 이귀현, 정용당, 최풍년, 신명석, 이종성, 김재량, 김재량 처, 김재량 1남, 김재량 2남, 강귀정, 강남태, 김대기, 김대성, 김필성, 박병학, 박성국, 오경복, 오氏 子1, 오氏 子2, 오氏 妻, 오태문

덕촌리

송대구, 김기열, 김성용, 김옥진, 김일용, 김철동, 박복선, 이봉심, 이봉심 남편, 이주학, 임용길, 최점옥, 최종심, 황순환

동도리(죽촌, 유촌)

한정암, 김길수, 김덕○, 김덕술, 김덕신, 김덕신, 김동천, 김윤환, 김정암, 김중선, 박대기, 박대윤, 김포동, 박병규, 박복천, 박성천, 박승천, 박우열, 박천수, 방장남, 배소근, 배순희, 조경술, 조산석, 조향구, 한권홍, 최현주, 김동탄, 김창제, 김평제, 김흥기, 박병춘, 박용운, 박인윤, 박인철, 박재열, 박천수, 신재성, 신재울, 윤재휴, 이매근, 임하옥, 한규복, 김광수, 김동구, 김동민, 김동섭

23) 희생자 관련 자료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발간한 <여순사건 피해실태 보고서 1집> 자료와 제1기 진화위 자료 및 손죽향토지, 초도향토지를 바탕으로 작성함

(2) 초도의 여순사건²⁴⁾

1924년부터 여수에서 나로도~손죽도~초도 의성항~거문도~제주항을 격일제로 운항하던 여객선이 있었는데, 1948년 10월 20일부터 여객선이 끊어졌다. 의성리 이주환 씨의 옷상점에 라디오가 있어 “여수에서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네” 소문이 퍼져서 객선이 못 온 줄 알았다. 한편, 초도에서는 광주 4연대에 있던 대동리 출신 백정인 중사의 소개로 5월에 김갑천, 박구환, 박기웅 3명이 14연대에 입대하였는데, 10월 중순 의성리 김갑천은 정신분열 증세로 제대하였다.

여순사건이 발발하고 며칠 후 초도의 윗소리²⁵⁾하는 박두회가 주민들에게 “동네 사람 다 들어보시오. 오늘은 혁명군들이 들어와서 인민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어른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동각 마당으로 나오랍니다. 안 나온 사람은 죽인다고 하니 어서 나오십시오.” 하고 외쳤다. 평소와 달리 떨리는 목소리로 세 번 외치고 가는데, 여수에서 여순사건이 일어나서 마구 죽인다는 소문에 긴장하고 있었고, 간밤에 총소리가 나고 시끄러워 잠도 설친 어른들은 인민재판한다는 소리에 더 놀라 두려워 떨며 동각 마당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뒤에 알고 보니 14연대 군인이 아니고, 고흥에서 배를 타고 들어온 남로당원들이었다. 이들이 마을을 장악한 후 인민군이 해방시켰다는 선전·선동을 하면서 며칠을 보냈다. 주민 김승복 씨는 동네 사람들을 살려주었다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남은 쇠고기를 소금에 절여주었고, 그들이 거문도로 가겠다고 하자 방정대의 배에 태워 거문도에 내려주고 배만 돌아왔다.

며칠 후에 대동리 출신 이봉희 대위가 정장을, 정갑주(갑원) 중위가 기관장으로 있던 해군 두만강호가 정박하였다. 두만강호의 군인들은 어른들과 뱃사공 방정대의 말을 들어보고, 바로 거문도로 가서 좌익 활동가들을 붙잡아 갔다. 며칠 후 두만강호가 거문도에서 초도, 손죽도로 다니며 당시 급하게 만들어진 남로당원 명부에 적혀있던 삼산면 사람들을 체포하여 여수로 싣고 나갔다. 초도의 여순사건 희생자는 9명인데 박선동, 박동호, 허창기, 강상규, 배기옥, 김한두 등이 여수에서 희생되거나 징역을 살다가 한국전쟁 때 희생되었다. 김수남은 다행히 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만기 출소하였다.

의성리 박선동은 초도어업조합 옆집에 살았는데 의성리 인민위원장으로 여수에서 희생되었

24) 『초도향토지』에 수록된 여순사건 이야기는 편저자인 김충석 전 여수시장이 본인의 경험과 주민들의 증언을 조사하여 수록하였다. 반란 등 일부 표현을 여순사건으로 수정하고 일부 내용은 편집, 요약하였다.

25) 마을의 중요한 소식이나 주민 소집 등을 목소리가 크고 좋은 사람이 마을에 정해진 장소를 돌며 외치는 행위. 확성기가 없던 시절 많은 마을에서 윗소리꾼이 주민에게 소식을 알렸다.

고, 김승태는 부위원장으로 모진 고문으로 왼쪽 어깨뼈가 부러졌지만, 시종일관 무고를 주장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왔으나, 평생을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였다.

14연대 군인 박구환은 벌교에서 뼈라를 보고 자수하여 재판받고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50년 1월 하순 형 박재환이 김상신 소위의 도움으로 면회하고 와서, 석방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국전쟁이 발생하자 형무소에서 사살되었다.

여순사건 관련자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1949년부터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 이들은 거문도에 있는 삼산지서로 데리고 가서 가끔 교육받고 돌아왔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여수와 나로도까지 점령되고 낙동강 전투가 한창이던 1950년 7월 말경, 거문도에서 배가 와서 초도에서 20여 명을 삼산지서로 신고 갔다. 진막리 박수봉은 인품이 훌륭하고 덕망이 높았는데, 나로도에서 피신해 온 고종사촌을 숨겨주었다 하여, 거문도 출신 의용경찰 김덕운에게 모진 매를 맞고 9월 1일 사망하였다. 대동리 김상곤 씨의 증언에 의하면 진막리 박기웅은 14연대에 입대했다가 죽었고, 강동기는 이봉희 함장이 살려주었다.

그때 여수수산학교 학생들이 많이 가담했었는데, 진막리 박강호는 수산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오동도에 잡혀가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이봉희 함장이 찾아와서 “삼산면 학생들을 데리고 나오라” 해서 살았다고 하였다.

거문도 임길동 씨는 14연대 군인이었지만 살아남았는데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조사할 당시 “그때 두만강호를 타고 갔던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이봉희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14연대 군인이었던 우리도 살렸는데, 일부로 고향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른 사람들을 잡으러 갔겠습니까?”라고 증언하였다.

초도 희생자

강상규, 강수남, 김귀봉, 김기대, 김종순, 김한두, 박갑세, 박고안, 박동호, 박선동, 박성민, 박수봉, 박수봉 사촌, 박양구, 박은태, 배기옥, 배영옥, 허창규

(3) 손죽도와 소거문도의 여순사건

초도와 손죽도의 경우는 같은 삼산면이지만 거문도보다 육지 방향으로 가까운 고흥의 영향을 많았다고 알려졌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고흥인 홍양 발포만호진에 소속되었고, 섬들만 묶어진 홍양의 제도면(諸島面)에 소속되기도 하다가 1896년부터 1914년까지는 돌산군에 속하였다. 이

때문에 이 두 지역은 고흥의 나로도나 발포 녹동과 교류가 빈번한 지역이었다. 소거문도에서도 해방 후 고흥의 나로도나 발포 지역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좌익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손죽도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 어업조합 이사로 있던 이모씨의 투서로 희생되었다고 알려졌다. 좌익으로 알려졌던 이문재는 경찰에 의해 손죽도에서 타살되었고, 초도 진막의 박수봉은 경찰에 쫓기는 고종사촌을 숨겼다 하여 의용경찰에 의해 거문도지서에서 타살당했다. 손죽도와 소거문도의 여순사건은 『손죽향토지』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손죽도와 소거문도의 여순사건을 『손죽향토지』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손죽도 송을룡 씨의 증언에 의하면 “박영주 동서가 손죽도에 와서 우리집에 머물자고 했는데 만일 일이 잘못되면 온 가족이 다치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었다. 그리하여 똑바쪽 삼각산 주변에 숨어 있다가 소거문도로 피신했었다.”고 한다. 이정현 씨는 “처음 손죽도에 왔을 때 우리 집 뒤편에 보이지 않도록 숨겨놓고 약 1개월간 밥을 주었다가 삼각산 쪽으로 이동했었다.”고 증언했다. 이연재 씨는 “박영주의 좌익성향에 의해 소거문도 청년들 일부가 설득되어 손죽도에 24일 먼저 들어왔을 것이 틀림없다.”고 증언했다.

1948년 10월 25일 거문도 김동필 등 4명이 무장을 하고 ‘이수구리’배로 오후 5시경 손죽도에 진입하여 소거문도에서 온 박영주 등과 손죽리 리사무소를 점거했다. 거문도까지 잡혀갔다가 풀려나서 살아났던 김종득 씨는 이렇게 회고했다.

“박명희, 이옥렬, 송남재 등과 학교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었는데 똑딱선 한 척이 인공기를 달고 총을 몇 발 쏘면서 손죽도에 들어오기에 모두 리사무소로 갔었다. 도착하자 곧 무장한 사람들 4명이 총을 들고 들어왔으며, 그들 말이 38선이 터져서 모두 점령되고 손죽도만 남았다고 했다. 그렇게 손죽도를 장악한 김동필 일행은 초도에도 들러 초도도 장악하였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10월 27일 여수시내가 완전히 진압된 후 이 소식이 알려지자 거문도 지서의 지서 요원들은 오후 3시경 거문도 지서에서 손죽도 해상에 대구리배를 띄우고 김동필 일당을 무혈 항복 받아 체포하여 거문도로 수송해갔다.”

김동필 씨를 체포한 거문도 지서는 그 전모를 밝힌 후 충무공호를 초도와 손죽도 및 소거문도에 차례로 보냈다. 당시 협박에 의해 강압적으로 조직된 인민위원회 조직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갔다. 단 한사람 이문재만 산으로 도망쳐서 모면했다. 충무공호로 잡혀간 사람은 박명희, 송을룡, 박강우, 송남재, 박주완, 이옥렬, 이종표, 김종득, 박방군 등 9명의 손죽도

청년과 소거문도의 김봉안, 방봉운, 전동수 3명이며 평도의 송용섭, 송홍섭, 송중배, 송추성, 김강오 등 5명으로 모두 17명이었다.

거문도 지서에서 일주일 후 손죽도 송을룡, 박방군, 김종득이 풀려났고, 평도의 5명이 풀려났다. 여수에서 이종표가 풀려나서 모두 9명이 풀려났고 8명이 사살되었다.

손죽도 희생자

김대동, 김봉안, 박강우, 박명희, 박주강, 박주안, 방봉운, 송남과, 송남재, 이문재, 이복근, 이옥열, 전동수

4) 초도의 초분(草墳)

초분은 세계적으로 시베리아로부터 대만, 오키나와 열도, 인도네시아, 태평양 제도, 아메리카, 아프리카 일부 지역 등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으나 풍장과는 다른 형태의

장례문화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에 따라 초빈, 외빈, 초장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초도에서는 외분, 출분 등으로 많이 불렸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서남해와 다도해 지방에 광범위하게 분포하였으나 가정의례준칙이 발표된 후 서서히 사라져갔다. 여수지역에는 금오도의 초분이 널리 알려졌는데 초도에도 초분이 상당히 많았다.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미리 정해놓은 자리가 그 해에 고인과 운세가 맞지 않으면, 바로 매장하지 않고 초분을 하였다. 한편으로는 매장하려면 반드시 못자리를 사들여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있었다. 다만 초분을 마구 쓰지 않았는데 어린이가 죽었을 때나 어른이라도 물에 빠져 죽었을 때, 변사하거나 횡사한 경우 등에는 초분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초분을 만들 때는 인가와 떨어진 양지바른 곳에 돌로 단을 촘촘히 쌓고 그 위에 관을 잘 모시고, 소나무로 튼튼히 고정시켜 가지로 촘촘하게 입은 뒤에 솔갱이로 엮고, 벗짚으로 날개를 엮어 초가지붕을 만들듯 아래서 위로 덮어씌워서 비는 막고, 바람은 잘 통하게 하였다.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가정집처럼 해마다 벗짚을 엮어 지붕을 다시 이었다.

후손들이 갈 때마다 초분에 솔잎을 꽂아 뒤서 몇 번이나 왔다 갔는지 알았고, 3년이 지나 백골만 깨끗이 남게 되면 원래 모시려던 자리에 모시든지 그동안 잡아 놓은 자리에 이장하여 모셨다. 그러나 어부들 사이에 전해지는 금기 때문에 3년이 훌쩍 넘어 이장할 때도 많았다. 집에 유고가 없어야 하며, 집안에 해산할 여인이 있는 해, 홍역, 천연두 등 환자가 생긴 해, 삼재가 든 해, 돌잡이가 있는 해, 집을 새로 지어 성주(상량신)를 모신 해, 배를 새로 건조한 해에는 이장하지 않았다.



초분기사



초분

초도의 초분이 불태워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초도에 콜레라가 만연하자 경찰이 초분을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목하고 가장골을 수색해 20여 기의 초분을 불태워버린 것이다. 1970년대 들어 정부에서 초분을 쓰면 이중경비가 들고 여름철엔 악취를 풍기는 등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초분 폐지 계몽운동을 펼치자 1980년대 이후 서서히 사라져갔다.

5) 초도 대동리의 영트기

초도는 오랜 역사를 가진 마을답게 민주적 절차와 지혜가 담긴 개트기 제도가 전해진다. 개트기는 다른 지역에서 주로 영을 튼다고 하며 물 때에 맞춰서 갯가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말한다. 초도 주민의 중요한 생계수단이었던 개트기는 주로 여성들이 하던 일로 개트기를 하면 해안선 곳곳의 갯가로 나아가서 ‘갯갯’을 하였다. 반면에 남성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당시에는 남성들이 부엌일을 기피 하던 것처럼 해산물 채취를 기피하여 주로 여성이 담당했다. 해산물 채취를 하던 해안은 갯바탕이라 불렀다. 초도에서 채취하는 해조류 종류로는 바위에 붙어있는 김(해우), 미역, 툫, 참물, 청각, 파래, 감태, 가사리와 전복, 꾸죽, 해삼, 군소, 굴, 홍합, 담치, 보찰(거북손), 배말(삿갓조개) 등의 조개 종류였다.

툫과 전복은 값이 나가는 해산물로 상인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해산물 채취는 무한정 수확이 가능하지 않아 계절과 시기, 물때에 맞춰서 갯바탕의 출입을 막고 채취를 금지하였다. 이렇게

해안선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개를 막는다’ 라고 했는데 정해진 시일이 지나면 해산물 채취를 허락하는 ‘개트기’를 했다. 이렇게 개를 트는 것을 ‘영을 트다’ 거나 ‘개를 트다’고 하였다. 개를 트는 날이면 해산물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소문난 지역으로 남들보다 빨리 가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마을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이면 일찍 걸어가면 되지만 초도 본섬에 딸려있는 작은 섬의 갯바탕은 배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함께 갈 사람이 정해지면 한 척의 배에 여러 개의 노를 걸어서 여성들도 함께 노를 저어서 목적지로 향했다. 오랜 세월 이렇게 운영되던 마을 영트는 날의 풍경은 마을 사람들 간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어 대동리 마을에서는 대동리 마을의 반을 12개로 나누고 갯것 할 장소를 12개의 구획으로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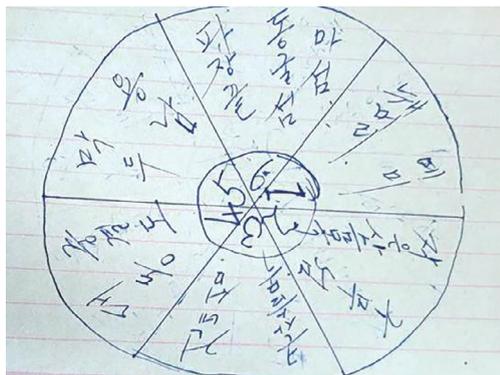
1구역	막두 (幕頭)
2구역	준저리 (中結島)
3구역	큰동네 (大洞)
4구역	누에머리 (蠶頭)
5구역	이미 (曳尾)
6구역	용섬남쪽 (龍南)
7구역	파장골 (波場)
8구역	둥글섬 (圓島)
9구역	큰사슴목 (大鹿)
10구역	건네섬 (渡島)
11구역	작은사슴목 (小鹿)
12구역	구무섬 (穴島)



초도 대동마을의 갯바탕 교환 순서도
(사진은 마을 수첩의 갯포 순서도)

다음의 사진은 열두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진 지역 이름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던 초기의 자료로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되어서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정해진 구역은 매년 한 구간씩 돌려가면서 선택구역간 차이에 대한 불만도 해소토록 하였다. 대동리의 열두 구역은 그림과 같이 나누어졌다.

1구역	누에머리, 예미
2구역	작은사슴목, 구무섬
3구역	큰사슴목, 건네섬
4구역	대동, 종결도
5구역	막두, 용남
6구역	파장골, 둥글섬, 마섬



1980년대 이후 갯바탕 교환 순서
(사진은 마을수첩 갯포 순서도)

일제강점기부터 툇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상품이 되어 가장 수입이 좋은 해산물이었으나 해방이 되면서 수출길이 막혀 한동안 주민들은 주 소득원을 잃어버린 경험을 겪었다. 다행히 1966년 일본으로의 수출길이 다시 열리면서 툇은 중요한 해산물 수출상품이 되었다. 이후 1980년대까지 대동리 마을에서 개트기를 한 후 가장 수입이 좋은 해산물은 툇이었으나 1980년대 산업화와 핵가족화가 되면서 젊은 주민들은 도회지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게 된 주민 중에 일을 할 만한 젊은 사람은 매년 감소했다. 갯바탕으로 벌어먹던 초도의 섬살이 사정도 많이 달라졌다. 그동안 12개로 나누던 갯바탕 교환 순서도 인구 감소로 대폭 줄어들어 6개 구역으로 축소되었다.

갯바탕을 6개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은 넓어졌지만 이미 노인이 되어버린 대다수 주민은 예전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정해진 구역을 갯포라고 불렀는데 갯포마다 갯포장을 두어서 관리하도록 하여 대표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갯포장을 맡게 되면 해산물 채취 작업 시 한 사람 몫을 더 갖도록 하여 책임감을 느끼게 하였고 작업할 때마다 배를 동원한 사람도 한 몫을 더 갖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쓰레기와 환경 오염이 진행되어 황폐해진 남해안의 바다 사정도 풍요롭지 못해 전국 최고의 수입을 올렸다는 영화롭던 초도의 옛 사정과는 멀어졌다.

2000년대 이후 대동리 마을의 갯바탕 교환조건은 대폭 변하였다. 2000년대 대동리 마을 앞 큰 방파제가 만들어진 뒤 마을주민들은 총회를 열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채취할 사람이 없어져 공동 어업이 어려워지니 주민 중 해산물 채취 사업이 가능한 사람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갯바탕을 교환하는 갯포 운영안이 바뀌었다. 이 시기에 갯포는 3개 지역으로 나누었는데 초도 큰 섬을 ‘본 섬’ 또는 ‘몸 섬’이라 부르는데 ‘몸 섬’ 지역을 한 지역, 섬 외곽지역의 부속 섬을 한가지, 그리고 해녀들이 일하는 작업 구역을 한가지 해서 3개 구역을 나누고 행사계약자에게 임대하기로 했다. 2022년 대동마을 이장으로 선출된 김진수 이장은 대동마을 갯바탕 운영 조건에 변화를 주었는데 마을 주변 갯바탕을 모두 임대하고 나니 주민들의 반찬거리 수확도 힘들다는 어려움을 받아들여 대동마을 방파제 인근 바다 일부는 임대지역에서 제외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해산물 채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옛날 농촌에서는 향약이나 두레, 품앗이, 계와 같이 공동체가 함께 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제도를 통해 주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다. 초도 대동마을의 갯바탕을 관리하던 개트기 제도도 옛날 선조들이 오랜 경험을 토대로 생활 속에서 정착시킨 공정하고 평등한 공동체 관리규약 중 한 가지였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는 과정에 주민의 지혜가 녹아있지만 산업사회가 시작되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하게 변화하는 도시화로 아름다운 섬살이를 버리게 되었다. 삭막한 도시 속에서 고향의 아름다운 시절을 떠올리는 향우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옛 개트기가 진행되던 시절의 왁자지껄하던 풍경을 그려본다.

6) 초도의 전기발전²⁶⁾

박정남 씨가 전기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공부하고 진막리 새마을지도자로 선임되자, 상산봉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진막리로 내려오는 물줄기를 막아 수력발전을 하

면, 진막리 80호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진막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사를 시작하였다.

여천군이 670만 원의 댐공사 사업비를 지원함에 따라 1973년 5월 2.5KW 소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진막리 수력발전소는 10월 하순부터 이듬해 4월 초까지 갈수기에 물이 부족해 발전소를 돌리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하면서 실패작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짧게나마 전기 사용이 가능해지자 이에 자극받은 대동마을과 의성마을 사람들은 디젤발전기를 구입하여 전력발전을 하자는 의견이 대두하였다. 의성리에서 1973년 디젤발전기를 후원받아 전력발전을 시작하였고, 진막리는 1976년에 10KW 발전기를 들여와 운영하였으나, 용량이 부족하여 40마력 20kW 발전기 1대를 추가로 들여와 전깃불을 켰다. 대동리에서는 1978년 3월 발전소 건물을 준공하고, 자가발전을 시작하였다. 이후 1985년 발전기 노후화로 교체하였다.

1990년 12월 초도전화사업이 동력자원부에서 확정되고, 1991년 1월 14일 내연발전소건설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8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1992년 12월 26일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다음해 1월 30일 시운전을 완료하였다.



수력발전소 터



내연발전소

26) 초도향우회, 초도초·중학교 총동문회, 『草島郷土史』, 초도향토사편찬위원회, 2020.



1970년대 상도 27)



상도

7) 베트남 난민 상도(庠島) 체류

초도 대동마을에서 북쪽으로 5.9km 지점에 있는 섬으로 면적은 1.5ha이며, 가장 높은 곳이 30m밖에 되지 않는다. 상섬은 예로부터 한자로 ‘윗 상(上)’이 아닌 ‘학교 상(庠)’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정확한 유래를 알기가 어렵다.

다만 지도상 가장 북쪽에 있어 윗섬에서 유래했을 것이라 생각되기 쉬우나 삼산면의 깃대 역할을 했다하여 상섬이라 명명했다고 마을유래지에 전한다.

상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상섬은 물이 좋은 편이어서 주민들에게 식수가 부족하지는 않았다. 경작하는 밭은 집집마다 채소나 푸성귀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짓는 텃밭 규모의 밭들만 있어 밭농사로 힘들게 고생하지는 않았지만 어업이나 깃갯을 주 소득으로 했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다.

일제강점기 당시 상섬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았을 시기에는 20여 호의 주민이 살았다고 『초도향토사』에서 밝히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60년대 경제 발전이 되면서 상섬에서도 한집 두집 섬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후 1970년대 상섬에는 7세대의 주민이 살았다. 대가족이었던 시절이라 부모님과 어린 자녀까지 세대당 7~8명씩 살았으니 40~50여 명이 살았던 셈이다. 해방 후 교육여건이 좋아지면서 초도 대동리로 가야만 다닐 수 있던 학교가 초도국민학교 상도분실로 1969년 9월부터 1984년 말까지 운영되었다.

상도에 베트남 난민 78명이 상륙한 것은 1989년 6월 22일 저녁이었다. 월남전이 끝난 지 15년이 되었지만, 보트피플의 대열은 그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난민들은 베트남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살았으나, 1989년 3월 20일 베트남을 탈출했다. 난민들은 16가족 78명으로 남자 45명, 여자 33명이었고, 이 중에는 임신부와 생후 5개월 된 갓난아이라도 있었다.

27) 초도향우회, 초도초·중학교 총동문회, 『초도향토사』, 초도향토사편찬위원회, 2020.

그들은 30톤급 되는 낡은 배에 몸을 맡기고 정처없이 베트남을 떠나게 되었으나 자유와 생존을 호소하는 이들을 어느 나라도 받아주지 아니했다. 그저 정처 없이 표류하다가 같은 해 5월 7일 47일간의 긴 항해 끝에 경기도 용진군 덕전면 울도 앞바다에 이르러 배의 엔진이 꺼진 채로 표류하다가 우리나라 해경 경비정에 발각되었다.

우리 정부는 난민들의 고장난 배의 수리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시간으로 6월 17일까지만 그들의 정박을 허락하였다. 정박시한이 다 되어 6월 17일 새벽 해경 경비정의 인도를 받으며 난민 78명을 태운 배는 공해상으로 향했다.

이날 밤 10시 10분쯤 이들은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 남쪽 81마일 공해상에 이르렀을 때 난민들은 공해추방에 따른 불만으로 배에 불을 지르고 배에서 한사람씩 바다로 뛰어 들기 시작했다. 경비정에 타고 있던 우리 해경들이 재빨리 구조작업을 실시하여 다행히 인명 피해없이 모두 구조되었다. 불탄 배는 제주에서 수리키로 하고 제주해경의 인도로 여천군 삼산면 초도리 상도에 난민을 상륙시켰다.



베트남 난민들의 임시거처 천막과 빨래 28)



낚시로 부식을 마련한 베트남 난민들 29)

여천군에서는 베트남 난민 긴급구호를 위하여 천막, 식료품, 생필품, 의약품을 긴급 수송했다. 먼저 난민을 수용할 대형 천막 4개를 섬 동쪽 기슭에, 그 반대편에 1개를 설치하였다. 난민들을 가족 친지단위로 분산 수용하였으며, 땅바닥에 골판지를 깔았으나 자갈이 튀어나온 곳도 있었다. 난민들은 베트남을 출발하여 3개월 이상 해상 생활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초췌하고 말라있었다.

상도 섬에는 우물이 1개소로 그나마 4세대 정도가 겨우 취사할 수 있는 양이어서 식수와 생활용수가 큰 문제거리로 대두되었다. 그곳에서 2km 떨어져 있는 초도에서 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급수선도 없고 물을 받을만한 용기도 없어 사선을 이용하여 물통으로 운반해 왔다.

28) 초도향우회, 초도초·중학교 총동문회, 『草島郷土史』, 초도향토사편찬위원회, 2020.

29) 초도향우회, 초도초·중학교 총동문회, 『草島郷土史』, 초도향토사편찬위원회, 2020.

또 장기간의 해상 생활로 각종 질환에 시달린 환자가 속출하여 군보건소와 여수성심병원의 지원받아 진료를 실시하는 한편 여천군 보건소 유기홍 간호사를 상도에 파견 근무토록 하였다. 한편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매일 실시했으나 매우 불결하였다. 간이화장실을 만들어 놓았으나 야간에는 아무 곳이나 실례를 하니 악취가 진동했다. 먹을 것도 충분하지는 못했으나 무엇보다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었다.

상도에 베트남 난민이 상륙한 이후 정부나 전라남도의 지원은 전혀 없고 여천군에서도 예산 과목상 난민구호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주부식을 외상으로 공급하는데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러나 각급 봉사 단체에서 성금과 구호물자가 답지되고 여천군은 예비비 1천만을 전용하여 이들을 구호했다.

상도 인근의 초도와 거문도 서도, 동도 주민들은 난민 상도 상륙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곳 주민들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베트남 난민들에게 한없는 동정을 보내면서 제주도 남쪽 공해상까지 끌고 간 난민들을 하필이면 이곳 상도로 데려온 제주해경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였고, 식수도 화장실도 없고 생활하기에 취약한 무인도서에 장기간 난민을 수용할 경우 전염병의 집단 발생을 우려하였다. 만일 이곳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어패류와 해조류 판매 부진으로 생존에 큰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철저한 방역 활동을 당부하기도 했다.

원래 보트피플은 공산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남부 베트남 사람들이었으나 나중에는 하노이 등의 북부 출신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유엔도 정치망명자가 아닌 경제적 사정으로 출국한 난민은 베트남에 송환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았다.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들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도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은 최근 그들을 위문하고 돌아가는 한국개척선교단 최림성 씨를 통해 한국 정부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꼭 전해 달라는 호소문을 난민대표 명으로 보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라며 과거 한국 정부가 월남의 난민들을 받아들였던 전례를 들어 정착을 허락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5일 제주 해경 대장과 난민들 간에 가진 향후 대책회의에서 선박 수리가 끝나면 식량과 연료를 공급해 준 뒤 공해상으로 추방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그들에게 통보되었다. 그들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막상 추방결정이 통보되자 일순 침착한 분위기로 돌변하여 난민들은 자체 회의를 통해 그날 점심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서로

껴안고 흐느끼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상도에 상주하고 있는 행정 공무원, 간호사, 전투경찰 등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난민들의 단식은 7일 아침 일단 끝냈다.

난민 중 한 명이 “생활고와 압제에 못 이겨 자유를 찾아 탈출했다.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라 제3국에 친척이 있기 때문에 초청만 하면 바로 떠날 것”이라면서 스웨덴에 살고 있는 동생의 주소가 적힌 쪽지를 펼쳐 보였다. 그러나 당국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들의 체재 희망국이 미국 20명, 캐나다 13명, 영국 4명, 한국이 41명이나 돼 쉽게 떠날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난민들이 옳드려 살려 달라고 애걸하는 장면이 저녁 TV 뉴스 시간에 방영되고 매일 같이 각급 신문에 베트남 난민 구명 대책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공해추방은 인도적 차원에서 용납하기 어렵다며 적절한 구명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7월 24일~25일 양일간 방콕에서 열리는 베트남 난민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이들을 수용할 국제캠프촌이 지정되면 그곳에 수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후 국제간의 교섭을 마치고 1989년 8월 16일 난민 89명(상도에서 아기 1명 출산)은 삼산면 상도에서 56일 만에 떠나게 되었다. 이들은 해경 266함으로 여수에 도착하여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난민 수용소로 보냈다.

1992년 베트남과 수교 당시 잔류 난민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이 충돌했다. 정착지를 찾지 못했던 잔류 난민 150여 명은 미국인 사업가 존 매너(당시 신발업체 이사)씨 부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뉴질랜드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한다. 뉴질랜드 정부가 잔류 난민의 이민을 수락하면서 18년간 이어진 베트남 난민의 부산 생활도 막을 내렸다. 1993년 1월 29일 부산 베트남 난민 보호소 난민 환송식과 현판 하강식이 함께 열렸다. 뉴질랜드로 떠나기 전 한 난민은 환송식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민의 인정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한국을 제2의 조국으로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라고 외쳤다.

3. 섬 생활의 변천

초도국민학교는 1936년 사립 초도보통학교로 인가되었다. 이보다 이른 1923년 사립 손죽보통학교가 인가를 받았다. 1953년에 소거문분교장이 설립되고 1959년 의성, 진막 분교장이 설치되었다. 1985년 손죽국민학교가 초도국민학교로 편입되면서 의성, 진막, 손죽, 평도, 광도, 소거문분교 등 상당히 많은 분교를 거느린 학교가 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분교가 폐교된다. 학교의 설립과 분교 통폐합 등은 곧 초도와 주변 섬 지역의 정주 인구를 말해주는 지표가 된다.

초도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2021년 기준 580명³⁰⁾이다. 2018년 375명에서 2019년 380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이다. 1960년대 조사에서 초도의 주민 수는 3,196명이었다. 이후 1976년 3,063명으로 정점을 찍고 해마다 사람이 줄어들다 2018년 375명으로 줄어들었다. 모든 섬의 공통적인 특징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소멸 위기까지 온 것이다.³¹⁾ 그러나 초도는 2019년부터 인구가 소폭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이유는 풍력발전의 마을 발전기금 분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뭄에 바닥을 드러낸 저수조 ³²⁾

30) 여수시통계 등에도 가장 최근의 자료라고 해도 2018년 이전의 자료이다. 위 자료는 “아주경제” 2021년 1월 8일 기사 - “초도가 어디에 위치한 섬이죠?”에 나온 수치이다.

31) 손죽도 향토지 p.187 참고

32) 초도향우회, 초도초·중학교 총동문회, 『草島郷土史』, 초도향토사편찬위원회, 2020.



중선을 타고 여객선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초도 주변에는 유인도인 장도(長島), 원도(圓島), 무인도인 중결도(中結島), 대마도(大馬島), 용도(龍島), 솔거섬, 안목섬, 말섬 등 작은 섬들이 있다. 조금 떨어져 손죽도, 평도, 광도 등 큰 섬들이 산재해 있다. 북서 해안의 대동리를 비롯하여 서쪽의 진막리, 동쪽의 의성리 세 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서쪽에 대동 해수욕장, 남서쪽에 정강 해수욕장이 있다. 대동리에서 시작하는 일주 도로는 이들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

여수여객선터미널에서 엘에스쇼핑의 파라다이스호가 있고 녹동항에서 철부선 평화훼리5호가 취항한다. 배를 이용할 때는 같은 배로 같은 거리를 가도 비용이 다르다.

이는 중선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중선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도 중선비를 일괄적으로 받는 것 때문에 한때 논란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중선비라는 용어는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중선은 운행된다. 방파제 시설이 열악해서 큰 배가 바로 선착장에 접안할 수 없던 시절의 중선 개념과는 많이 다르다.

그 시절에는 큰 배가 선착장에 바로 접안할 수 없어서 작은 배로 다시 내려 선착장으로 접안을 해주던 것을 중선이라고 하였다. 중선이 운영되던 시절에는 중선이 전복되는 사고를 비롯해 각종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지금은 시설이 현대화되고 선착장이 방파제 등과 수심이 깊은 곳까지 연결되어 큰 배가 바로 선착장에 접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배를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다. 다만 갑자기 많은 짐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동 편리를 봐주기 위해 배가 들어올 때면 트럭이 대기하고 있다. 이것이 중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가. 초도의 생업

1) 초도의 특산물

특산식물이란 특정 지역에만 분포하는 식물로 ‘한국특산식물’은 우리나라에서만 자라고 있는 고유한 식물을 말한다. 우리나라 특산식물은 1854년 독일의 탐험가 설펜바흐가 처음으로 버드나무와 철쭉을 채집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네덜란드 식물학자 미켈에 의해 최초로 보고되었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식물학자 나카이 다케노신이 총 1,118분류군으로 발표한다. 해방 이후에는 1983년 이창복 박사가 407분류군, 2005년 국립수목원에서 328분류군, 2007년 한반도 속식물지가 289분류군으로 각각 발표하였다. 그러나 특산식물의 근거 기준과 지리적 분포, 학명의 합법성, 분류학적 문제 등에 있어 한반도 특산식물의 종수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특산식물 목록의 재검토가 이루어졌다.³³⁾

초도에는 규정에 의한 특산식물은 없다. 다만 초도와 손죽도 등지를 중심으로 포근한 햇살과 미미한 해풍을 맞으며 싹튼 양질의 쑥이 생산되고 있다. 쑥은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나 자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도는 나물용의 생쑥은 주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채취하여 판매하며 쑥가루는 연중 판매하고 있어 초도의 특산식물로 회자되고 있다.

2) 밭농사

대동마을은 ‘구미’, ‘읍동’, ‘읍포’, ‘큰 마을’ 등으로 불렸다. 초도에서 가장 큰 마을로 삼산면의 최고봉인 상산봉을 중심으로 지대가 완만하고 토질이 비옥하여 작은 섬에서는 보기 어려운 논농사를 짓고 있다.

밭에는 수수, 조, 보리를 주로 심었다. 1916년 거문도에 입항한 일본 군함에 실린 고구마를 서울에서 벼슬하다 내려온 원세학 씨가 박노익 씨를 통역으로 데리고 배에 올라가 몽땅 사서 삼산면에 씨고구마를 배급하였다. 고구마는 수확량도 다른 작물보다 월등히 많고 영양도 좋아 주요 농산물로 자리 잡았다. 이 지역에는 고구마를 감자라고 불렀는데 많이 심어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감자로 해결했다. 도시락도 감자를 싸가지고 와서 먹는 학생들이 많았다. 1960년대 이후에는 절간고구마를 만들어 주정용(소주 원재료)으로 많이 팔았다.

33) 국립수목원 2011년 11월 웹진 - “한반도 특산식물 실체를 밝히다.”편

보리, 밀, 옥수수, 수수, 팥, 조(차조와 건조(메조라고도 함)), 콩, 깨, 녹두, 감자(여기서 감자를 하지감자라고 하였다.) 등을 심어서 식량으로 활용하였다. 무, 배추, 상추, 소불,³⁴⁾ 갓, 파, 양파, 당근, 고추, 호박, 박, 오이, 가지, 쑥갓을 심어 반찬을 만들었다.

목화도 많이 심어 길쌈을 하여 어머니들이 낮에 고단하게 일하고 밤이면 베틀에 올라 베를 짜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 황금동 씨가 해방 직후 만주에서 귀향하면서 아편과 엽연초 씨를 가져와서 심었다. 약 없이 민간요법으로 치료할 때는 이 잎을 삶아 먹여 병을 치료하기도 하였다. 잎담배도 많이 심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이를 키우지 못하게 엄하게 단속하여 초도에서 사라졌다.

초도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농사를 지으며 운택한 땅을 일구었으나, 지금은 주민들이 노령화되면서 경작할 사람들이 없어서 경작지가 묵전이 되었다.

3) 논농사

초도에는 산지가 많아 밭은 많다. 논은 대동리와 진막리 사이 대패미에 더러 있었다. 의성리에는 정차무(정창리)와 멸처무, 번돈과 솜너리꼴짜, 깨골창 주변에 약간 있었다. 그러나 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년 내내 쌀밥만 먹을 수 있는 집은 없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나 설, 보름, 추석, 결혼식 때나 쌀밥을 먹을 수 있었다.³⁵⁾



초도의 논 2010

34) 소불 : 부추를 이 지역에서는 소불 또는 솔, 정구지라고 불렀다.

35) 『손죽도향토지』 p.83

4) 어업

초도는 섬의 동쪽과 남쪽의 일부 해안에는 높은 해식애가 발달하여 해안선이 다채롭고 수심이 깊으며 물이 맑은 청정해역이다. 바다에는 근해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멸치, 갈치, 고등어, 피문어, 낙지와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순수 자연산 전복과 소라, 홍합, 전복, 톳, 돌김 등이 주로 잡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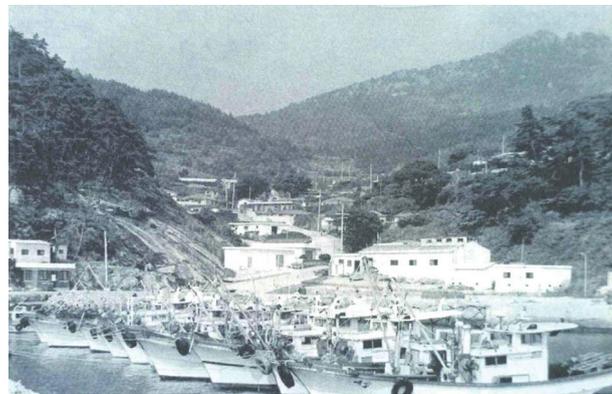
초도는 계절에 따라 김, 미역, 톳, 참물, 파래, 청각, 가사리, 우뭇가사리 등 각종 해조류를 채취하고, 전복, 꾸죽(참소라), 소라, 굴, 담추, 새담추, 배말(삿갓조개), 군부(군뿔), 꿀통 같은 패류와 문어, 해삼, 군소 등을 잡았다. 사시사철 여러 종류의 어류가 많아서 초도에는 “보릿고개에도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조선 세종 때(1441년 11월 22일) 대마도주의 청원을 수락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초양도에 일본인이 낚시를 하도록 허가를 내주었던 것만 봐도, 삼산면 근해가 옛날부터 유명한 황금어장 터였던 것을 알 수 있다.

1920년대부터 일본 나가사키 주민들에 의해 초도에 중선배 어업(안강망)이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나로도도와 초도, 손죽도 주민들이 일본인들의 배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조업하면서 돈을 벌었고, 돈이 모이자 주민들이 중선배를 사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나로도 부근을 비롯해 초도와 청산도 근해에서만 조업하다가 점점 발전하여 철 따라 서남해안을 돌아다니며 조업하여 호황을 누렸다. 초도에서만 60여 척이 넘는 중선배가 있었는데 배를 정박시키는 3리(대동, 의성, 진막) 선창들이 비좁아서 배를 다 넣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1933년에 대동어업조합과 의진어업조합이 생겨 주민들이 채취한 해조류와 어패류를 모아서 팔기 시작하면서 섬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졌다. 안강망 어업이 전성기를 맞아 초도의 경기가 좋아지자 여수나 서울, 일본에까지 중학교를 비롯하여 대학까지 보내는 집이 늘어났다.

초도는 마을의 패류 채취권을 일찍부터 마을 공동으로 하여 마을 기금을 조성하였다. 패류 채취권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전복 채취권이다. 먼 바다에 위치하고 있어 멸치가 많이 나는 시기에 는 멸치 배들이 선창을 가득 메우며 장관을 이룬다.



1970년대 진막리 선창 안의 모습 36)

36) 초도향우회, 초도초·중학교 총동문회, 『草島郷土史』, 초도향토사편찬위원회, 2020.

대동리 포구의 길게 뻗은 방파제는 유명한 낚시터로 각광받고 있다. 주변의 광도와 평도 등도 최고의 포인트로 손꼽힌다. 정기여객선이 없어 생활 편의시설이 없고 불편하기 때문에 초도나 손죽도 같이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내리는 낚시꾼들이 많다. 초도에는 감성돔, 우럭, 볼락, 쾡치, 고등어 등 낚시 어종이 다양하다. 특히 약 300m에 달하는 방파제 끝의 무인 등대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육지 해안에서 바다 멀리 고기를 잡으려 나간 배들이 풍랑 등을 만났을 때 긴급 피난처와 휴게소 역할을 하고 있다.

1959년 9월 사라호 태풍이 지나간 후 10월 10일자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약 3천 명의 주민이 거의 어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해오던 이 섬은 지난번 태풍으로 인하여 대소 어선 55척과 어구 일체를 유실당하였으며, 마을의 대들보로 알려진 280m에 달하는 3개 마을의 선창이 완전히 떠내려가 버려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낮 설은 섬’으로 변해 버렸다. 특히 초도 안에서도 가장 피해가 심했던 의성리에서는 어선이라곤 한 척도 남지 않았으며, 집 잃고, 배 잃고, 굶주린 섬 아낙네들의 눈물 어린 모습과 맥 빠진 어부들의 낮은 그야말로 ‘비참’ 두 글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 기사를 통해 당시 초도의 어선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손죽도의 경우도 어선이 많았을 때는 55척이 있다고 하였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 없다.

얼마 전만 해도 고대구리(소형기선 저인망) 하나 있으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도시 젊은이들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다. 정부에서 일제강점기부터 관행 어업인 고대구리를 부정 어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고대구리, 통발, 삼마이그물 등 바다 어족의 보호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고대구리 어업은 어촌에서 뿌리를 뽑히고 말았다. 거센바람 때문에 가두리 양식도 못하는 초도는 섬 중에서 인구 감소율이 높은 곳 중 하나가 되었다.

김금녀 할머니에 따르면 고흥 시산도에서 아홉 살에 이사를 와 열일곱 살에 결혼하여 11남매를 두셨다고 한다.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이 물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인 초도까지도 처녀를 공출하려고 하기에 빨리 결혼했다고 한다. 1950~60년대 초도의 남자들은 돛배를 타고 위도와 덕적도, 연평도까지 조기잡이를 갔다. 한 번 나가면 보통 5~6개월 만에 돌아오는데 조기가 많이 잡히지 않아서 기껏 번 돈으로 보리 몇 가마를 겨우 사왔다고 한다. 당시 식량이 부족하여 고구마가 점심의 단골 메뉴였고 툇과 쌀, 보리를 섞어 툇밥을 해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었다고 한다.³⁷⁾

37) 한국의 섬-여수시 삼산면 초도편 편집

나. 초도의 생활문화공간

초도에 도착하면 쾌속선의 선착장이 있는 대동마을이다. 대동마을은 각 행정 기관인 출장소와 지서, 수협, 보건 진료소가 있다. 초도초등학교와 거문중학교 초도분교가 자리잡고 있는 초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마을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2017년에 폐교되었다.

대동마을에 내려 선착장을 지나면 대합실이 나온다. 거기서부터 운동장처럼 상당히 크고 넓은 물양장이 시작된다. 이곳에는 가장 깨끗하고 현대화된 초도어민회관이 들어서 있다. 마을의 골목 입구 농협 창고 옆 제법 넓은 공터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몇 그루 서 있다. 그 아래에 정자가 두 동 있고 간이 운동기구도 마련해 두어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대동대합실



초도어민회관

대동마을에서 의성마을과 진막마을을 거쳐 다시 대동마을까지 이르는 일주 도로가 약 7km 정도이다. 예전에는 걷기에 적당한 거리였을 것 같은데 요즘은 크게 걷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연로하여 걸어 다니기에는 부담되는 거리이다. 차가 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주 도로는 섬마을치고는 널찍한 2차선 도로이다. 오가는 차량이 거의 없고 우리 일행의 차만 지나다 보니 2차선 차로도 굉장히 넓어 보인다.

초도에서는 규약을 정해서 섬 발전기금이나 마을기금을 운영한다. 마을에는 주민회가 있고 원주민회가 따로 있다. 원주민회는 마을에 주소를 두고 상주³⁸⁾하면서 마을에서 나오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한편, 주민회는 현재 이곳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 어촌계나 영농회 등은 더

38) 상주의 기준은 1년에 6개월(180일) 이상을 섬에서 살아야 한다. (물론 병원에 입원 등의 특수한 예외 사항도 있지만 그 기준은 다 열거하기는 어렵다)

강화해서 정할 수도 있다. 섬에 와서 섬주민과 동화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외지 사람들이 섬으로 들어와서 주소만 옮겼다고 바로 원주민회에 가입을 해주게 되면 현지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칙만을 따지게 되어 분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준을 정해서 운영한다.

초도의 경우 외지인이 초도에 이사를 오고 주소를 옮긴 경우 10년 이후, 출향민이 다시 귀향하여 주소를 옮긴 경우 3년의 기준을 정해서 원주민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정회원의 기준을 너무 엄격하고 조건을 까다롭게 줬을 경우 유입인구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구 유입을 위해 준회원 제도를 두었다. 준회원은 주소를 옮기고 10년이 경과된 자이다. 다만 가옥을 소지하고 주소를 옮긴 자는 2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준회원으로 승급된다. 준회원은 어촌계 등의 모든 혜택은 적용되나 아직 마을 기금의 분배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을기금³⁹⁾은 통상 1억 원 이상이 모이면 분배한다. 분배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는 것은 기여도 때문이다. 기금을 모을 때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섬에 사는 사람에게 다 주지 않는다. 2년 전인 2021년에는 4억 원 정도를 분배하였다. 김진수 이장도 이 분배에서는 제외되었다. 출향하고 초도에 귀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분배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원칙에 동의했다고 한다. 법률보다 우선한 것이 관습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다. 우리 법에서도 관습법인 자치규범을 우선으로 여긴다. 풍력발전 발전기금의 분배기준은 여기서도 또 다른 기준을 정했다. 우선 마을과 업체가 협약하기 이전부터 섬에 주소를 둔 사람들에게 모두 분배했다고 한다.⁴⁰⁾



대동마을 우물



진막마을 우물

39) 마을기금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모아서 마을 기금으로 쓰고 남은 돈을 모아서 적립된 돈이다. 일시적으로 나오는 풍력발전소의 마을 발전기금과는 또 다른 기준이다.

40) 이상은 김진수 이장의 구술을 정리한 것이다.

초도는 남해안 다도해 한가운데 우뚝 솟은 장엄한 상산봉으로부터 시작된다. 깊은 산과 계곡이 발달하여 어느 곳이나 깨끗한 물이 솟아난다. 물이 나오는 곳이나 나올만한 곳에는 공동 샘을 팠다. 이 물로 마을 전체가 식수와 빨래를 하고 여유 있는 집에서는 집안에 샘을 파서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문제없이 살았다.

초도의 우물은 공동우물이 33개소가 있고, 개인집 우물은 35개소 정도가 있는데, 대동리가 가장 많고, 의성리에도 우물이 많다.



대동마을 사장샘



의성리 동태샘

초도의 샘 ⁴¹⁾

지역	공동우물	개인집우물
대동리	1	28
예미	4	1
큰사슴목	2	1
작은사슴목	2	1
의성리	10	4
진막리	2	0
정강리(정가무)	1	0

대동리 아랫마을 대풍리로 가는 상산봉 쪽에 큰달샘(참샘)이 있었다. 의성리 아랫마을 몽돌 해변의 석간수와 고래작지 진흙더미 언덕에서 흘러나온 동태샘은 약수로 널리 알려졌다. 의성리 안골짜기에 있던 녹강샘은 1933년 김사연 씨가 여수에 사는 친구를 통해 레이자끼 시계오여수군수를 만나 특청하여 전액 군비로 전문가들이 와서 시멘트로 관을 제작하여 준공하였다 한다. 수십 년 동안 잘 써왔는데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이웃집에서 마당으로 편입하려고 매립해 버린 것을 김사연 씨의 후손들이 역사적 유산이라면서 반쯤 파내서 보존하였다.

41) [표1]은 『초도향토사』를 참조하여 편집함.

의성국민학교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김승복 사장이 자기 논이 상산봉 쪽에서 사시사철 흐르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 물을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기로 했다. 김승복 사장이 일본제 PE파이프와 수도꼭지를 구입하여 마을에 기증하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부역으로 의성국민학교와 의성리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하였다.⁴²⁾

초도에서 가장 수원이 풍부한 대풍리(대패미) 위에서 진막리로 내려가는 수원을 활용하여 저수지를 만들기로 확정하였다. 2006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대동리 쪽 계곡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삼산면 초도리 산 2900번지에 2009년 9월 저수지와 정수장을 준공하였다.

초도에는 1980년대 초까지 사람이 죽으면 초분을 했다. 겨울에 땅이 얼어 다루지 못했을 때와 출어 기간이 길어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초분을 하여 시신이라도 보려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초분이라고 시신을 밖에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신을 볼 수는 없다. 시신이라도 보려는 마음이라는 것은 잘못 알려진 얘기가 아닐까 한다.

옛말에 “진 송장은 선산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진송장’이라는 말은 사람이 죽어서 아직 뼈에서 살이 이탈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는 사람이 죽었을 때 바로 묘를 쓰지 않고 초분에 3년 정도 두었다가 시신에서 살이 완전히 썩어서 없어지면 그때 뼈만 골라서 다시 묘를 쓰던 풍속 때문이다.

산상봉 줄기에 따라 크게 3개 마을이 있는데, 다른 마을을 가려면 도보로 약 30분씩 걸어야 한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는 산길을 걸을 때 멧돼지가 출몰하여 산길을 혼자 걸을 수도 없는 실정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물차나 승용차가 60여 대 있었지만, 마을버스가 없어서 차가 없는 주민들은 이웃에게 차를 좀 태워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이웃마을 나들이가 가능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마을버스(행복버스)가 개통되어 운행하고 있다. 마을버스가 운행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이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멧돼지 만날 일도 없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한다. 마을버스 사업은 초도지역발전위원회와 삼산면장, 그리고 여수시의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였다고 한다.

42) 초도향우회, 초도초·중학교 총동문회, 『草島鄕土史』, 초도향토사편찬위원회, 2020. p 49~



대동항에 대기중인 마을버스



마을버스 정류장

초도의 세 마을에선 각각 당제를 모셨다.

대동마을 위 제법 큰 경작지를 가로질러 들어가서 산이 시작되는 초입에 윗당산이 있다. 테두리를 두르고 당집은 돌로 쌓아서 시멘트로 마무리를 한 기둥 없이 통으로 된 한 칸 집이다. 지붕은 기와로 엮었는데 기와가 떨어져 나간 자리를 시멘트로 수리해서 바깥에서 보면 시멘트 지붕 같아 보인다. 진입로 입구는 머윗대가 어른 정강이 정도까지 커서 머윗대를 짓히면서 들어가야 다다를 수 있다. 계단식 좁은 소로를 지나 담 너머에 당집이 있다. 당집 안에는 오래된 그릇들이 남아있다. 정면으로 오른쪽에서 밥을 해 제사를 지내고, 아래 밭에다가 각자의 집안들이 상을 차렸다고 한다.

당집 뒤쪽에 큰 팽나무를 당산나무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생육상태를 봐서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100년 남짓도 안 될 것 같다. 안내를 맡은 김진수 이장에게 물었더니, 역시나 원래 당산나무는 당집 앞쪽 향좌에 쓰러져 죽은 나무이고 뒤에 팽나무는 나중에 후계목으로 나온 나무라고 한다. 당집 앞쪽 향좌에 쓰러진 나무 몇 그루와 향우에 팽나무가 제법 수형을 갖추고 또 한그루 있다. 이 나무도 죽히 잡아도 70년이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동(큰달) 논골 부근의 내연발전소 마당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서 건물 뒤쪽에 아랫당산이 있다.



당집과 팽나무



당집

당신(堂神)은 장도에서 모셔 왔다고 하는데 바로 건너 보이는 곳이 완도이다. 바다의 신으로
는 송진 장군과 해일 선사, 장보고가 있는데 송진 장군은 백제 때 바다를 통제하던 장군이다.
해일 선사는 불교를 포교하던 사람이고, 장보고는 통일신라 때 청해진을 세우고 바다를 장악
한 인물이다.

대동리에서 나와 일주 도로를 따라 직진하면 의성리이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진막리이다.
진막에 들어서니 생소한 용어인 “다라주”라는 상호들이 몇 군데 눈에 띄는데 불교 용어라고
한다. 진막에 “다라주민박”과 “다라주남시”가 있었다.

진막마을에는 1976년에 세워진 수력발전소가 있다.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학교 옆으로 난
넓은 도랑은 상산봉에서 흘러 내려오는 계곡물을 감당하는 도랑이다. 수력발전소가 있는 것
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도랑의 크기를 보니 수량이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할 수 있다.

마을 안에는 ‘진해정(鎭海亭)’이라는 정자가 있다. ‘바다를 진압한다’는 의미였을 것으로 보니
왜구의 노략질이 심했을 그 시절을 상상해 본다. 바닷가 포구로 내려가는 길목 오른쪽은 산이
고 그 아래는 온통 돌밭으로 거대한 바위산이다. 이곳에도 마을 우물이 있는데 아직도 식수로
가능할 것 같다. 포구 옆에 비석은 ‘송당 박정남⁴³⁾선생 공덕비’로, 수력발전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박정남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가장 가까이 있는 섬이 안목섬으로 초도에서 유일하게 바닷길이 열리는 곳이다. 진막리의 자
랑거리로 물이 빠져나가면 안목섬과 진막리를 잇는 육계사주가 된다. 바닷길 열림 현상을 말
하면 사도와 추도 사이의 길을 먼저 떠올리지만, 초도의 신비의 바닷길도 사도의 바닷길만큼
이나 신비롭다.

초도에는 은빛 모래가 일품인 정강해수욕장 외에도 몽돌로 이루어진 대동해수욕장이 있다. 진
막초등학교 학생들은 주로 정강해수욕장과 상산봉으로 소풍을 갔다고 한다.⁴⁴⁾ 진막초교는 폐
교 후 일반에게 분양해서 박충복 씨가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다. 방은 교실을 그대로 개조한 큰
방 4개로 박충복 씨 부인이 정성스레 섬 밥상을 준비해 준다. 건물 향좌에 오래된 소나무가 몇
그루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데 나무에서 학교의 세월을 읽을 수 있다. 학교 운동장 담 아래는
조경수로 싶은 종려(도시로)가 이국적 운치를 풍기고 있다.

진막리에서 의성리로 가는 길은 고개를 몇 번 넘어야 한다. 마을에 진입하면 왼쪽으로 묘 한
기가 있는데 바로 ‘통정대부 온양방공 초도입향조 행적비’이다. 초도에 최초로 들어온 사람은

43) 박정남 : 일제강점기 태어났다. 삼산면 의원으로 마을환경개선, 구판장설치, 마을회관 건립, 상수도시설, 수력발전
소건설, 장학재단 설립 등을 함. -1991년 12월 8일 건립하면서 쓴 비문으로 글은 황하택이 썼다.

44) 진막 펜션 박충복 씨(1964년 생) 증언



대동해수욕장



정강해수욕장

임진왜란 전의 염씨 형제로 알려져 있는데 정작 1600년대 말 통정대부를 지낸 온양 방씨가 초도 입향조 행적비의 주인공이다.

의성 선착장에 다다르니 할머니 3명이 모여 얘기 중이다. 김진수 이장이 “뭘하고 계세요?” 하고 큰소리로 묻는다.

“아들이 배로 나로도로 데려다 준다더니 바람이 서클서클형께⁴⁵⁾뭇간다네. 그래서 여객선으로 갈라고 하네”

고흥 녹동항에서 거문도를 거쳐 여수로 나가는 여객선은 대동리 선착장이 아닌 이곳 의성리 선착장으로 입항한다. 의성리에는 우체국과 마을회관이 있다.

의성마을은 자그마한 어촌 마을이지만 여수 민선 3기와 5기 김충석 시장을 비롯한 많은 인재를 배출한 동네이기도 하다. 마을 입구를 지나 내리막길 오른쪽에는 제법 넓은 공간과 더불어 슬레이트 지붕의 긴 건물이 의성분교 터다. 여기저기 흑염소가 노니는 운동장은 잡초로 무성하고 학교 건물 자체는 완전히 폐허다. 학교 담벼락에는 반공교육이 한창이던 1970~80년대에 썼던 “위장 평화 속지 말고 너도나도 간첩 신고”라는 표어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

의성초등학교는 펜션으로 운영하던 흔적이 남아있다. 현재는 실제로 운영되지 않으며, 현재에 공사하려고 들어오는 인부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사장 인부들의 신발이나 옷가지들이 질서 없이 실내에 어지럽게 널려있다. 건물 바깥쪽의 복도에는 마을에서 찍었던

45) 바람이 약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옛날 사진들을 다시 복사하고 인화해서 붙여놓았다.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지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창 위에 올려진 것도 있으며, 발밑에 튀구는 것도 있다.

한편, 초도의 지명 중에는 ‘정차무’, ‘이서무’ 같이 ‘무’로 끝나는 지명이 많다. 여수지역사회연 구소 박종길 소장은 ‘무는 밀물이면 사라지는 해변’이라 설명한다. 김진수 이장은 ‘무’ 지명이 붙은 데마다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서 아마 물하고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이야기한다.

의성 목너메 황씨네 선산 자리는 도롯가에 바로 보이는데, 철이 지나서 띠는 보이거나 빨기 꽃 은 보이지 않는다. 길 아래쪽 이씨 선산에는 근년에 들어서 묘 한기를 파서 이장을 했다고 한다. 의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의병이 아니어서 집안에서 묘를 이장시켰다고 한다.



상술바위



공사중 데크길

상술바위 가장 위에는 원래 천년 묵은 소나무가 있어 운치를 더했는데 몇 해 전 태풍이 좌우에서 몰아치면서 소나무가 없어졌다고 한다.

경춘 해안가에는 ‘동태샘’이 있다. ‘동태물’은 이 지역에서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 샘은 물이 상당히 많이 흘러내리는데 그 유래에 대해 김동태라는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적어 놓았다. 안내판 유래에서 김동태라고 설명이 적어져 있으나 황동태였다고 하는 등 신빙성이 좀 빈약하다. 아마 물이 많아서 동태물이라는 데서 유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샘 옆에 뉴딜300으로 받은 예산으로 둘레길을 만드느라 야자매트 동태(동글게 말아진 볏짚 등도 동태라고 하였다)가 있어 동태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설명이 되었다.

동태샘이 있는 곳에서 방부목 데크길을 조성하는데 각목이 다른 지역에서의 데크길보다 상당히 크고 굵은 것으로 조성하고 있었다. 인적이 거의 드문 곳이기는 하나 공사를 하다가 아직 데크길을 마무리하지 않고 못을 박지 않은 상태에서 각목만 놓여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들어가지 마세요’나 ‘조심하세요’ 등의 안내문을 붙여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깊숙한 바닷가 돌레길을 굳이 야자매트로 뒤집어씌우며 예산을 쏟아붓는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연스레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길이 만들어지게 하면서 매년 풀을 베는 등 관리하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길 정비할 비용을 조금 남겨놓고 매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길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인 듯싶다.

염소가 사스레피나무까지도 먹어 치워서 한때 생태계까지 위협했지만 이런 걱정도 옛말이다. 요즘은 멧돼지가 염소를 잡아먹어 버려서 염소도 키우지 않는다. 김진수 이장도 염소를 12마리 길렀는데 2마리를 멧돼지가 잡아먹어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키우지 않는다고 한다. 멧돼지는 먼 육지에서 바다를 헤엄쳐 들어왔다. 염소도 잡아먹고 농작물도 씨도 남기지 않고 먹어 치워서 마을주민에게는 골치 아픈 존재이기도 하다.

초도가 번성할 때는 인구가 1,200명 정도까지 되었고 중선배가 76척⁴⁶⁾까지 있어서 매우 부자 동네였다. 김진수 이장의 할아버지 별명이 ‘참빛쟁이’였다고 한다. 참빛은 얼레빛과 달리 촘촘해서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한번 자기 손에 돈이 들어오면 꼼꼼하게 물샷틈없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켜서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다. 선박

1) 여객선

초도를 비롯한 손죽도, 거문도 항로에 투입된 최초의 여객선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일제 화물선을 개조한 삼산호가 처음으로 출항하였다. 이후 1950년대에 장구호, 신라호 등이 출항하다가 1980년대에는 덕일호, 신영고속훼리호 등이 출항하였으며, 이후 순풍호, 갈매기호, 비너스호, 데모크라시 1호, 2호, 오가고호, 줄리아아쿠아호가 계속해서 운항하였다. 현재는 하루 1회 웨스트그린호가 여수에서 고흥 나로도를 지나 손죽도, 초도, 거문도로 운항 중이다. 또한 고흥도양(녹동)에서는 차량을 선적할 수 있는 카페리선인 평화페리 11호(평화해운)가 초도는 주 6회, 손죽도는 주 1회 운항으로 횡수를 줄여서 운항하고 있다.

46) 중선배의 숫자는 사람마다 기준을 말하는 시기가 다르다보니 말하는 사람마다 그 숫자도 다르다.



덕일호



데모크라시오



삼산호



신영고속훼리호



오가고호



평화페리호



조국호



줄리아아쿠아호

2) 선박

초도의 어선 현황은 2023년 초 기준으로 대동마을은 5톤 이하 어선이 6척이며, 일부 무허가어업선이 5척 정도 있다. 의성마을은 5톤 이하 어선이 7척이며, 무허가어업선이 11척이다. 진막마을은 5톤 이하 어선이 12척이며, 무동력선이 5척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감척 사업과 인구소멸로 인하여 어선 수가 점차 감소하였다.

라. 초도 주민들의 생애사

북가북가 강중광 어르신의 북장단

선달 그믐날 당제를 모시고 초하루 설 명절을 지내고 나면 초도 주민들은 마을마다 굿을 했다. 굿은 매구라고도 불렀는데 초도 대동리 마을의 경우 인구가 많았을 때 호구가 300호 정도 되어 우데미와 알데미로 부르는 상촌과 하촌이 나뉘서 굿을 치고 놀았다. 굿은 정월 초이튿날이면 시작되어 보름까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굿판이 이어졌다. 간간이 굿패는 바람재 언덕을 넘어 의성이나 진막마을로 찾아가 걸궁패가 되었는데 이렇게 남의 마을을 찾아가면 누가 굿을 잘 치는지를 겨루는 굿 싸움을 하였는데 요즘 말로 굿 경연을 하여 우열을 가렸다. 굿 싸움은 처음에는 전체 굿패가 겨루다가 팽과리나 북, 장고와 같이 개별로 서를 겨루며 굿 싸움을 하였다. 이렇게 서로 겨루다가 상대방의 소리에 달려가서 소리가 먹혀버리면 지는 것으로 항상 서로 지지 않았다고 싸우는 판이라 대개는 이렇게 소란을 피우다가 함께 술을 먹고 웃으며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강중광 씨는 굿에 소질이 있어서 눈 너머로 익힌 소구를 곧잘 친다고 인정받아 어린 나이에 마을 굿패에 낄 수 있었다고 한다. 굿판에 들어가려면 한복을 입어야만 했는데 어린 나이에 그럴듯한 한복 구하기도 어려워 부모님의 한복을 고쳐서 입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소고를 갖고 전성기의 대동마을 굿판에서 함께 놀았던 강중광 어르신은 별명이 ‘북가북가’이다. 북가북가라는 별명은 강 씨 어른이 북을 잘 쳤기 때문에 불리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고로 시작된 굿패에서 얼마 되지 않아 북을 잡게 되었는데 누구에게 크게 배우지 않았어도 평소 눈썰미가 좋았던지 북 치는 것을 흥내를 내게 되었고 마을 어른들에게 조금씩 배우면서 북을 잘 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한다. 북을 칠 기회는 정월 대보름뿐 아니라 자주 있었는데 특히 고깃배가 만선을 하면 배에다 사물 약기를 싣고 다니면서 만선 굿을 쳤다고 한다. 만선한 배들은 잡은 고기가 많아서 노동력이 필요했기에 굿판을 벌이면 주민들이 달려와 함께 고기 손질이나 일들을 도와주고 생선도 나눠 가질 수 있어서 흥겨운 굿판이 자주 열릴 수 있었다고 한다.

북을 잘 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개인 소유의 북도 갖게 되었는데 새 북을 돈을 주고 사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라 소를 잡는 집들이 있을 때 소가죽을 얻어서 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잘 말렸다고 한다. 이렇게 말려놓은 소가죽이 있으면 ‘통쟁이’라 부르던 북을 만들어 주는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올 때 북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강씨 어르신도 그렇게 개인 소유의 첫



북가북가 강중광 어르신

북을 가졌다. 대동리 마을은 큰 마을이라 풍물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많았다. 마을 굿패는 썰가리, 장고, 징이 최소 2명씩, 북과 소고는 다섯 명, 포수, 대감 등 삼십여 명이 함께 어울렸다고 한다.

정월보름이면 마을 우데미와 알데미가 함께 어울려 용줄다리기를 하였다. 용줄은 며칠씩 주민들이 모아온 짚을 이용하여 주민 모두가 참여할 만큼 길고 크게 만들었다. 주민 모두가 참여했는데 줄다리기는 남자와 여자가 나눠서 줄다리를 했다. 줄다리기에서 남자는 우데미

미에 위치하고 여자는 알데미쪽에서 줄다리를 하는데 여자가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하는 속설이 있어 항상 여자들이 당기는 하촌이 이기는 게임이었다. 일부 주민들은 아래쪽 줄의 일부를 바닷가에 대어진 배의 이물애다 묶어놓고 달려오지 않도록 하는 일도 종종 있었는데 줄다리가 끝나면 재미있게 웃을 수 있는 소재가 되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줄다리가 끝나면 함께 굿을 치며 놀았는데 용줄은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좋다는 속설이 있어 줄다리가 끝나면 일부를 잘라서 사립문 부근이나 세워진 큰 돌에 감아서 집집마다 간직하기도 했다.

지금은 노인들만 남아서 마을의 큰 행사가 있어도 굿판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가끔 여수시립국악단과 같이 전문 국악단이 행사가 있을 때나 들어와 들려주지만, 마을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던 옛 마당놀이나 집집마다 돌면서 굿을 치던 광경은 다시 볼 수 없는 풍경이 되었다고 아쉬워한다. 이야기를 전해주는 강중광 씨의 눈에는 젊은 시절 한 가닥 북을 치고 놀았던 굿판을 그리는 그리움이 묻어난다.

4. 초도의 민속문화

가. 초도의 지명유래

1) 삼산면의 지명

삼산면 지역의 땅이름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란 지리적 여건 때문에 비교적 도시화의 과정을 더디게 거치면서 순박한 토박이말이 상당수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삼산면에는 이름만 들어도 땅의 모양이 짐작되는 땅이름들이 많이 전해오고 있어, 우리말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곳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땅이름은 한자말인 경우가 많다. 한자말은 한자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그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토박이말 땅이름은 땅이름의 본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다. 삼산면은 토박이 땅이름의 보고(寶庫)로서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하늬바람이 불어오는 마을 - ‘하늘담’, 셋바람이 부는 마을 - ‘셋담’, 독(바위)을 안고 돌아야 건너는 곳 - ‘독보듬고 돈디’, 지지미(꽃전, 화전)를 부쳐먹던 곳 - ‘지지미’ ‘손잡고 돈디’, ‘진걸음’, ‘옆걸음’, ‘송곳여’, ‘코바우’ 설명이 없어도 그곳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얼마나 멋진 이름들인가? 그러나 이러한 우리말 땅이름이 조금씩 잊히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마을 서편의 마을 ‘하늘담’이 서편 마을 바다의 소(沼) ‘천을담(天乙潭)’으로 오해되고 동편마을 ‘셋담’은 동편마을 해변의 소 ‘조을담(鳥乙潭)’으로 오인되어 마을을 지칭하던 이름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소(沼)로 뒷사람에게 전해진다. 도시의 간판이 외래어로 도배가 되고 새롭게 건설되는 많은 시설물은 뜻도 모르는 언어들로 이름 지어지는 현실에서 삼산면의 아름답고 고운 고유지명은 우리말 사용의 좋은 사례로 교훈을 준다. 우리말 땅이름을 잘 사용하고 유지시켜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일 것이다.

삼산면의 땅이름의 유래는 삼산면 지역을 직접 방문 조사하여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명을 소리 나는 그대로 기술하였으며 유래는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지금까지 간행된 향토지, 마을유래지, 지명유래지 등의 내용을 참고하고 지명학자들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은 그 내용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조사된 땅이름은 발음되는 대로 기술하여 현지 주민에게서 위치를 확인하고 지도에 표시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삼산면의 땅이름 중에는 이 지역에서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곳이나 지역을 뜻하는 독특한 해양 지명이 많았는데 다음은 유사한 유형의 지명을 삼산면 만의 독특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 유형별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 - 끝, - 코지, - 머리(곶) : 바다나 호수로 가늘게 뻗어 있는 육지의 끝 부분으로 장초 끝, 시냇이 끝, 까막코지, 댕머리 등.
- - 짐, 기미, 찜 (만) : 해안선이 육지로 휘어 들어가 있는 부분.
- - 너리(너울, 너럭바위) : 파도의 물결이나 큰 파도의 물결이 닿는 너럭바위. 신너리, 지검너리 등.
- - 다랭이 : 바위나 돌등이 길게 늘어진 지역
- - 담 : 마을의 어느 지역, 하늘담(동쪽), 샛담(서쪽), 맞담(남쪽)
- - 대이, -냉이 : -쪽, -편 등 방향의 뜻으로 쓰임. 넓대이, 시냉이 등.
- - 데미 : 우데미(상동), 아(알)데미(하동)
- - 도(島, island) : 일반적인 섬
- - 머들(너설) : 해안에 바위나 돌 따위가 삐죽 삐죽 내민 험한 곳.
- - 무, 물 : 썰물이면 드러났다가 밀물이 되면 잠기는 해변. 정차무, 멸초무, 정가무(정강)
- - 바 (바위) : 바위
- - 서(嶼, islet) : 작은 섬
- - 암(岩, rock) : 물속에 잠겨있는 바위
- - 여(礁, reef) : 작은 섬보다 크기가 적은 바위섬 또는 작은 섬
- - 작지 : 자갈로 이루어진 해변, 자갈 밭.
- - 초(礁, reef) : 밀물이면 드러났다가 썰물이면 잠기는 바위
- - 통 : 해안에서 바위가 갈라진 사이가 넓은 지역.

2) 삼산면의 땅이름 유래

삼산이란 이름이 처음 사용된 것은 1896년 돌산군이 설군(設郡) 되면서이다. 조선 초기에는 현 거문도를 고도(孤島) 또는 고초도(孤草島)라 하였는데⁴⁷⁾ 왜인들이 고기잡

이를 위해 잠시 이주해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임진왜란 전후로 하여 우리 주민이 입도한 뒤에 현 거문도를 삼도라 불렀다.⁴⁸⁾ 삼도의 기록이 처음 나타나는 『승정원일기』를 살펴보면 인조 14년 8월 5일자에 흥양(興陽)현의 소개 부분에 “본현의 관할 경역(境域)에 있는 섬으로는 나로(羅老), 절이(折爾), 손죽(損竹), 초도(草島), 시산(示山), 평도(平島), 삼도(三島), 백도(白島) 등이 있는데, 일본의 5개 섬과 바다를 두고 마주 대하고 있어 바람만 불면 돛단배 하나로 각각의 경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처음엔 흥양현 제도면(諸島面)에 속해 풍헌(風憲)이 관장하였고 1885년 거문진을 두어 경락사(經洛使)와 도침사(島僉使)를 두었다가 1896년 돌산군에 포함하면서 삼산면(三山面)이란 이름을 처음 사용하였다. 삼산의

47) 조선왕조실록 세종 5년에 고도(孤島)에 관한 기록과 세종 6년에 고초도(孤草島)에 관한 기록이 처음 나온다.

48) 삼도를 손죽도(巽竹島), 초도(草島), 거문도(巨文島)를 말하는 것이라는 다른 견해도 있으나 조선왕조실록 중종조 18년과 20년 등에서 삼도(三島)와 손죽도(巽竹島), 초도(草島) 등의 동시대(同時代)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삼도는 거문도를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명을 사용하게 된 것은 “삼도는 삼산이 삼도를 형성하는 고로 이름지었다 - 三山面 以郡西之三島三山成三島故名”고 『여산지』⁴⁹⁾에는 기록하고 있다.

(1) 초도

초도는 풀섬이라 부르던 우리말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이름이다. 학자들은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고초도를 거문도와 현재의 초도 두 개의 섬이 합쳐진 이름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거문도와 초도는 해상 거리 20km나 떨어진 다른 섬으로 외섬으로 부르던 고도와 거문도를 이루는 세 개의 섬 중 하나인 서도의 옛 이름 초도에서 고초도라 하였다는 설이 설득력이 있다. 이는 서도를 부르는 다른 이름으로 썩섬(억새섬) 또는 셋뎡불이라는 이름이 일제강점기까지도 전해졌고 썩와 셋뎡불은 억새를 부르는 다른 말로 초도를 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 등의 고문헌에서 인용된 고초도를 옛 초도의 일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흥양의 초도는 성종 8년에 처음 등장하는데 성종 5년과 9년에 계속 고초도가 등장하고 있어 거문도의 옛이름 고초도와 초도는 다른 섬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① 대동리

- 【개(浦)】**
 - 대동리-항[대풍리개안] : 대동리 마을 앞의 배가 닿는 선창
 - 사슴-목-개-안 : 대동마을 동쪽에 있는 해변으로 사슴목에 있는 개
 - 상-섬-집앞 : 초도 북쪽에 있는 상섬의 동북쪽에 있는 개
 - 솔머리-개-안 : 초도 북쪽 용섬에 있는 개
 - 잔-개 : 초도 동북쪽 예미마을 동쪽 해변에 있는 개
- 【곶】**
 - 거머리-곶 : 용섬 서쪽에 있는 곶
 - 건근-밭-곶 : 초도 북쪽 예미마을의 북쪽에 있는 곶
 - 높바람-곶 : 초도 북쪽 건너섬에 있는 높바람(북풍)이 닿는 곶
 - 뇌-머리 : 용섬의 동쪽 해안 끝으로 누에의 머리를 닮은 지형이어서 불린 이름
 - 뇌-머리-안-곶 : 뇌머리 남쪽에 있는 곶
 - 벌-섬-여-곶 : 예미 북쪽에 있는 해변으로 썰물 때 물이 벌어지면 건널 수 있는 벌섬 여가 있는 곶. ‘벌어진 + 섬 + 여’가 합성된 말
 - 성-머리-곶 : 대동마을 앞 남서쪽 해안
 - 솔-머리-곶 : 용섬 남쪽 중앙부 곶
 - 수죽-곶[낭곶] : 대동마을 앞 북쪽의 곶
 - 아래-곶 : 초도 북쪽 건너섬의 남쪽 해변을 이르는 말
 - 용-머리[용두여] : 용섬과 건너섬 사이에 있는 작은 섬
 - 우박-곶 : 작은 사슴목 동쪽 곶(우박곶 앞 취섬이 남자의 성기 형상이고 우박곶 해안이 여자의 성기 형상이라는 얘기가 전해짐)

49) 1899년 돌산군수(突山郡守) 서병수(徐丙壽)가 편찬(編纂)한 군지(郡誌)

- 치-곶 : 용섬 북쪽 해안 중앙부에 있는 곶
- 파장-곶 : 큰 사슴목 북동쪽 곶

- 【굴】**
- 개-굴[모래굴] : 작은 사슴목 남쪽에 있는 굴로 개와 비슷한 수달이 많이 서식하여 개굴이라 부름
 - 거머리-굴 : 용섬 거머리 끝에 있는 굴
 - 탄-타-부치 : 초도 북쪽 벌석여 앞에 있는 굴
 - 불락-구덕 : 용섬 뉘머리 부근에 있는 굴로 불락이 많이 잡혀 이름 붙여짐
- 【논】**
- 춘건네-논 : 대동리에 있는 춘건이란 사람이 소유했던 논으로 약수로 사용했던 샘이 있음
- 【들】**
- 대패미 : 크고 너른 들이란 뜻으로 대팽이(大坪)의 다른 말
- 【등】**
- 새우-굴-다랭이 : 용섬 남쪽 해변 솔머리와 활목 사이의 긴 해안선을 이르는 말로 고래의 일종인 새우가 많이 서식하였던 곳에서 유래함
- 【마을】**
- 예미[曳尾, 이미] : 초도의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로 대동마을에서 약 0.9km 지점에 있으며, 마을의 형태가 거북의 꼬리를 닮아서 이름이 지어졌다는 유래가 전해옴. 예미라는 지명은 남해안 곳곳에 나타나는 이름으로 삼산면에서도 거문도, 초도, 손죽도 등에서 나타나는 지명임. 모두가 섬의 북쪽으로 육지에서 처음 맞는 입구에 있어 섬의 앞쪽이라는 의미가 있음
 - 사슴-목[녹항] : 초도의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대동마을에서 1.2km 지점에 있으며, 마을의 지형이 사슴의 목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졌는데 큰사슴목과 작은사슴목이 있음
 - 정창(正倉)[병첩] : 의성마을 북동쪽 해안으로 임진왜란 때 이곳에 사람이 살았다고 전해지며 풍수지리상 터가 좋지 않아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다고 전함. 수군들의 창고 건물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병참 구실을 하였던 곳으로 추측함⁵⁰⁾
- 【목】**
- 마-섬-목 : 용섬과 말섬 사이를 이르는 땅이름
 - 활-목 : 용섬의 서쪽으로 용섬의 남북 사이가 가장 좁은 목
- 【바위】**
- 칼-등-바구 : 대동리와 의성리 사이의 바람재 동편에 있는 바위로 칼등 모양으로 생겨서 지어진 이름
 - 코-근-바구 : 대동마을 북쪽 낭 끝에 있는 바위로 바닷물이 들고 날 때 바위와 바닷물과의 사이에 공간이 생겨 코를 고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나서 지어진 이름
- 【섬】**
- 간데-마-섬 : 말 섬중 가운데 섬
 - 구무-섬[구명섬] : 작은사슴목 동쪽에 있는 섬
 - 끝-마-섬 : 말섬 중 끝 섬으로 가장 큰 섬

50) 여천군 마을 유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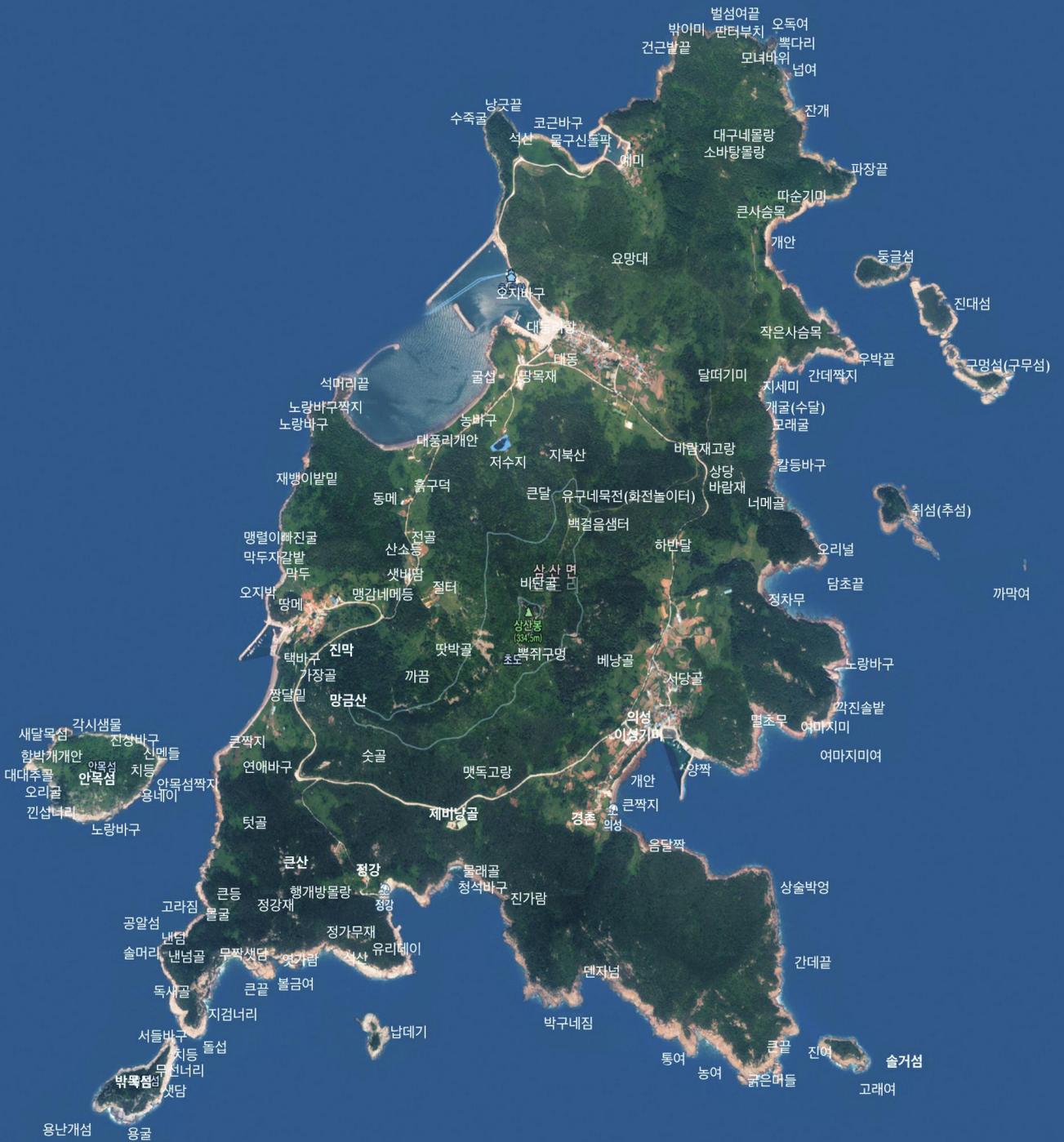
- 동글-섬 : 큰사슴목 동쪽에 있는 섬
- 상-섬(摩-) : 초도 북쪽 20km 지점에 있는 섬으로 삼산면의 깃대 역할을 했다고하여 상섬이라 함
- 술대-섬 : 작은 사슴목 동쪽에 있는 섬으로 “수리 + 대” 섬이 수레처럼 생겨서 한자로는 수리를 수레로 보아 수레 차(車)를 써서 차대도(車大島)로 표기
- 보든-애기[보든아지] : 초도 북쪽(초도리 산 2934)에 있는 섬으로 지형이 어머니가 아기를 보듬은 것 같아서 보든애기라 함
- 용-섬 : 초도 북쪽에 있는 섬으로 섬의 형상이 용을 닮았다 함
- 준-저리[중곶섬] : 초도와 용섬 사이에 있는 섬으로 ‘중 + 커리’ 가 변한 말로 보임
- 진-대-섬[장대도] : 초도 북동쪽에 있는 섬으로 섬이 길게 생겨서 불린 이름
- 첫-마-섬 : 말섬 중 첫 번째 섬

【여】

- 건네-다닌-여 : 상섬 북서쪽에 있는 썰물 시 건너다닐 수 있는 여
- 나무-여 : 상섬과 손죽도 사이에 있는 나무가 있는 여로 ‘큰나무여’와 ‘작은나무여’로 나뉨. 큰나무여는 생긴 모양이 승려들이 쓰던 관처럼 생겨 승관도(僧冠島)라고도 하였고 1916년도 조선지리지자료에 수록됨
- 남-여 : 작은 사슴목 남쪽에 있는 여로 해변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예전에는 사다리를 걸치고 건너다녔다 함
- 떨경-여 : 큰 사슴목 앞 동굴섬의 북쪽에 있는 여
- 불락-여 : 용섬 서북쪽으로 주변에 불락이 많이 서식하는 여
- 북-여 : 용섬 동북쪽에 있는 여
- 상갱이-여 : 상섬 남쪽에 있는 여로 돌고래의 일종인 상갱이가 많이 서식하였던 곳
- 셋-바람-여 : 상섬 동남쪽의 여로 셋바람(동풍)이 닿는 곳에 있는 여
- 숨은-여 : 상섬 동북쪽에 있는 여로 밀물 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아서 부르는 이름
- 애기-여 : 용섬 동북쪽에 북여 곁에 있는 작은 여
- 오독-여 : 초도 북쪽 끝 해안에 있는 여

【작지】

- 술-머리-짜지 : 용섬 남동쪽의 작은 자갈밭 해변으로 술머리와 뉘머리 사이의 작지
- 짜-밭 : 상섬의 서쪽 해변으로 ‘작지 + 밭’의 의미로 작은 자갈밭 해변



- 【지역(곳)】**
- 냇-데이 : 용섬 서쪽 등성이를 이르는 땅이름으로 ‘넓은 + 데기’가 합성된 말
 - 밖-이미 : ‘바깥 + 이미’가 합성된 말로 초도 북쪽에 있는 이미의 바깥 해변을 이르는 땅이름
 - 뽕-다리 : 초도 북쪽 모녀바위가 있는 곳으로 뽕다리는 꼭대기의 지방말
 - 작은-무리(물, 무) : 용섬 북쪽에 있는 해변. 무리(물)는 썰물 때 드러나는 해변을 이르는 해양 지명
 - 큰-무리(물, 무) : 용섬 북쪽에 있는 해변
- 【지역(석)】**
- 굴-석 : 대동마을 북서쪽에 있는 지역으로 ‘석’이란 폭풍우 시 배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을 이르는 우리말로 해안이 굴처럼 생긴 곳에 있는 석이라는 뜻

② 의성리

- 【개】**
- 개-안 : 의성마을 앞에 있는 해변으로 ‘개의 안쪽’이라는 뜻
- 【골】**
- 물-래-골 : 초도 남쪽 정강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물 + 내려온 + 골짜기’의 합성어
- 【곶】**
- 큰-곶에 : 초도 남쪽 경촌마을 동남쪽 해안선 끝
- 【기미】**
- 바구네-짚 : 경촌마을 남쪽 해변으로 ‘바구네’라는 사람이 살았던 해변
- 【너리】**
- 오리-널 : 의성마을 북쪽 해안선 끝으로 오리가 많이 서식하던 넓은 너럭바위
- 【머들】**
- 굵은-머들 : 경촌마을 남쪽 해안선 끝으로 머들은 바위나 돌들이 삐죽삐죽 내민 험한 곳으로 너설을 이르는 지방말
- 【바위】**
- 구시-달 : 의성마을 북서쪽 상산봉 아래의 바위로 소의 구시(구유-먹이를 주는 그릇)처럼 생김
 - 노랑-바구 : 의성마을 북동쪽 해변에 있는 노랑색 바위
 - 상술-바구 : 경촌마을 동쪽 해변 끝에 있는 바위
 - 청석-바구 : 정강마을 동쪽 물래곶에 있는 푸른색 바위
- 【섬】**
- 간대-섬 : 경촌마을 동남쪽 간대 끝에 있는 섬
 - 솔거-섬[率居嶼] : 경촌마을 동남쪽에 있는 섬으로 성산봉에서 내려다보면 솔개 모양으로 생김
 - 취-섬[추섬, 치섬] : 의성마을 동북쪽에 있는 배의 키 모양으로 생긴 섬

- 【여】**
- 까막-여 : 의성마을 동북쪽 취성에 있는 까만색 바위로 된 여로 큰까막여와 작은까막여가 있음
 - 농-여 : 경춘마을 남쪽 해안에 있는 장릉처럼 생긴 여
 - 송곳-여 : 경춘마을 남동쪽 끝에 있는 여
 - 통-여 : 경춘마을 남쪽 해안 통(절벽사이가 갈라져서 건널 수 없는 곳)에 있는 여
- 【작지】**
- 멸초-무-짜지 : 의성마을 동쪽 해안 멸초무에 있는 자갈밭 해변
 - 양-짜 : 의성마을 동쪽 해안 양지쪽에 있는 자갈 해변
 - 음달-짜 : 의성마을 남쪽 해안 음지쪽에 있는 자갈 해변
- 【지역(곳)】**
- 깍진-솔-밭 : 의성마을 동북쪽에 있는 소나무가 우거진 곳으로 '깍진'은 나무가 우거져 꽉 끼여있다라는 뜻
 - 덴-자-넘 : 경춘마을 남쪽 해안으로 내려가는 가파른 언덕으로 '덴(힘이 드는) + 자(산 또는 작은 언덕배기) + 넘(고개)'이 합성된 땅이름
 - 이서-무 : 의성마을 앞 해변으로 밀물이면 잠기는 해변으로 이서무는 '이섬 물'이란 의미로 이섬은 왜인이 자주 와서 살았기 때문에 유래
 - 멸초-무 : 의성마을 동쪽에 있는 밀물이면 물에 잠기는 해변으로 주변에서 멸치가 잘 잡혔음
 - 정찬-무 : 의성마을 북동쪽에 군사시설인 정창이 있었다는 전설이 내려온 곳의 밀물이면 잠기는 해변
 - 진-가람 : 경춘마을 남서쪽의 해변으로 해안선이 길게 뻗어 내린 곳을 이르는 지명으로 '진가람'은 '진 + 걸음'이 변한 말

③ 진막리

- 【개】**
- 무-짜-셋-땅(갯가) : 정강마을 남쪽에 있는 개로 '물이 많은 작지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
 - 함박-개-개안 : 진막마을 남서쪽에 있는 안목섬에 있는 함지박 모양의 개
- 【고개】**
- 정가무-치[정강재] : 진막마을에서 정강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골】**
- 가장-골 : 진막마을 남쪽에 있는 초분이나 돌무덤을 쓰던 가매장지
 - 낸-넙-골창 : 진막마을 남쪽에 낸넙이란 곳에 있는 골짜기
 - 땃-박-골 : 진막마을과 상산봉 사이에 있는 골짜기
 - 성랑-골 : 대동리와 진막리 사이의 고개에 있는 골짜기
 - 숲-골 : 상산봉 아래에 있던 숲을 구웠던 골짜기
 - 전-골 : 대동리와 진막리 사이의 고개에 있는 밭이 있는 골짜기

- 제비-낭-굴 : 진막과 정강 사이에 있는 골짜기
- 탓-굴 : 정강마을 서쪽 해안에 있는 골짜기

【곶】

- 대-대추-곶 : 안목섬 서쪽 곶
- 막-두 : 진막마을 동쪽 해안에 있는 곶
- 솔-머리 : 정강마을 서쪽 해안 끝에 있는 곳으로 솔머리는 산자락이 가늘게 뻗어 내린 산머리를 이르는 땅이름

【굴】

- 독새-굴 : 솔머리에 있는 독사가 많은 굴
- 맹렬이-빠진-굴 : 진막마을 북쪽에 있는 굴로 맹렬이란 사람이 빠진 굴
- 물-굴 : 진막마을 남쪽에 있는 굴
- 오리-굴 : 안목섬 서쪽에 있는 오리가 많이 서식하는 굴
- 용-굴 : 박목섬 남쪽에 있는 수직 동굴로 용이 승천하였다는 전설이 있음

【기미】

- 고래-짐 : 진막마을 남쪽 끝에 있는 해안선으로 부근에 고래가 많이 살아서 불려진 이름

【너리】

- 깐-섬-너리 : 안목섬 남서쪽에 있는 넓은 바위로 이루어진 해변
- 무선-너리 : 박목섬 서쪽 해변의 넓은 바위로 이루어진 해변으로 ‘무서운 너울’이란 뜻으로 큰 파도가 닿는 넓은 바위 지역을 이르는 땅이름
- 박-목-섬-지검-너리 : 박목섬 서쪽에 있는 너리
- 지검-너리 : 정강마을 남서쪽 해변에 있는 너리
- 신-멘들 : 안목섬 북쪽 해변의 바위가 많은 지역으로 ‘신 + 머들(너설)’의 의미로 보임

【등】

- 박-목-섬-치등 : 박목섬 북쪽에 있는 언덕의 등성이
- 산소-등 : 진막마을 동쪽 상산봉 아래에 있는 산등성으로 산소가 있어서 불려진 이름
- 차-등 : 안목섬 동쪽에 있는 언덕의 등성이
- 큰-등 : 진막리와 정강마을 사이에 있는 고개

【마을】

- 정강(정가무) : 진막마을 남동쪽 1km에 이르는 마을로 상산봉에서 물이 흘러 큰 내를 이루는데 강가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정강이라 함

【묘지】

- 맹감네-메똥 : 진막마을 북쪽에 있는 맹감네라는 사람의 묘

【바위】

- 노랑-바구 : 진막마을 북쪽 해변에 있는 노랑색 바위
- 노랑-바구(안목섬) : 안목섬 남쪽 해변에 있는 노랑색 바위
- 서들-바구 : 박목섬 북서쪽 해변의 너설지역을 이르는 이름
- 연애-바구 : 진막마을 남쪽 고라짐 위쪽 도로변에 있는 바위로 청춘남녀가 자주 만나는 지역이어서 불려진 이름

- 오지-박 : 진막마을 서쪽 해변에 있는 바위
- 진상-바구 : 안목섬 북쪽 해변에 있는 긴 상모양으로 생긴 바위
- 택-바구 : 진막마을 앞 서쪽 해안에 있는 사람 턱 모양의 바위

【산】

- 까끔 : 진막마을 뒷산을 이르는 땅이름
- 망금-산 : 진막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 뒷산
- 석-산 : 정강마을 남쪽 해변에 있는 맥반석 광산으로 지금은 폐광됨
- 큰-산 : 정강마을 북쪽 상산봉 아래의 산봉우리

【산정】

- 행개방-물랑 : 정강마을 서쪽에 있는 고개
- 각시-샘물 : 안목섬 북쪽에 있는 샘물로 물이 좋아서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고 전함

【섬】

- 공알-섬 : 진막마을 남쪽 고라짐에 있는 해변으로 해변이 둥글게 파이고 공알(여성 의 성기)처럼 생겼다고 함

【섬】

- 박-목-섬 : 진막마을 남쪽에 있는 섬으로 썰물 때에는 목이 드러나 건널 수 있음
- 새달-목-섬 : 안목섬 북서쪽에 있는 새의 목처럼 가느다란 지형
- 안-목-섬 : 진막마을 남서쪽에 있는 썰물 때 목이 드러나는 섬
- 용-난-개-섬 : 박목섬과 용의 전설로 인해 불려지게 된 박목섬의 다른 이름

【여】

- 발간-여(불금여) : 정강마을 남쪽에 있는 여로 조류로 인해 ‘불금불금’ 보였다 안보 였다 하여서 불려지게 된 이름

【작지】

- 노랑-바구-짜지 : 진막마을 북쪽 노랑바구가 있는 자갈밭 해변
- 막두-짜지 : 진막마을 앞 북서쪽에 있는 자갈밭 해변
- 안목섬-짜지 : 안목섬에 있는 자갈밭 해변
- 큰-짜지 : 진막마을 앞 남서쪽의 긴 자갈밭 해변

【지역(곳)】

- 납대기 : 정강마을 남쪽에 있는 바위섬으로 바위의 모양이 납대기(수리)처럼 생겼다 함
- 낸-넙 : 정강마을 서쪽 고라짐에 있는 해변
- 동매 : 진막마을 북쪽 성낭골에 있는 큰 바위
- 땅-메 : 진막마을 앞에 있는 작은 동산으로 당집이 있어서 불려진 이름
- 박목섬-셋담 : 박목섬의 동쪽으로 셋바람이 달는 지역
- 셋비-땅 : 진막마을 북쪽 비탈진 곳에 있는 마을을 부르는 땅이름
- 옛-가람 : 정강마을 남쪽 해변
- 용-네이 : 안목섬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유리-데이 : 정강마을 남쪽 언덕배기
- 고라짐-구석 : 정강마을 서쪽 고라짐에 있는 움푹 들어간 해안가
- 구렁이-산-밑 : 진막마을 앞 땅메 아래 해변(현 선창)으로 구렁이가 많아서 불림
- 재뱅이-밭-밑 : 진막마을 북쪽 재뱅이라는 사람의 밭이 있던 곳의 해변
- 짱달-밑 : 진막마을 남쪽 큰 짱지에 있는 땅이름
- 돌-섬 : 정강마을 남서쪽 박목섬 건너편에 있는 해안

나. 초도의 설화

1) 모자바위(일명 수리망대) 전설

모자바위는 대동마을 북동쪽에 있는 예미마을에서 다시 북쪽으로 500여m 지점에 있는 바위이다. 전설에 의하면 고기잡이를 나갔던 아버지가 왜군들에게 잡혀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와 아들은 이제나저제나 기다렸으나 끝내 돌아오지 않으므로 지친 나머지 죽게 되어 돌로 변했다고 전해오고 있다.



모자바위

또한, 임진왜란 당시 이곳에 큰 독수리가 살았는데 왜병이 몰려올 기미가 보이면 이 독수리가 먼저 알아차리고 괴성을 지르면서 공중을 선회하였으며, 아군은 이를 이용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였다고 한다. 이후 이 바위를 수리망대라 불렀는데 아버지를 왜구들에게 빼앗긴 아들의 영혼이 독수리가 되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이 바위에 앉아 망을 보아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2) 당제와 풍년

오랜 옛날 대동리에 대풍년이 들었을 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벌레 떼가 몰려들어 수수와 옥수수는 물론 산림까지 먹어 치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주민들은 염씨당에 올라가 제사를 올렸다. 그날 밤 횃불을 든 귀신들이 산과 들을 돌아다니더니 갑자기 우박이 쏟아졌으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벌레 떼들이 바닷가로 씻겨 내려와 모두 죽어 있었다고 하며 이로 인해 이 마을은 풍년을 맞이했다고 전한다.

3) 호랑들팡(호랑이 바위)

대동마을 바람재에서 상산을 오르다 보면 4부 능선에 대동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호랑이 생김새의 바위가 있다. 옛날 상산봉에는 육지에서 건너온 호랑이 한 쌍이 살고 있었는데 수놈 호랑이가 먼저 병들어 죽었다. 그러자 암놈 호랑이는 슬픈 나날을 보내다

가 외로움을 달래고자 항상 이 바위에 올라 육지를 바라보며 울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달 밝은 밤에 호랑이는 죽은 수놈 호랑이가 몹시 생각나 큰소리로 “어흥”하고 울자 산울림이 되어 여기저기서 “어흥어흥”하는 소리에 자기보다 더 무서운 짐승들이 쫓아오는 소리로 착각하여 혼비백산 달아나다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이후 마을사람들은 이 바위를 ‘호랑돌팡’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4) ‘상술박영’에서 죽은 처녀

초도 의성리 건너편에서 동쪽으로 쪽 뻗어난 산자락 끝에 ‘상술박영’이라는 높은 절벽이 바다와 접해 있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무시무시하고,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 때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무서운 곳이다. 배를 타고 바다에서 볼 때는 수직 절벽이 펼쳐지는 곳에 붉은 글씨가 두어 줄로 10여 자 써 있는 것이 보이고, 그 아래 약간 옆에 사각형 바위에는 주먹으로 쳐서 움푹 패인 것 같은 모양이 몇 개 눈에 띈다.



상술박영

여기에 얽힌 전설은, 아주 먼 옛날 장래를 약속한 처녀, 총각이 아주 사이 좋게 살았는데, 언제 부턴가 청년이 다른 처녀를 좋아하면서 이 처녀를 홀대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사정해도 한번 돌아선 총각의 마음을 되돌려 놓지 못해 분을 참지 못한 처녀는 저주를 퍼부으면서 상술박영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데, 총각이 가는 곳마다 뱀이 쫓아다녀 총각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죽은 처녀가 뱀이 되어 복수하는 것이라면서 수군대고 모두 두려워하면서 총각이 자기들 집이나 어디든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이 날마다 집으로 가나 들로 가나 뱀이 쫓아 와서 옆에 꼬아리를 들고 혀를 날름거리고 고개를 쳐들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는가? 자기가 좋아했던 처녀가

원한을 품고 복수하기 위해 뱀이 된 것이 틀림없다 확신하고 죽은 처녀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리 사정하고 빌어봐야 소용이 없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로 결심하고 나서자 뱀도 뒤따라 상술박영까지 따라왔다. 청년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면서 손끝을 깨물어 절벽에 유언을 써 놓고도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주먹으로 바위를 치고 바다에 뛰어내려 죽은 것을 보고 뱀도 바위에 부딪히면서 물에 떨어져 죽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5) 벼락 맞은 이무기

초도 의성리에서 잠등을 넘어 멀치무를 지나 여마지미 끝에 가면 붉은색으로 물든 절벽이 나오고 절벽에서 20여m 떨어진 곳에 50~60m 높이로 하늘을 쳐다보고 우뚝 솟은 붉은 색 돌기둥이 있는데, 이곳에 예로부터 벼락 때린다는 전설이 있다. 아주 먼 옛날 이무기 두 마리가 살았는데, 한 마리는 용이 되어 승천하였으나, 나머지 한 마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오래 기다려도 기회가 오지 않았다. 참다못한 이무기는 어느 날 하늘을 향해 욕을 퍼부었다고 한다. 그러자 갑자기 마른하늘에 구름이 끼더니 소낙비가 퍼붓기 시작하자 “아! 내가 이제 용이 되어 승천하는구나” 하며 좋아하면서 몸을 사려 하늘을 향해 힘껏 솟구쳐 오르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뇌성 번개가 치며 벼락을 쳐서 이무기는 그 자리에서 돌이 되고 그 일대는 이무기 피가 번져 바위가 붉은색으로 물들고 말았다고 한다.

6) 은혜 깊은 팽나무

의성리에는 노거수 팽나무가 다섯 그루가 있었다. 그중 가장 오래되고 흠도 없는 바닷가 벼랑 위에 분재처럼 서 있는 팽나무가 있다. 담으로 둘러싸고 좋은 흙으로 채웠는데 이 팽나무의 수령이 500년이 넘었다고 전한다. 매년 정월 초이튿날 이곳에서 당제를 지냈다.

1959년 추석에 사라호 태풍으로 바닷가의 집과 선창과 배들이 모두 부서졌고 팽나무도 바닷물에 젖어 죽었다. 정치망어업을



의성팽나무

하던 사장이 선원들에게 술을 마실 때마다 팽나무에도 한 잔씩 부어 올리도록 하였다. 그러자 두 해쯤 지나 죽은 줄 알았던 팽나무 가지 끝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였다.

얼마 후 정치망 사장이 병이 들자 팽나무 목신이 그의 꿈에 나타나 한약방 한 곳을 알려 줬고, 그곳을 찾아가 약을 지어 먹자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말이 널리 퍼져 죽어가는 나무에는 막걸리가 특효약이라는 것이 소문이 났다.

7) 목섬의 용굴

진막마을 남서쪽에는 안목섬과 박목섬이 있는데, 안목섬은 썰물 때 육계사주로 초도 본섬과 연결되고, 박목섬 남쪽에는 용굴이라는 해식동이 있다.

어느 해 영등사리 때 마을 아낙네들이 안목섬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돌아오던 중 거북이를 만났는데, 거북이가 다음과 같이 애원했다. 박목섬에 천년 묵은 용이 사는데, 용왕의 미움을 사서 승천하지 못하고 있으니 용왕님께 제사를 올려줄 것을 부탁했다. 마을 사람들이 용왕님께 정성스럽게 제사를 올리자 이듬해 영등사리 때 용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다.

8) 사랑바위

대동해수욕장 부근에는 ‘사람 인(人)’ 모양을 하고 나란히 기대고 있는 검은 바위가 있다. 이 바위에는 금슬 좋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오고 있다.

먼 옛날 젊은 부부가 육지에서 이곳으로 건너와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면서 평생을 약속하고는 섬에 정착하여

오랫동안 다정하게 살면서 백년해로하다가 바위로 변했다고 한다.

지금도 부부가 거닐던 해변에는 그들의 발자국이라고 얘기되는 흔적이 있고 바위 사이에서 나란히 앉아 청춘남녀가 사랑을 맹세하면 평생을 바위가 된 부부처럼 변치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사랑바위

다. 초도의 민요

1) 초도 뱃노래

바다로 둘러싸인 초도에서의 전통적 생계 수단은 약간의 농업과 바다를 이용한 고기잡이 정도였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설과 노래 등이 나타났는데, 초도 사람들이 부

르던 뱃노래가 대표적이다.

대동마을에서 준저리(중결도)로 해우하러(김 채취) 갈 때, 배를 저어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물살이 썰고, 남들보다 빨리 도착해야 더 많은 김을 채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합쳐 노를 저어야 했다.

따라서 민노 2명, 하노와 젓노에 2~3명, 가위노 2명 등 최대 10명이 함께 노를 저으면서 나아가는데, 서로 호흡이 맞아야 사람끼리 부딪치지 않고, 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노래를 불러 조정하는 것이며, 3부 합창 형태의 돌림 노래이다.

대동마을 남성들이 조기를 잡으러 먼바다로 갔을 때,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여성들의 몫이었다. 따라서 해우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채취할 수밖에 없었다. 거문도 뱃노래는 주로 서도·동도·고도로 둘러싸인 잔잔한 바다 위에서 고기잡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친 물살을 헤치고 나가야 하는 초도의 뱃노래와는 그 맛이 다르다. 또한 민노만 나이 많은 남성이 저었고, 나머지 노를 여성들이 저으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점이 특징적이다.⁵¹⁾

어양 (어양) 어양 (어양)

이어디야 자 (아이) 어디디야 자 (아이)

남극 끝은 가져가고 진절도(중결도)는 멀어진다.

이어디야 자(잘도 간다.)

웃나 배는 잘도 간다.

앞산은 가져가고 뒷산은 멀어진다.

이어디야 자(잘도 간다.)

(이어디야, 이야디야)

51) 여수시·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관광자원해설서』, 이레기획, 2008, 107쪽.

2) 노 젓는 소리

어야디아. 어이야 어이여. 어여 디여 어이야 어이여.
우리나 배는 잘 도나 간다. 어디야 어디야 어이여.
어서 바빠 노를 저어 어장터로 달려가세. 어디여 어이야 어이여.
대려라 대리고, 어디야 어디야 어이여.
맞춰라 맞춰 어디여 어이야 어이여.
우리나 선원들 노 잘 전다. 어이 야디어 어이야 어이여.
어서라 어스고 어디야 어디야 어이여.
맞춰라 똑바로 가자 어디여 어이야 어이여,
다와간다 다와가 어디야 어이야 어이여.
젓노들은 빼 올리고 어디야 어디야 어이여.
민노만 저어보소 어야디아 어디야 어이여,
다왔네 다 왔어 민노도 빼 올리소 어디야 어이야 어이여.

3) 어로요(漁) / 만선타령 / 가래소리⁵²⁾

어이야 가래여 어이야 가래여. 어이야 디엿차 가래로구나.
어이야 가래 여, 경진년을 맞이하니. 어이야 가래여.
복도 많고 돈도 많다. 어이야 가래여.
새해 철을 맞이하여 어이야 가래여.
만선 노래나 불러보자. 어이야 가래여.
이 가래가 누 가래냐? 어이야 가래여.
ㅇㅇㅇ네 가래로세. 어이야 가래여.
한식 철을 맞이하여 어이야 가래여.
조기잡이를 하여 보세, 어이야 가래여.
만선기를 높이 달고, 어이야 가래여.
어장터에 당도하니. 어이야 가래여.
물결마저 잔잔하다. 어이여 가래야.
이물 사공아 돛을 내려라. 어이야 가래여.
돛을 놓고 그물을 흘리니. 어이야 가래여.
뻘다. 뻘다. 불등이 뻘다. 어이야 가래여.
어허 동등 불등이 뻘다. 어이야 가래여.

52) 초도향우회, 초도초·중학교 총동문회, 『초도향토사』, 초도향토사편찬위원회, 2020. - 1993년 봄 초도 대동리 287
황하선이 부르고, 초도초등학교 오재관 교감이 채록

선원들아 당겨보자. 어이야 가래여.
만선이다. 만선이다. 어이야 가래여.
조기 갈치가 만선이다. 어이야 가래여.
이물 사공아 호기를 하여라. 어이야 가래여.
만선기 달고 입항을 하자. 어이야 가래여.
입항하여 독판장 보니, 어이야 가래여.
상자마다 황금일세. 어이야 가래여.
도장원이요 도장원이라. 어이야 가래여.
전라도에 도장원이요. 어이야 가래여.
그럭저럭 파 장구치고, 어이야 가래여.
만선타령을 마쳐보세. 어이야 가래야.
어기여차 가래로구나 어이야 가래!

돈 실러 가세 돈 실러 가세.
황해도 연평 바다로 돈 실러 가세.
불었다 불었다. 갈바람 불었다.
연평 바다에 갈바람 불었다.
어서들 가세 어서들 가세.
연평 바다로 어서들 가세.
앞바람은 막고 뒷바람은 받아
연평 바다로 어서들 가세.
우리나 서방님이 명태잡이를 가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 열흘만 불어라.
우리 낭군 고기잡이 못 떠나간다.

물질할 때 부르는 노래
한 손에는 두레박 들고 또 한 손에는 지창 들고,
한질 두질 쑥 들어가니 요만 길이 불명하다.
썰물에 천 냥, 들물에 천 냥, 만 냥을 벌어서
밭을 살거나! 집을 살거나!

4) 초도의 화전놀이

일반적으로 손죽도의 화전놀이가 유명하지만, 인근의 초도에서도 화전놀이를 하였다. 해마다 음력 삼월이 되면 길일을 택하여 3개 마을이 따로따로 화전놀이를 했다. 그 날 하루를 위하여 음식을 장만하여 며느리나 어머니, 시어머니, 시할머니 움직일 수 있는 부녀자들은 대동리는 바람재를 지나 상산으로 올라가는 하반달에서 화전놀이를 했고, 의성리는 새물 잠등에서 했으며, 진막리는 상산봉을 올라가는 정골에서 화전놀이를 했다. 화전놀이를 통해 노래하고 춤추면서 하루를 마음껏 즐기고 내려오면 새로운 활력을 얻어 1년 동안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초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화전놀이하는 대동리 부녀자들 53)

라. 초도의 음식문화

초도에서는 주로 보리와 고구마, 쌀, 가루버무리 등을 주식으로 먹었다. 과거에는 대동리와 진막리 사이에 있는 대패미와 의성리 깨골창과 숨너리골짜기 주변에 논이 있어 벼농사를 짓기도 했다. 현재는 보리농사도 짓지 않고, 텃밭에서 마늘, 양파, 깨, 고추, 가지, 호박, 콩, 옥수수, 쑥, 상추, 부추, 파, 당근, 시금치, 배추, 무, 더덕, 열무 등을 키워서 음식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소매 품앗이, 풀베기 품앗이, 팥감 품앗이 등 마을에서 품앗이가 활발하였다. 품앗이는 주로 여자들이 담당하였다. 전답이 많지 않아 바다에서 생산되는 어패류는 고흥, 장흥, 여수 등 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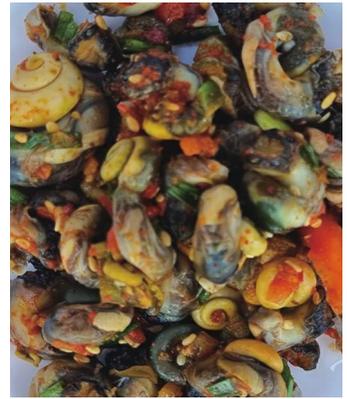
53) 초도향우회, 초도초·중학교 총동문회, 『초도향토사』, 초도향토사편찬위원회, 2020.



자리돔



풀치조림



고동무침

지와 서로 물물교환 형태로 주식과 바꾸어 먹었고 구릉이나 언덕에서 화전을 하여 수수, 좁쌀, 보리, 콩 등과 같은 곡물을 생산하였다.

간장과 된장을 담가 먹었고, 자리돔이나 멸치젓갈 같은 발효식품도 만들어 먹었으며 호박, 고구마, 팥 등도 심어 부식으로 활용하였다. 쑥 나물과 쌀을 섞어 만든 갱죽도 주식이나 다름없었다.

갈치나 삼치, 방어, 부시리 등이 인근 바다에서 잡혀 초도 주민들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소득원이었다. 상품이 되지 않는 풀치(새끼 갈치)는 가정에서 반찬으로 조림으로 만들어 먹었다.

마. 초도의 신앙

1) 초도의 당제⁵⁴⁾

(1) 대동마을 도제(都祭)⁵⁵⁾

초도 대동마을 당제의 역사는 알 수 없으나, 아랫당(할머니당) 주변에서 백자 접시 조각과 청화백자 조각이 발견

되어 임진왜란을 전후한 400여 년 전부터 전승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도 대동마을 당제는 이촌향도 현상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유출됨으로써 당제를 모실 수

54) 『여수시 도서지역 무형문화유산조사 보고서Ⅱ』, 2014, 여수지역사회연구소

55)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대학원 문화산업학과 대학원생 김진수 씨와 공동 조사한 자료이며, 이후 대학원 논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있는 비용 문제 및 제주(祭主)의 힘겨움 등이 반영되어 1980년대 초 중단되었다가 2012년부터 당시 이장 부부가 선달그믐날과 추석 2회에 걸쳐 다시 모시고 있지만, 과거 당제 형식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당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초도 남쪽에 위치한 완도군 장도(長島), 즉 ‘진섬’에서 모셔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제의 중심지였던 웃당(할아버지당)과 아랫당(할머니당)이 보존되어 있다.

초도초등학교 남쪽에는 대동마을에서 이루어진 큰 애경사의 중심지였던 사장 터가 있었으며, 동·서·남·북 4방향에서 자라던 500년 정도의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할머니 나무로 불리는 한 그루만 남아있다. 그 옆에는 사장샘이 있다.

섬사람들의 생활은 바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셋바람이 불면 파도가 크게 일어 고기잡이 뿐만 아니라 김, 미역, 툇 등을 따는 갯것도 힘들어진다. 태풍도 셋바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바람재에는 셋바람을 막기 위해 의성마을 쪽과 하늬바람을 막기 위해 대동마을을 향해 쌓은 바람재성이 있어 겨울에도 이곳은 항상 따뜻하였다. 의성마을 사람들은 대동마을에서 바람재성을 쌓은 이유가 대동마을의 북이 의성마을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쌓았다고 믿었다.

바람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어느 해 풍수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대동마을을 찾아와 이곳 땅의 생김새가 곡식을 까 부는 키와 같이 생겨 의성마을 쪽에서 바람이 불면 곡식 쪽정이나 김불뿐만 아니라 낱알까지도 바다로 날아가 버린다. 때문에 대동마을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지형이므로, 나쁜 바람을 막고 좋은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 바람재에 성을 쌓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어 성을 쌓게 되었다.

여수시 삼산면 초도출장소, 거문중학교 초도분교장, 농협 등의 행정 기관이 대동마을에 설치됨에 따라 바람재성과 관련하여 의성과 대동마을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두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공사로 인해 사라졌다. 제주(祭酒)와 제사 음식을 만들던 물을 공급한 큰달샘(참샘)은 저수지 공사로 없어졌다.

선달그믐날 매성이(마을 사람들은 ‘매생이’라고 함) 부르기로부터 시작해서 정월 대보름까지 이어진 마을 축제였던 대동마을 당제가 전승되지 못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많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옛날과 똑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복원하기를 원하고 있다.

① 당제의 준비 과정

음력 10월이 되면, 동네일에 성실히 참여하고, 굶은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로 당제를 주관할 제주와 나발(마을 사람들은 ‘영초’라고 부름), 날라리, 쇠, 징, 북치는 사람과 음식을 나를 지게 끈, 햇불잡이 2명을 마을 유지들이 선정했다.

제주로 정해진 뒤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는 했으나, 대부분 정해진 제주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제주를 비롯해 당제 참여자들이 정해지면 이때부터 모두 정결한 생활을 했으며, 특히 아이 낳는 집을 금기시하는 ‘지양신’을 가렸다.

선달 보름날부터는 제주의 집과 사장터 할아버지나무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사람들의 주위를 환기시켰으며, 제사에 필요한 술을 담고 음식을 만드는 물을 공급한 큰달샘은 뚜껑을 닫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당제 때 쓸 콩나물은 제주네 집에서 직접 길렀는데, 하루에 세 번씩 큰달샘 물을 길어다 물주기를 하였으며, 콩나물에 물을 주기 전에 부정타지 않도록 반드시 목욕제제를 하였다. 소변을 본 뒤에는 물이 담긴 바가지를 머리 위로 3번 돌리고, 대변을 본 뒤에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나서 콩나물에 물을 주었다.

당제에 필요한 음식은 제사 때 신위(神位) 앞에 놓는 밥, 즉 메와 콩나물국, 시루떡, 도라지, 고사리, 콩나물, 조기와 명태 3마리씩, 사과와 배, 보찰(거북손), 배말(삿갓조개) 등을 섞은 탕으로 대부분 제주 집에서 마련하였고, 생선과 과일은 여수에서 구입하거나, 시내에 살고 있는 친인척이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다.

당제 보름 전부터 닳새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당집을 깨끗이 청소하였으며, 일주일 전부터 제주와 부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여 다른 사람과 말하는 것을 삼갔다. 제주와 부인은 흰색 한복을 입고, 부인은 옥양목 앞치마와 하얀 수건을 머리에 둘렀으며, 흰색 버선을 신었다. 신발은 화장실용과 당제 모실 때 신을 새로 삼은 짚신으로 구분하였으며, 또아리도 새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② 당제의 전개 과정

대동마을 당제는 ‘매성이’ 또는 ‘매생이’ 부르기로부터 시작한다. 선달그믐날 오후 제주와 치배들이 굶을 치고 바람재성으로 올라가 제사를 올리는데, 이때 각 집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모시고 온다고 한다.

바람재성 제사가 끝나면 제주는 오른쪽 길로, 치배들은 왼쪽 길로 내려와 제주가 예전의 초도 출장소 뒤쪽 밭에 서게 되면 치배들이 반대편 밭에서 ‘매성이’를 부른다.

치배들이 남쪽을 보며

“개짐머리, 감기는 영만이(영만도) 바다로 가게 해 주겠는가?”

“모기는 모기백도로 가서 살게 하겠는가?”

라고 외치면 제주는 대답하지 않고 기다린다. 다시 치배들이 중결도가 있는 북쪽을 보며,

“올해에도 해우(김), 툫, 미역, 우무(우뭇가사리)가 잘 자라게 해주겠는가?”

라고 외치면 제주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크게 대답하고 서로 만난다.

대동마을에서 당제 전 ‘매성이’를 부르는 것은 섬이라는 특성에 바탕을 둔 것으로, 재난과 질병 등의 재앙이 물리적인 실체를 지니고 인간의 생활 공간을 오고 간다는 생각에서부터 생겨난 행위이다. 따라서 감기와 모기 같은 마을의 나쁜 기운(액운)은 몰아내고, 돈과 바꾸기가 가장 쉬운 김, 미역 등 해조류를 잘 자라게 기원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풍요와 건강,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초저녁이 되면 제주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사장터 할아버지 나무 앞에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올린 뒤, 다시 음식을 장만하여 사각형의 나무함에 넣고, 소나무 진이 많은 관솔로 만든 햇불을 밝히며 제주와 부인, 치배와 지계꾼 등이 옷당으로 이동하여 당제를 모신다. 이때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각자의 집에서 차례를 모신다.

초경, 이경, 삼경에 맞춰 굿물을 치며, 삼경굿이 끝나면 당제 참여자들만 몰(마을)보기를 하여 각 집의 길흉을 점치고,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집에는 당제가 끝나고 대처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삼경굿이 끝나면 옷당 밑 보리밭에 걸명(대동마을에서는 ‘걸’이라고 함)을 하는데 입도조로 알려진 염씨네는 상을 차리고, 나머지 집안은 밥 한 수저, 나물 약간 등 간략하게 하였다.

옷당제가 끝나면 굿을 치고 마을로 내려와 제주집에서 다시 제물을 준비하여 아랫당 제사를 모시고, 불등 큰 소나무에 제물을 헌성한 뒤 큰 짝밭(자갈밭) 바닷가에 걸을 함으로써 당제를 마무리하였다.

당제가 끝나면 마을에서 제주에게 당제 경비를 지급했는데, 당시 쌀 한 가마니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제주에 따라 받은 당제 비용으로 돼지를 잡아 마을 잔치를 열기도 했다고 한다.

③ 당제 이후의 놀이

선달그믐날 오후에 시작하여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당제가 끝나면 초이튿날부터 우데미(윗마을)과 알데미(아랫마을) 매구패가 학교 운동장에 모여 경쟁적으로 굿을 치다가 지신밟기로 이어진다. 제주집을 시작으로 각각의 집을 돌며 문굿, 샘굿, 정지(부엌)굿 등을 치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음복한다.

정월 초이튿날부터 줄다리기 용줄을 만드는데, 필요한 벗짚은 장흥, 고흥 등지에서 사오는 경우가 많았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세 줄을 꼬아서 암줄과 숫줄을 만들어 정월 대보름날 우데미와 알데미 두 마을 매구패와 줄이 운동장을 돌며 서로 신경전을 펼친다. 이때 마을 유지나 잘 사는 집에서는 용줄에 돈을 끼워 넣기도 하였다.

두 마을 매구패들이 굿을 치고 나가면 남자들이 어깨에 줄을 메고 여성들은 뒤에서 줄을 잡고 이동한다. 알데미줄은 옷당으로 올라가 당할아버지께 잔을 올리고, 우데미줄은 마을을 내려와 아랫당 당할머니께 잔을 올린 뒤 용줄은 갯변(바닷가)에서 암·수 줄 고리를 참나무로 연결하여 남녀 대항 줄다리기를 하였다. 체력적으로 열세인 여성들은 용줄의 가지줄을 배에다 매어 놓고 줄다리기를 함으로써 해마다 여성들이 이겼는데, 이는 여성들이 이겨야 그 해에 풍년과 풍어가 든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다시 물보기를 하여 시거리불(도깨비불)이 보이는 집 지붕에 용줄의 가지줄을 던지는 액막이를 하기도 하였고, 용줄은 불등 소나무 앞에 둥글게 새려 높게 쌓아두었다.

배가 있는 선주들은 선달그믐날과 정월 대보름, 출어하기 위해 배가 떠나는 날 세 차례에 걸쳐 뱃고사를 모셨다. 선장실에는 작은 집 모양의 감실을 만들어 배를 보호하는 신인 배선영을 모셨는데, 어떤 배에는 고운 한복을 두어 여성이 신의 주체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뱃고사는 배의 주인이 음식을 장만하여 바닷가에 진설한 뒤,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 주먹밥 모양의 밥 3개를 한지에 싸서 짚으로 엮은 배에 띄워 보내는 ‘유황’ 의식을 했다. 배가 마을을 떠날 때는 마을 앞 바다를 한 바퀴 돌면서 여름철 깨를 털고 남은 대를 이용하여 ‘깨때불’을 던지는데 그 불이 오래 타고 있는가에 따라 그해 풍어를 짐치기도 했다.

출항 전 선원의 부인이 출산하게 되면, 배의 주인은 밥그릇에 쌀을 담고 그 위에 미역을 올려 선원의 집으로 보냈는데, 아들이면 삼칠일, 즉 21일 동안이었고, 딸이면 삼칠일 중 첫날을 포함시켜 18일 동안 제공함으로써 산모와 갓난아이를 보호하였다.

정월 대보름 이후 고기잡이는 초도와 손죽도 주변과 완도 작약도와 평풍도, 진도 조도 등의 어장에서 이루어졌으며, 봄이 되면 신안군의 도초도, 비금도, 흑산도를 비롯해 전라북도 칠산 앞 바다에서 주로 강달어(깡다리, 황석어, 깡치)를 잡았다. 조기철이 되면 초도에서 곧바로 연평도까지 가서 고기를 잡았으며, 가을철에는 여서도, 청산도, 추자도까지 나가 갈치를 잡았다.

④ 당제와 주민 생활

대동마을 당제는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영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당제를 정성스럽게 모신 제주의 부인에게 물을 본 사람이 “올해 집안에 좋은 일이 있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득남이나 득녀를 한 경우가 많았다.

제보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강중광 씨의 아버지는 중국과 가사리 무역을 하였는데, 여러 여성과의 사이에서도 자식이 없자 손죽도의 과부 김씨를 보쌌(푸대쌌)하여 자신이 태어났으며, 이는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당제를 모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50여 년 전에는 제주의 부인이 샘물을 뜰 향아리를 깨끗이 씻어야 할 행주가 우물에 빠진 것을 모르고 음식을 만들어 당제를 모셨다. 그해 여름 수수 농사가 풍년이라고 믿고 있을 때, 갑자기 시커먼 벌레 떼가 몰려들어 수수는 물론 산에 있는 나무까지 남지 않을 지경이 되었고, 사람들이 마을을 돌아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놀란 제주가 다시 당제를 정성스럽게 모시자 벌레 떼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한다.

대동마을 리사무소에는 당제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 및 마을의 여러 행사를 기록한 -『도제 경비록(都祭 經費錄)』이 보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대동마을에서는 ‘당제’ 대신 ‘도제’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의성마을과 진막에서는 그믐날 간조 때 마을 앞 해변에서 마을의 안녕과 해상 안전, 풍어를 기원하는 당제를 지냈다.

(2) 옛사람 4,000여 명을 모두 되새겼던 대동리 당제

선달그믐날이면 바람재 너머 성이 있던 곳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마을의 조상신을 불러 모은 뒤 마을로 들어왔다. 올해에 해초 수확이나 농사 등이 잘 되게 해달라 그

런 소리를 하고 저 밑에 바닷가에 가서도 치성을 드리고 끝이 난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면 햇불을 만들어서 당집으로 올라갔는데 신기한 것은 햇불의 불꽃 부스러기가 초가지붕 위로 떨어져도 불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주민들은 이를 보고 햇불 불씨가 아니라 귀신불이나 혼불이라고 했다. 당제를 할 때면 혼불이 따라다니는 것을 마을주민들이 자주 보았다고 하는데 특히 마을 동쪽 언덕에서 햇불을 바라보면 혼불이 따라다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한다. 한번은 햇불 행렬을 따르던 불길이 갑자기 다른 집을 들어갔다 이웃집으로 옮겨서 꺼진 일이 있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혼불이 지나간 두 집 모두 상을 당했다고 한다. 그렇게 주민들이 기억하는 혼불은 바다를 통해서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는데 그 불을 ‘궁열이 불’이라고 했다고 한다. 초도 대동리의 귀신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는 노인의 표정에는 “이 일은 내가 직접 겪은 사실이야.”를 강조하고 있었다.

그렇게 마을 바닷가 아랫마을에서 시작된 당집으로의 행렬은 느티나무가 있는 마을 중앙을 지나 당집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있다가 방에 들어가서 새벽이 되면 다시 내려온다. 그리고 당집 앞에 밥을 해 놓고 마름을 깔아놓은 위에다 상을 차리고 조상 대대로 돌아가신 혼령을 살아 있을 때 이름으로 큰소리로 호명한다.

초도에 처음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고 알려진 염씨, 박씨, 강씨 등의 순서대로 조상 이름을 부르는데 몇 시간을 걸쳐서 부르는 그 숫자는 적잖아 4,0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밥을 새워 올해에 죽은 사람까지 부르게 되는데 장가를 가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사람들만 불렀다. 특히 올해에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이 당집 앞에서 함께 했는데 이유는 올해 돌아가신 망인들을 기록해서 불러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대동마을 김진수 이장은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되는 당제 의식이 가끔 소란스럽게 진행이 되기도 했다고 기억한다. 그것은 마을에 살았던 옛사람들을 모두 호명하다 보니 새벽녘이면 호명하던 당주도 너무 지쳐서 이름이 적힌 공책을 잘못 넘기거나 빼먹는 경우가 생기면, “왜 우리 가문을 호명하지 않는가?”라는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크게 있을 때라 듣는 주민들도 한밤을 꼬박 새우며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당제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당주가 부르는데 당주는 마을에 살면서 그해에 상을 당하거나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부정을 타지 않은 사람을 특별히 선정해서 당제를 지내기 전에는 며칠 전부터 몸가짐을 조심하고 몸을 정갈히 하였다. 김진수 이장은 지금은 마을의 돌아가신 분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적힌 공책이 없어졌다며, 당제를 지내지 않게 되면서 낡고 헤어진 공책을 누군가 버렸던 모양이라며 크게 아쉬워했다.

초도와 같은 섬 지역은 바다를 대상으로 생활을 하던 곳으로 항상 대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신으로 삼고 숭배하는 자연숭배의 민속이 오랫동안 전해져 왔다. 대부분 섬마을마다 당숲이 있고 당제를 지내는 것은 비슷하나 대동마을처럼 불을 모셔오는 행위와 돌아가신 마을의 망자 모두를 호명하는 형태는 흔치 않은 형태이다.

2) 불교

초도의 진막리 위쪽 망금산 아래에 있는 성광골(혹은 송광골)은 성광사(聖光寺, 혹은 송광사)가 있었던 터(초도리산 2932-1번지)라고 전해온다. 성광사는 국태민안을 비롯해 지역주민 및 항해하는 선박들과 사람들의 무사 안녕을 빌어 왔으나, 완도에 있던 장보고 장군이 두 번째 반란을 일으키자 암살시키고, 청해진을 없애면서 청해진과 관련 있는 섬에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공도 정책으로 성광사도 문을 닫으면서 사람들도 떠났다고 전해 오나 정확하지 않다.

일설에는 빈대가 많아서 중이 떠나고 폐사가 되었다고도 하는데,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돌을 들어 뒤집어 보면 빈대가 죽은 하얀 껍질이 나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얼마 전까지 부서진 기왓장이 있었다.

3) 기독교

초도 사람으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의성리에 최추식 장로이다. 1953년 여수중학교 3학년 재학시절 이종모, 이철재 씨와 함께 군자동에서 하숙하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1955년 4월 1일 세례를 받았다. 최추식 장로가 이남술 씨에게 전도하였고, 뒤에 이남술 씨가 장로가 된 후 1965년에 의성리에 초도교회를 세웠다. 이후 1970년 대동교회, 1974년 예미교회, 1980년 진막교회가 설립되었다.

(1) 초도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수노회 소속으로 1965년 2월 25일 이남술 장로가 의성리에 초도교회를 건립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삼산면 초도리 1367번지를 매입하여 교회당을 신축하고 2011년 개축하였다. 현재 노수용 목사가 시무하고 있다.



초도교회



초도교회(2008)

(2) 대동교회

초도교회와 마찬가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수노회 소속이다. 1970년 12월 10일 초도교회에서 독립하여 설립하였다. 1973년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1990년에 삼산면 대동길 26-10에 예배당을 신축 준공하였다. 김근성 목사가 시무 중이다.



대동교회



대동교회(1973)

(3) 예미교회

초도의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수노회 소속이다. 1974년 1월 강부영 장로가 기도처를 설립하였고, 1979년에 여수노회의 지원으로 삼산면 초도리 산 100번지에 예배당을 신축하였다. 현재 양인수 목사가 시무 중이다.



예미교회

(4) 진막교회

초도교회, 대동교회와 마찬가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수노회 소속이다. 1980년 2월에 여수성광교회 남선교회의 지원으로 진막교회를 창립하였다. 1982년 삼산면 진막리 2223번지에 진막교회를 신축하였고, 2004년 같은 장소에 신축 준공하였다. 현재 유병현 목사가 시무 중이다.



진막교회



진막교회